



10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10호

(루계 552)



◆◆◆◆◆◆◆◆◆◆ 차 례 ◆◆◆◆◆◆◆◆◆◆

우리 노래의 시작도 끝도	4
김정일동지의 노래	5
《세포비서동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5
기쁨	6
만수축원의 노래	16
당이여 그대의 눈빛은	16
백가지 도술	17
명언	18
조선인민의 밝은 태양	19
해와 별 빛나는 나라	19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2)	20
수고합니다!	22
어린 장수	23
로병의 고백	25
사랑은 어디서 어디까진가	26
청춘의 성격	28
명제해설	29
우리의 수령	29
다심한 사랑	30
해만물상앞에서	31
기다리는 어머니	32

충진군 앞으로 !.....	45
복무	46
룡남산의 새벽노을밑에서	53
평범한 생활의 본질과 미적탐구.....	54
애국의 그 참뜻을... ..	61
《행운》에 대한 기대	62
우리 가는 길.....	70
꽃다발에 잇닿은 생각.....	71
하나의 대답.....	73
위원장어머니.....	74
우리의 로병들 (외 1 편).....	80

우리 노래의 시작도 끝도

김철

당에 드리는 이 노래를
무슨 말로 시작하랴 고르고 골랐건만
드디어 고르고보니
처음 생각하였던 그 말이여라

당은 **김정일**동지 !
그이는 우리 당!

아, 우리 당의 빛나는 로정 그 어느 자욱에
그이의 로고가 숨배지 않았으랴
당이 펼쳐든 필승의 대강 그 어느 갈피에
그이의 사상 그이의 의지
그이의 인간상이 깃들지 않았으랴

잊지 못한다
조국의 운명이 낭끝에 올랐던
이해 3월의 뽕뽕하던 공기를
또 잊지 못한다
지구도 깨뜨릴 담력과 의지로
천만대적도 한줄에 거머쥐신 강철의 령장
그이를 우리러 온 나라가
승리자의 대축제로 일렁인 7월을

가장 어려운 때에
령도자의 두리에 더 굳게 뭉친 인민,
제일 경사로운 때
어느 한 전사도 잊지를 앓으시고
자신의 가까이에 불러주신 령도자

그이께서 세셨기에
허리띠를 조이고 총부력을 다잡으며
사회주의 지키세! 노래했노라
그이를 모셨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놈들과의
세계적인 대결에서도 승리했노라

우리에게 신념이 있다면
그이 주신것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오로지 그이 주신것

잠시라도 그이와 떨어져 존재하는
그런 단결을 우리 당은 모른다
한치라도, 다만 한치라도
그이의 령도를 떠나서 생존하는
그러한 우리 당을 인민은 모른다

그렇다
오직 하나 우리가 아는것
그것은
김정일식이 우리 식이라는것!

오, 희세의 영결, 인류의 영재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신

김정일동지
그이를 수위에 높이 받들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여

천번을 다시
만번을 다시 거듭한대도 그대에게 드리는 우리
노래는
이러하여라 시작도 끝도

당은 **김정일**동지 !
그이는 우리 당!

김정일동지의 노래

리정술

천지의 맑은 물아 너는 알리라
설레는 밀립아 너는 알리라
반만년 력사우에 빛나는 영웅
조선이 높이 모신 민족의 영웅
아 천세만세 받들자 **김정일** 동지

강산도 그 자욱을 잊지 못하네
인민도 그 은덕을 잊지 못하네
우리 당을 이끄신 영광의 만리

내 조국을 꽃피운 사랑의 만리
아 천세만세 받들자 **김정일** 동지

유구한 력사여 길이 전하라
행복한 인민이여 길이 전하라
주체의 진리로 쌓으신 위업
만대에 공헌한 불멸의 위업
아 천세만세 받들자 **김정일** 동지

《세포비서동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백

가을도 좋은 날
해빛도 눈부신 날
선들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 마을을 찾으시였네

풍년이라
하늘에는 흰날개 훨훨 나는 새
땅에는 일렁이는 금파만경
친애하는 그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별을 바라보시네

기쁘시여 걸으시고
걸으시며 바라보시다가
물으시였네
찾으시였네
-세포비서동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러주신 사람은
어느 발머리
어느 논머리에 있느냐
어서 와서 인사를 올리려마
달려와 안기려마
따라선 일군들 안타까와하는데

걸으시다 걸음을 멈추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일이 잘되는곳에는
세포비서가 일을 잘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세포비서를 불렀다고 말씀하실 때

따라섰던
마을의 한 일군이 말씀올렸네
마을의 그 사람을 두고
아이들은 《세포비서아바이》라 부르고
어른들은 《우리 세포비서》라 부른다고

그래서 집안에 의논할 일이 생겨도
누구나 그 사람을 먼저 찾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 이름으로 살지 않고
당이 준 이름 《세포비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때라
풍년이삭도 정말 그렇다는듯
고개를 숙이며 수그리며
그이의 옷자락에 안기고
다락발의 알찬 열매도 가지를 흔들며 인사를
드리는가

술렁이며 물결치며
풍년벌이 아튀는듯
세포비서동무가 여기 있다고
붉은 과원이 대답을 올리는듯
세포비서동무가 여기 있다고

기쁨

탁속본

1

크나큰 걱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끓고있던 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촌특유의 정적속에 고요히 잠기고있었다.

방금전 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떠나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던 두만강 기슭의 크지 않은 역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방문의 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현정목에게는 지금도 군중의 환호성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현정목은 저만치 앞에서 조용히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천천히 다가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한곳에 눈길을 보내신채 서계시었다.

그곳에서는 방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특별렬차가 달려간 두줄기의 은빛철길이 해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있었다.

현정목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이 어린듯싶은 그의 안색을 보는 순간 예리한 물체에 찔리운듯한 아픔을 느끼었다.

현정목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고있는지 벌써 여러해가 되지만 지금처럼 피로해보이는 그이를 뵈옵기란 처음인것 같았다.

정말 이 몇주일사이에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쳐오신 그이신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분명한 나날을 보내시었다.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외국방문에서 크나큰 성과가 이룩되게 하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수령님께서 떠나가시는 방금전까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여 천만가지 조치들을 다 취해오시었다.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건강에 왜 영향인들 없었겠는가.

(수령님을 배웅해드리었으니 이제는 좀 쉬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현정목은 그이께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제는 자리를 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숙소에 가시어 그간 쌓인 피로를 푸실것을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숙소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시름겨운 안색으로 이국의 산발들이 런던히 흘러간 두만강쪽을 바라보다가 한참만에야 눈길을 돌리며 말씀하시었다.

《현동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무척 섭섭합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가게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는 현정목이 울린 청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현정목의 가슴은 삼시에 몽클해졌다. 사실 현정목은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가게 되어있었다. 그러던것이 그 계획이 달라져 현정목이 조국에 그냥 남게 되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것을 녀두에 두고 말씀하시었던것이다. 현정목은 눈시울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 그자리에 서있기만 하였다. 한참만에야 현정목은 도당일꾼들에게 이야기하여 숙소를 준비해놓은 사실을 말씀드리었다.

《동무들의 생각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두만강대안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진갑이 녀으신 수령님께서 렬차로 그 멀고먼 로정을 이어가셔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한평생 휴식을 모르시는 수령님께서 오늘 이처럼 수만리길에 오르시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겠는가 하는 간절한 녀원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만족과 기쁨을 드릴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진정에 넘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현정목의 가슴은 몽클해왔고 눈시울마저 뜨거워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송구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있는 현정목의 심정을 헤아린듯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제든 나라의 경제문제에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금보다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강철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철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정목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도 뜻밖이어서 눈만 크게 뜨고 그이를 우려했다.

잠시후 현정목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쉬실 것을 말씀올린 자신의 청을 가슴속에 묻은채 그이를 모시고 승용차에 올라 김책체철련합기업소에 가고있었다.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달렸을 때였다.

차창에서 눈길을 돌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에게 말씀하시었다.

《현동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무가 여기 도당위원회동무들이 준비해놓았다는 숙소에 갔다와야겠습니다. 여기 동무들이 성의를 다하여 마련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아무런 말도없이 가버리면 그 동무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현정목은 승용차의 가벼운 진동속에서 그이의 말씀을 정중하게 듣고있었다.

《그러니 전화로 하는것보다 동무가 직접 가시나를 대신하여 이번에 일이 바빠서 들리지 못한다고 잘 얘기해주시오.》

현정목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뜨거운것을 삼키며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올렸다.

그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철로 이어진 갈림길에서 승용차를 세우게 하시고 현정목에게 말씀하시었다.

《현동무는 여기서 곧장 숙소로 가시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잘 얘기하고 김철로 오시오.》

...어느새 김철로 시원히 뻗어간 대동로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속도를 높여가고있는 까만 승용차들이 해빛속에서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못박힌듯 한자리에 이윽도록 서있는 현정목은 잠시의 시간적공간도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한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언제면 그이의 크나큰 부담을 덜어드려 단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해드릴까 하고 생각하였다.

...숙소로 가고있는 승용차안에서 현정목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조금전 갈림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때문이었다.

《현동무, 내 미처 동무에게 알려주지 못했는데 동무의 딸 순이가 국제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예술체조선수들이 구라파선수들과 겨루는 경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현정목은 북받쳐오르는 감격속에서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나라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한 가정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었다.

현정목의 눈앞에는 어느새 딸 순이의 얼굴이 방불히 떠올랐다.

현정목의 딸 현순이, 그는 현정목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어서 아들 맞잡이로 귀한 자식이였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현순이의 얼굴은 밝지 못했었다. 그 시절에 현순이는 현정목을 몹시도 괴롭혔다. 중학교 3학년때에 예술체조훈련과로로 하여 그만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었던것이였다. 인민학교때부터 예술체조훈련에 열중해온 순이는 앞으로 훌륭한 예술체조선수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입버릇처럼 외웠었다. 그러던 딸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현정목의 마음이 괴롭지 않았으랴.

명절날에는 현정목이 피로운 마음을 더더욱 달랠길 없었다.

어느해 설달 그믐날이였다.

당시 지방의 어느 련합기업소에서 당사업을 하고있던 현정목은 한해사업을 총화짓고 저녁늦게야 집으로 오고있었다.

이런 시각엔 의례히 현정목은 딸을 생각했다.

당일군이라 늘 바쁜 현정목이지만 한해를 마감짓는 이 마당에선 어쩐지 아버지로서 그리고 세대주로서의 의무를 두고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는 것이였다.

언제인가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되어 가슴이 뻘근해오기도 했다.

《...내 정성이 모자라서 그런지 우리 순인 안 되겠어요. 어느 병원엔들 안가봤나요.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 이제 포기할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말한 안해는 외국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황급히 말끝을 흐려버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 순간 현정목은 방바닥에 후두둑 떨어져내리는 눈물방울을 감축하며 찌릿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 일은 현정묵에게 며칠전 딸 순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불현듯 생각케 하여 더욱 마음을 괴롭히었다.

지난주 현정묵은 금요일로동에 참가하고 퍼그나 일찌기 집에 들어갔었다.

언제나처럼 딸 순이가 아버지를 맞아주었다.

순이는 자기들도 오늘 과외작업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현정묵은 무척 놀라면서 《아니 너도 작업을 하니?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떨어져야지.》 하는 말에 순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왜 작업을 못해요. 나는 작업에 의식적으로 나가군해요.》

현정묵은 놀라운 눈길로 순이를 바라보았다.

《애 순이야, 그런 불편한 몸으로 일하다가 혹시 상하기라도 하면 어떡하겠니?》

《아버지, 제가 몸이 불편하기때문에 오히려 작업에 더 잘 나가야 해요. 만약 내가 작업에 못나간다면 동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나에게 제일 괴로운 일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동무들에게 뒤떨어지는거예요. 이젠 정말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더 열성을 내어 작업에도 나가고 체육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느라 다리도 빨리 낫겠지요. 아버지, 나는 언제면?... 아, 아니예요. 일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순이는 말을 돌연히 끊어버리고 옷방으로 올라가버리었다.

현정묵은 어쩐지 순이를 감히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로 순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무슨 말로 이 시각 괴로움에 모대기고있는 순이의 심정을 풀어줄수 있단말인가.

현정묵은 며칠전에 본 그애의 일기구절이 생각되어 더욱 기가 막혔다.

매일매일 적어가고있는 일기장의 한갈피에 쓰여져있던 글줄은 얼마나 현정묵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가.

《나는 오늘도 체조훈련에 동원된 동무들의 가방을 하루종일 지켰다. 나는 오늘 큰 모욕을 받았다. 훈련이 끝나자 가방을 찾아들고가던 명숙이가 내앞에서 가방을 탁탁 털며 종일 가방보초를 서면서도 가방에 먼지가 가득하게 내버려둔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뜨거웠다.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애의 가방을 털어주려 했으나 선생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 한쪽에서 선생님이 그애를 세워놓고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숙이, 그래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체조에는 참가하지 못해도 가방을 지켜주면서 동무들과 같이 있고싶어하는 순이의 마음을 명숙이는 어떻게든 그렇게 아프게 하나요.》

그날저녁 명숙이가 나를 찾아와서 《순이야, 난 정말 나쁜 애다. 내 오늘 네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내 다신 그런 말을 안할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 나는 물론 곁에 있던 모든 동무들도 울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선생님은 나에게 《순이야, 너는 어쩌면 그리도 우리를 울리니. 내 정성이 모자라 네가 그렇게 된것 같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 선생님도 우셨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울면 선생님도 동무들도 더 가슴아파할것 이여서 이를 옥물고 참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병을 고치고 동무들과 선생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는데 아 정말 그날은 언제일가...》

현정묵은 가지가지의 가슴아픈 일들을 더듬으며 밤길을 걸어 집으로 오고있었다.

드디어 현정묵의 생활에, 순이의 생활에 기적이 생겨났다.

현정묵이 중앙으로 소환되기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던 어느날 가정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순이의 다리를 고쳐주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순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기에 앞서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리었다. 편지에서 순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하늘보다 넓고 해빛보다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침내 대지를 활보하게 된대 대하여 쓰고 자신은 앞으로 어려서부터 꿈꾸어오던 예술체조선수가 되어 조국의 영예를 떨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고 썼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현정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다시금 심장으로 느끼었다.

2

현정묵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도당일군들이 마련해놓은 숙소에 다녀온 사실을 보고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그를 협의회에 참가하라고 말씀하시었다. 방금전 제철소를 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강철생산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신 것이었다. 협의회에는 제철소안의 당행정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하여 강철생산과 련관되어있는 도안의 여러 단위 책임일군들이 참가하고있었다.

현정묵은 회의장 앞자리에 자리잡고 앉아있었다.

협의회의 목적은 현존 설비, 로력,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실 현정목은 벌써 여러번 다녀간바 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전 압연분공장에서 보신 일을 두고 말씀하시였다.

《자동트름선을 타고 련속 쏘아져나오는 펑간 압연폼들은 보기만 해도 힘이 솟고 신심이 생겨납니다. 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토론을 해봅시다. 생산을 끌어올리자면 무슨 문제부터 풀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해보면 명백해지는것이 있을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현정목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김철의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무엇보다 펑간압연롤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다쓰자니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제철소의 지배인이 일어서서 현정목의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펑간압연롤에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펑간압연롤을 외국에서 사다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배인동무가 속끝을 앓고있는 이 문제를 풀어줍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시였다.

《제철소에서 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경북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계속하시였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우리 나라의 큰 발전소들은 대체로 서부지구에 배치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수천리 떨어져있는 여기 제철소에까지 전기를 보내어오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전에 이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하나 크게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발전소의 전기생산을 한계단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이 협의회를 마치고 그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현정목은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전에 도당의 일군들이 하던 목소리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우리가 경제사업을 더 잘했더라면 이번에 그이를 다문 얼마간이라도 숙소에 모실수 있었겠는

데 참 생각할수록 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가슴이 저립니다.》

정말 그 일군들의 말이 옳았다. 이 말은 그들이 할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먼저 했어야 옳을것이다. 생각할수록 현정목이 그이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미여져왔다.

아픈 마음을 안고 모대기고있던 현정목은 그이의 의도에 맞게 경제사업을 잘해나가리라라고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었다.

...김철에서부터 시작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는 청진화력발전소를 거쳐 5 월 10 일공장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출창분망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이 나날들에 그이께서는 자주 무엇인가를 계산해보기도 하시였고 때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자료들을 들여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겨계시기도 하였다.

현정목은 피로와 심려의 빛이 려연한 그이를 우리를 때마다 마음이 그지없이 무거웠으나 그 부담을 덜어드릴 길이 없었다.

5 월 10 일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무산으로 가는 렬차에 오르시였다.

현정목은 차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5 월 10 일공장을 돌아보며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석탄문제, 이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철에서 강철을 많이 생산하자면 전기가 풍부해야 합니다. 이 일대에서 전기생산원천은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석탄입니다. 석탄이 많아야 화력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생산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탄을 더 많이 캐기 위하여 종합채탄기를 일식으로 생산해내는 기계공장을 건설하였던것입니다. 그런만큼 채탄기생산을 금년말까지 2 배는 높여야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현정목은 몇해전에 있었던 일이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석탄생산을 늘이는 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이 부문 일군들과 장시간 자리를 같이하고 의논해주시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형편에서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채탄기를 사다가 탄광들에 보내주면 지금보다 석탄생산을 배이상으로 늘일수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설비를 사오는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5 월 10 일공장

이 일떠서게 되었고 마침내 지금과 같이 훌륭한 종합채탄기가 나오게 되었던것이다.

(정말 그이께서는 얼마나 현명하게 우리의 경제사업을 이끌어주시는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현정목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는데 려차는 어느새 고무산을 지나 높은 산밭을 랑옆에 끼고 힘있게 달려가고있었다.

차창밖으로는 북쪽으로 뻗어간 산줄기들이 손저어바래주는듯 언뜻 달려와서는 서서히 뒤로 미끄러져갔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다정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현동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습니까?》

《예?》

어망결에 이렇게 대답한 현정목은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를뿐 무엇이라고 자신의 심정에 대해 말씀올리지 못했다.

약간 상기된듯 당황해하는 현정목을 바라보며 그이께서는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절로 수령님이 생각납니다. 어느 시인이 썼지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수령님이 생각나고 날씨가 나쁘면 나빠서 수령님이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민은 좋은 인민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수령을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인민은 없을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인민은 외국방문중에 계시는 수령님을 그려보며 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무산의 어느 인민학교 학생은 세계지도를 그려놓고 매일 매일 수령님 가신 길에 붉은 기발을 꽂으며 충성의 좋은일하기를 벌리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동무, 순이가 지금 구라파에 가있습니다. 아마 이틀전에 우리 선수들이 떠났을겁니다. 이번에 순이가 경기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릴수도 있을것입니다.》

《우리 순이가 말입니까!》

현정목은 감동의 빛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웬일이신지 현정목을 깊은 상념의 세계에로 끌어들여 이끌어가지였다.

려차는 계곡에 들어서고있었다. 산비탈에 불이 붙는듯한 아름다운 진달래꽃들이 손에 잡힐듯 눈앞에 펼쳐질 때면 그이께서는 진달래가 만발했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였다.

3

려차는 령길을 굽이돌아오르고있었다.

차창에서 눈길을 들지 못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곡과 산등성이를 지나 끊임없이 뻗어간 정광수송관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

서는 손을 드시여 저 장거리수송관은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현정목이도 감동의 눈빛으로 정광수송관을 바라보고있는데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무산에서 김철까지 250 리나 되는 먼거리에 관을 놓고 정광을 수송한다는것은 누구도 생각해볼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대담하게 구상하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장거리정광수송관을 놓게 하셨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일을 대담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전개하시는것을 볼 때마다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분이시라는 충동을 금할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제일 걸리고있던 정광수송문제가 수령님의 구상에 의하여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현동무, 우리 나라 속담에 룡마도 탈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좋은 정광수송관을 마련해주셨지만 이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동무는 이 정광수송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

현정목은 신통한 대답을 드릴수 없어 말머리를 떼지 못하였다.

《250 리 정광수송관구간에 정류소는 몇개이며 성원들은 얼마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물으심에 현정목은 자료적으로 말씀드리였다.

《그들이 쓰고있는 자재들에 대하여 알고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을 바라보며 웃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막연하게 대답올릴수 없었던 현정목은 그런 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세상만사를 다는 알수 없겠지만 수령님께서 관심하고계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번에 평양을 떠나올 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왔습니다. 그 래야 대책을 세울것이 아닙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시려는듯 두툼한 자료집을 현정목에게 내놓으시였다.

자료집을 받아든 현정목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거기에는 방금 그이께서 물으신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수집중에 달하는 자재의 이름들과 소요량이 기록되어있는 페이지에는

별지로 또 한장의 자료가 첨부되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정광수송관운영에서 부족되는 로력수자까지 정확히 명기되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료집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는 현정묵에게 말씀하시었다.

《무산에 가서 정광수송관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부족되는 로력을 보충하도록 해야겠습니까. 수송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김철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광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정묵은 정중한 자세를 취하며 그이께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르며 심장의 맹세를 올리는 현정묵은 그이의 구체적이면서도 세심한 사업방법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렬차로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정광수송관을 두고도 그것을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여기며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현정묵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번에 우리가 함북지구를 돌아보기로 결심한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업정형을 보고드리면 수령님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실것입니다. 이번에 일을 잘해서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꼭 보답하여야 합니다.》

…렬차에서 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일꾼들은 숙소로 모시려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철산봉으로 오르자고 하시었다.

《숙소로 갈바에야 뭇하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나는 철산봉에 올라가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후 철산봉 정점에서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무산광산의 전경을 오래도록 지켜보시었다.

이날 무산광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무산광산은 전반적으로 일이 잘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토콘베아공사를 다그쳐야 합니다. 로력과 설비는 더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산광산이 생산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회전식 착정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탐사력량은 어떻게 꾸리고 필요한 료전기재들은 어디에서 보장받겠는가 하는것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무산광산의 전망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강조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무산은 첫째도 둘째도 김철의 원료기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광산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면서도 정광수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평양으로 올라가실 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여러날을 단 한시간도 편히 쉬지 않으시었다.

…현정묵은 드디어 무산광산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평양으로 떠나는 특별렬차에 올랐다.

그이를 모신 렬차는 청진을 거쳐 길주를 지나서부터는 천리동해기슭으로 달렸다.

현정묵은 차창곁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밖에는 쉬임없이 파도쳐 설레이는 장엄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있었다. 끊임없이 기슭을 치며 밀려오고 밀려가는 아름다운 푸른 바다, 이 정다운 기슭이 그리워 멀리로 날아가지 못하는 저 흰갈매기들… 그 광경을 바라볼수록 현정묵은 절로 마음이 등떠오르는것만 같았다. 현지지도를 성과적으로 마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평양으로 가고있는 현정묵이었으니 어찌 그의 마음인들 바다처럼 설레이지 않을수 있었으랴.

렬차는 어느새 어항도시 신포시를 지나고 공동함흥시를 가까이 하면서 더욱 기운차게 달리고있었다.

현정묵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사업을 보좌한 나날들을 두고 돌이켜볼수록 그는 그럴듯 마음이 넓어지고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끼는것이였다. 현정묵이 이러한 감정에 잠겨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그이께서 계시는 렬차간으로 들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묵에게 자리를 권하며 보시던 자료들을 앞상우에 올려놓으시었다. 앞상에는 여러가지 문건들과 과학기술통보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그중에도 눈에 띄우는것은 여러가지 공작기계들과 대형기계설비들의 현 발전동향과 추세를 보여주는 사진편집물들이였다. 렬차행군의 그 시간마저 쉬지 않으시고 사색의 바다를 헤쳐가시는 그이의 로고를 헤아리는 순간 현정묵의 가슴은 감동으로 찌릿해왔다.

현정묵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있는 작은 감정변화까지 순간에 포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었다.

《현동무, 렬차는 곧 함흥시에 들어설겁니다. 나는 렬차를 함흥역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룡성로동계급들을 만나보려고 말입니다.》

《!!》

그이의 현지지도로정이 여기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현정묵의 가슴은 걸잡을수 없이 뿔뿔이만 하였다.

이날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걱정과 환희로 들끓었다.

마중나온 일꾼들의 인사를 다정히 받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장으로 먼저 가서 로동자들부터 만나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앞장서 걸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형기계장을 거쳐 3천톤프레스가 있는 프레스직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현정목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3천톤프레스는 이미 그이께서 공장에 오실 때마다 보아주시기대인데 무엇때문에 오늘 또 보시려는지 알수 없었던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었다.

《현동무, 나는 이 공장에 여러번 왔다갔지만 올적마다 프레스직장을 보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수령님의 현지지도 자취가 뜨겁게 스며있는 3천톤프레스를 보지 않고 가겠습니까.》

현정목은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움을 어찌지 못했다.

얼마후 현정목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프레스직장에 들어섰다. 현장은 든중한 기계소리들과 각종 음향으로 가득차있었다. 현정목이 공장에 올 때부터 느껴지는것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현장에 첫발을 들여놓는 이 순간도 그는 어느것부터 보아야 할지 눈이 모자랄 지경이였다. 형형색색의 크고작은 프레스들로 기계바다를 이루어놓고있었다. 그러나 현정목의 눈에는 무엇보다도 현장복판에 요란하게 우뚝 서있는 3천톤프레스가 확 띠여왔다. 3천톤프레스의 웅자, 그것은 마치도 현정목에게는 두개의 요란한 기둥으로 이 큰 기대를 받치고서서 사람들에게 위세를 돋구고있는것처럼 보였다. 그런가 하면 찌릉찌릉 종을 울리며 쉬임없이 물체를 물어나르는 천정기중기의 모습이며 고압전류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는 대형전기로의 거대한 음향, 이 소음속에서도 든중하게 들려오는 프레스의 요란한 소리, 이 모든것은 키울은 산업건물의 높다란 지붕창으로 쏟아져들어오는 햇빛으로 하여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마치도 현장은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이 하나의 숨결로 숨쉬고있는듯한 느낌을 주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침내 3천톤프레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로동자들이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따듯이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3천톤프레스의 작업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적백색으로 달아오른 소재에서 내뿜는 열과 로에서 뿜어나오는 열로 하여 로동자들의 얼굴은 벌겍게 달아올라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전히 한자리에 서계신채 커다란 강괴를 떠반죽하듯 마음대로 놀러대는 단조공들의 몸매 땀 작업동작을 미덥게 바라보며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여러번 봤지만 3천톤프레스가 대단합니다. 룡성기계공장 로동계급은 8메타리닝반과 3천톤

프레스를 만들어낸 영웅적으로동계급입니다. 룡성기계공장 로동계급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3천톤프레스에 붙어있는 명판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1960년, 이 프레스를 만든 때만 해도 우리수령님께서서는 젊으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단하신 그이께서는 지배인에게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이번에 수령님을 배웅해드리면서 나는 반백이 된 수령님의 머리에서 눈을 땔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었다라면 수령님의 머리가 지금처럼 희여지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았겠는가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가법지 않았습니다.》

현정목은 가슴이 찢어졌해왔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수령님께 기쁨과 젊음을 드리고싶은 간절한 희망을 안고 공장에 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나가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프레스가 누르고있는 소재는 어디에 쓸것인가고 물으시었다.

지배인이 6천톤프레스에 쓸 부분품소재라고 말씀드리었다.

현정목은 그의 대답이 리해되였다. 금년중에 이 공장에서는 6천톤프레스를 2대 만들게 되어있었던것이였다.

지배인이 올리는 말씀을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6천톤프레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1만톤프레스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현정목은 놀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금방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려는듯 이렇게 지적하시었다.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은 1만톤프레스를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에서와 우리 나라 공업실태에 대하여 상기하시면서 뜨겁게 말씀을 이어나가기였다.

《오늘의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수준과 요구로 보아 1만톤프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무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보고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현정목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듣고서야 어찌하여 그이께서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으며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여기 프레스직장에 들리시였는지 비로소 그 뜻을 헤아릴수 있었다. 현정목은 한없이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한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때 현정목의 마음을 대신이라도 하려는듯 지배인이 자기들의 결의를 말씀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1 만톤프레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 일군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현정목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순간 현정목은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김철첩의 회에서 쟁간압연롤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기존상식대로 외국에서 사다 쓸 생각으로 그 어떤 방도도 내놓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가슴저리게 자책되었기 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여 프레스에 붙어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고 있는 젊은 노동자를 찾으시었다.

《동무는 몇살입니까?》

그이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으시었다.

곤색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로동화를 가쁜하게 신은 청년은 순간에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그이께 스물세살이라고 대답올리었다.

《스물세살,》

이렇게 되뇌이신 그이께서는 나이가 좋다고 하시면서 또 물으시었다.

《프레스에서 언제부터 일합니까?》

《4 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기능급수가 높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청년은 아직은 급수가 높지 못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겠다고 자신의 결의를 다지었다.

그러자 지배인이 그이께 말씀드렸다.

《이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이 직장 충성의 돌격대 대장입니다.》

그 일군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청년에게 말씀하시었다.

《방금 지배인동무가 1 만톤프레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동무들이 1 만톤프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 동무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지난날 우리 공장 로동계급이 이 3 천톤프레스를 만들 때 무슨 좋은 기계가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때 우리 로동계급은 기대에 소재를 물린것이 아니라 소재에 기대를 물려놓고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는식으로 소재를 가공하여 3 천톤프레스도 만들고 타닝반도 만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청년의 말을 흥미있게 듣고계시었다.

《동무는 나이가 어린데 옛날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부모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참 좋습니다.》

순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으신듯 얼굴에 열정의 빛을 한가득 담으시었다.

《보시오,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할 아버지, 아버지들이 어떻게 일하였으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1 만톤프레스를 능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1 만톤프레스를 만들어내면 누구보다 기뻐하실분은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아마 외국방문을 하시는 수령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참으로 기뻐하실것입니다. 동무들, 우리가 3 천톤프레스를 만들던 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공업은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공업이 이렇게 키가 자랐는데 우리가 1 만톤프레스를 만들지 못할 리유란 없습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기계도 만들어낼 신심에 차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청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현동무, 이렇게 현실속에 나와보야 답이 커지고 결심이 명백해집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점차 말씀을 격조높이 이어가고계시었다.

《1 만톤프레스생산, 이것은 당중앙위원회가 룡성의 로동계급의 힘과 충성심을 믿고 펼치는 작전이라는것을 동무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프레스가 완성되면 우리는 3 천톤프레스를 만들었던 그때처럼 기뻐하시는 수령님을 모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렬차안에서 참고로 보시던 여러가지 과학기술자료들을 돌격대장 청년에게 넘겨주시었다. 그리고 1 만톤프레스생산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에 자신께서 사용하던 계산기를 쥐여주시었다.

현정목은 이 뜨거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청진을 떠난 렬차안에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손수 계산까지 해보시던 그이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져 가슴이 찢어졌다.

렬차행군의 그처럼 긴장한 속에서도 경제전문 일군들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1 만톤프레스문제에 대한 생각을 거듭 무르익히시여 마침내 룡성의 로동계급을 그 실현으로 불러일으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상한 령도적수완, 어떤 복잡한 문제도 즉시에 핵을 잡아쥐고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는 묘술을 안겨주시는 비범한 지도

력, 한없는 사랑과 신임으로 천만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그이의 위대한 담력, 그 어느 위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 무한대한 열정과 탁월한 령도력의 원천은 바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한없는 충성심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이 시각 현정목은 심장으로 체득하고있었다.

5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신 그날, 도시는 아직도 크나큰 걱정과 기쁨의 열풍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듯 살림집들의 창밖은 불빛들과 포장길우에 흘러넘치는 백색 형광불빛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있던 이 밤, 현정목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문곁에 서시어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이윽하여 현정목을 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왜 앉지 않고 서있는가고 하시면서 그를 몸가까이 불러앉히시었다.

현정목이 자리를 잡고앉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름할수 없는 흥분을 녹작히며 천천히 말씀하시었다.

《현동무는 참 행복합니다. 이제 이틀후면 수령님을 모시게 되겠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 현정목은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선뜻 리해할수 없어 그이를 우러르기만 하는데 또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놀랄것이 없습니다. 동무는 아무래도 우리와 같이 평양으로 가서는 안되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함남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를 오늘로 끝을 내고 래일아침에는 평양으로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정목은 흥분을 삭이지 못하고 말씀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의 말에 그렇다고 긍정해주고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동무는 우리와 같이 기차로 가서는 늦습니다. 이제 곧 비행장으로 나가서 평양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래일 수령님께서 계시는 나라의 00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디마디 그루를 박아 말씀하셨으나 현정목은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한참이나 자신을 잃고 서있는 현정목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스스로없이 현정목이에게로 다가가시어 《현동무.》 하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것은 내가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입니다. 수령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는 기간에 경제사업이 잘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라들을 방문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경제건설의 새로운 성과와 비약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과 인민을 동원하였습니다. 농사문제는 그동안 매일매일 보고드렸지만 공업문제는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수령님께서 중요공업부문형편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하실것입니다. 현동무, 룡성로동계급의 결의를 수령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시오. 1 만톤프레스를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낼것을 결의해나선데 대하여 동무가 보고느낀것을 그대로 보고드리시오. 이제 당장 평양으로 올라가시오. 래일 특별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찌 한시인들 지체시키겠습니까.》

《!! …》

《수령님께 마음놓고 일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시오. 아마 현동무가 이 편지를 가지고가서 기뻐하시는 수령님을 뵈면 수령님의 전사된 보람과 공지를 가슴벅차게 느끼게 될것입니다. 그뿐 아마 이번에 쌓인 피로가 쭉 풀릴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현정목은 갑자기 체내에서 불뭉치가 치달아올라서 그만 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보니 현정목이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히 리해되였다.

(아,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애초에 계획하시였던 문제를 변경시켜 자신을 조국에 떨어지게 하시였고 또 그토록 룡성기계련합기업을 현지지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구나.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녕 내 언제 가면 당신의 이 높으신 뜻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현동무, 이시각 나는 동무가 말할수 없이 부럽습니다. 내가 직접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현동무, 수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그이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이것은 나의 평생의 의무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최대의 념원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다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자, 그럼 이제 떠나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정목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현정목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웅을 받으며 문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반짝거리는 별들이 한벌 쪽 깔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시었다. 순간 그이의 눈길은 저쪽 머나먼 별무리가 비껴있는 하늘가에 잇닿아있었다.

그이를 우러르는 현정목은 승용차의 문을 잡은 채 굳어져있었다. 며칠전 지구의가 놓여있는 창가에서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수령님을 그려보시던 그이의 모습이 생각되어 오늘 이 시각도 그이께선 어딘가에 계실 수령님의 안녕을 축복하며 머나먼 저 하늘가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니 현정목이 절로 눈언저리가 축축히 젖어드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현정목을 태우고 평양비행장을 리륙한 특별 비행기는 드디어 목적인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이 나라 정계인사들과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일꾼들이 나와 현정목을 맞아주었다.

현정목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가려고 승용차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아버지-》하고 찾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고 이어 꽃뭉음을 한아름 안은 까만 눈을 가진 처녀가 눈앞에 불쑥 나타나지 않는가.

순간 현정목은 생각을 가다듬고 그 처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꽃뭉음을 들고 다가온 처녀는 뜻밖에도 딸 순이였던것이다.

순이는 아버지의 품에 온몸을 맡기고 감격에 흐느끼며 도란도란 말했다.

《아버지, 우린 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축하전보문을 받았어요. 이번 경기를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귀국하기에 앞서 아버지가 오시면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함께 드리라고 하시였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드리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척 기뻐하실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냐, 오냐. 그렇게 하자꾸나. 꼭 그렇게 하자.》

현정목은 더는 말을 못하고말았다.

현정목이 이 시각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으랴. 말 못하고 딸의 손을 꼭 쥐고 서있는 현정목의 머리속에는 지난 여러날간에 있었던 일이 하나의 선상에 압축되어 더욱더 뚜렷이 안겨오고있었다.

자신이 갑자기 두만강연안의 자그마한 역에 떨어져 남게 된 일이며 딸에 대한 소식을 받던 일,

수령님께 보내는 친서를 받던 일, 딸 순이와의 상봉, 이 모든것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포치하시고 가꾸어주신 귀중한 열매였던것이다.

이 시각 현정목의 심장은 이렇게 속삭이고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행복중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것일까, 정녕 이 세상에 기쁨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정녕 그 기쁨은 어떤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사색도 지해도 열정도 다바쳐 투쟁하는 삶일것이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모범의 본보기는 우리의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어쩌면 그이께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자세가 그리도 깨끗하실가.

문득 언제인가 그이께서 추억에 젖어하시던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끝없이 맑은 눈동자속에 어머니의 얼굴을 익힌 아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심정으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받들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수령님을 받들고 모시는 자세에서 한없이 무거운 그이의 말씀의 중량감을 받아안게 한 력사의 순간이었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을 되새겨보며 뜨거운 격정으로 마음설레이고있던 현정목은 다만 딸 순이에게 이렇게 말했을뿐이었다.

《순이야, 순이야, 우리의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오직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분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오늘의 이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짧은 말속에 무엇인가 보다 의미깊고 의의있는 뜻을 담아보려고 애썼으나 어쩔지 말을 하고보니 긴히 해야 할 말이 그만 빠진것만 같아 현정목은 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현정목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까지 받은 마음설레이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나라 기발들이 펄럭거리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곳곳에 모신 거리는 명절분위기로 설레고있었다.

승용차에 앉은 현정목은 어쩐지 이 도시가 이국의 도시같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도 명절날 평양의 어느 거리를 달리는것만 같은 즐거운 기분에 휩싸여있었다. 승용차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싣고 넓은 대동로우를 소리없이 미끄러져가고 있었다.

만수축원의 노래

최로사

배루시는 그 은혜 하늘과 같아
안겨주신 그 사랑 바다와 같아
걸으신 천만리길 돌아봅니다
지새우신 천만밤을 생각합니다

꿈과 같이 꽃피우신 오늘이 있어
하늘같이 열어주신 앞날이 있어
우리러 따르며 받들어 모시며
인민들은 충성으로 따릅니다

강산은 변해도 우린 한마음
열백번 태어나도 우린 한마음
세월의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천대만대 충성을 다하렵니다

친근하신 아버지 **김정일** 동지
충심으로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당이어 그대의 눈빛은

량덕모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걸음걸음 따듯이 보살펴줍니다
하루에 그 몇번 엿바뀌는
마음속 생각도 세심히 헤아려봅니다

잘못이면
조용히 깨우쳐주고
건설장의 어느 기초밑에 소문없이 묻는 땀도
파분하게 감사를 안겨줍니다

우리르면
자식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아버지 그 눈빛입니다
우리들수록
온 뉘이 끝립니다
당이어! 그대의 눈빛은

내리는 햇빛처럼
이 땅의 만사를 다 살피고
반짝이는 별빛처럼
만사람의 심중을 다 비쳐주는
천리혜안의 그 눈빛

그대의 아들딸
인민을 위해서는
다심한 사랑 끝없이 흐르는
인자한 눈빛
그 깊이를 알길 없는 인덕에
무정한 심장도 황황 달아옵니다

그러나 한번 노하면
장검같은 번개를 일쿠며
휘몰려오는 검은구름 장막도
산산이 쪼개버리는
엄엄한 눈빛
번쩍이는 그 증오에
원썬들은 기가 죽어 벌벌 떩니다

그 눈빛으로
다난하고 복잡한 세상
불의를 순간에 갈라내고
아름다운것을 누리에 빛내이며
멀고 먼 혁명의 길
사회주의 앞날을 환히 열어주나니

당이어! 그대의 눈빛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진리의 샘입니다
결과 속이 다른 마음은 숨길수 없는
량심의 거울입니다
천만 사람을 매혹시키는
의리와 열정의 불길입니다

오, 사랑으로 진실하고
믿음으로 뜨거운
그대의 그 눈빛
내 한생을 지켜주는 운명의 불빛이어서
그 빛발속에 오늘도 래일도
나는 만시름놓고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은 밝고 밝아만집니다!

백가지 도술

5. 굳어진 기마경찰

1931년 추수투쟁때 화룡지방에서 있던 일이
다.

두만강류역의 어느 한 마을에는 복동이라는 총
각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나이는 열두살이지만 몸이 다부지고 힘이 세서
무슨 일이나 막히는데가 없었다.

그러나 외아들이어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
여 부모들이 웬만해서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복동이는 지계를 지고 뒤산에
나무하러 가게 되었다.

한것은 복동이의 부모들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일제놈을 등에 업고 악착하게 착취하는 지주놈과
담판하기 위해 그놈의 집으로 가기때문에 아무도
없었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지주집에 달려가 담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난가리를 허물어 3.7 제로 곡식을 되찾
아오자는것이였다.

산말랭이에 오른 복동이는 지계를 벗어놓고 강
대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손에 들었다.

이때 산밑에서 와와하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가 들려왔다.

눈을 아래로 주니 마을사람들이 지주집으로 밀
려가는 모습이 뻔히 내려다보였다.

복동이에 마을뿐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사람
들이 길목에서 합쳐서 시위군중은 어느덧 몇백명
에 이르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지주를 타도하자!》

격노한 군중들의 웨침소리는 산밭을 찌렁찌렁
울려였다.

성난 파도처럼 거세차게 밀려가는 군중들의 사
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그것을 내려다보는 복동이는 저도 모르게 흥분
에 떴다.

바로 그무렵 시위군중앞에 경찰들이 길을 막아
나섰다. 곤색정복에 누런 외투를 입은 일본경찰
들과 보호색 복장을 한 《만주국》경찰들이였다.

이놈들은 급보를 받고 달려온 화룡현안의 경찰
들이였다.

놈들은 헛총질을 하면서 시위군중들을 해산시
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한데 뭉쳐 놈들과 맞받아 용
감하게 싸웠다.

이것을 내려다보는 복동이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다.

저속에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것인즉 혹시 무
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시위군중들은 경찰놈들을 밀어제끼고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들은 더는 어쩔수 없었는지 뒤로 물러섰다.

《후-》복동이는 안도의 숨이 나갔다.

수백명의 농민들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마음이 놓인 복동이는 어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텅텅 몇대
의 강대나무를 찍었다.

강대나무를 토막을 내서 지계에 싣던 복동이는
갑자기 울리는 말울음소리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종성과 상삼봉(현재는 삼봉, 함경북도
에 있는 고장이름)쪽에서 달려오는 한무리의 기
마경찰들이 얼음이 언 두만강우에 들어서는데
이였다.

아마도 화룡현경찰서에서 그쪽에 응원을 요청
한 모양이였다.

(아참, 이를 어쩌나?)

복동이는 안타까와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것을 알리 없는 시위군중들은 마음놓고 지주
놈의 집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수백명의 기마경찰들이 두만강을 건너서기만
하면 시위군중들은 형세가 매우 불리하게 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참한 희생만 낼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였다.

복동이의 작은 가슴에선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
고 이마엔 땀이 빠질뻔히 내뿜었다.

바로 이때였다. 하늘에서 《오호흥!-》하고 우
뢰같은 말울음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번개가 일고 짙 파르릉하고 천둥이 울
었다.

복동이는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숨같은 흰구름 몇덩이가 떠가는 하늘엔 룡마가
두나래를 펴고 날아가고있었다.

룡마우엔 장수가 앉아 채찍을 휘둘러대고있었다.

장수가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일고 천
둥이 울군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번개가 일고 천둥이 울자 두만강얼음우에 들어
선 수백명의 기마경찰들이 갑자기 그자리에 얼어
붙어 꼼짝못하는것이였다.

조금 있더니 말들은 웬일인지 뒤걸음을 치며
거꾸로 가는것이였다.

아무리 박차를 차고 고삐를 당겨도 말은 자꾸
만 뒤로 물러갔다.

놈들이 말을 몰아대는 소리와 말울음소리가 강
안에 가득찼다.

얼마후에 말들은 자기들이 달려온 종성과 상삼
봉쪽으로 퍼그나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기마경찰은 한놈도 두만강을 건느
지 못했다.

눈이 휘둥그레진 복동이는 너무 기뻐 두손을
높이 쳐들고 소리라도 지르고싶었다.

지주집에 밀려간 시위군중들은 몇겹으로 에워
싸고 연방 구호를 웨쳐대며 담판을 들이댔다.

군중들의 기세에 놀리워 것처럼 살기등등하던
지주놈은 고양이앞에 쥐처럼 꼼짝하지 못하였다.

농민들은 낱가리를 허물고 3.7 제로 곡식을 되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시위군중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이
기게 되었는지 모르고있었다.

나무를 지고 돌아온 복동이가 아버지에게 자기
가 본 사실을 말해서야 그들은 모두 내막을 죄다
알게 되였다.

《백두산대장수님의 그 신묘한 도술이 아니라
면 우리는 이기지도 못하고 큰 희생을 낼번하였
소.》

그들은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목이 짹 메였다.

장군님께서 전날밤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만강
의 얼음을 미리 까놓게 하신 사실을 모르고있는
그들은 백두산장수가 도술을 부린것으로 생각하
였던것이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되
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수 있다. 자산가출신들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것은 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것으로 그치고말며 도락을 못
누려도 사람답게 사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조선인민의 밝은 태양

카구미아-르파미조

아 주체시대의 빛나는 향도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당신은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시는분
당신의 현명성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되어있었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현명한 령도력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어라

아 **김정일**비서
당신은 결출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사상을 체현하시고
주석의 지향과 뜻을 충실히 받드시는분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분
영광을 드리노라

아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계승자
주체의 빛나는 향도성

당신은 조선인민을 통일로 불러일으키시는
령도자

아 **김정일**비서
조선의 미래 당신에게 달려있고
위대한 태양은 세계인민들을
진리로 각성시킵니다

아 **김정일**비서
당신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사랑을 베푸
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만세!

(필자는 우간다 캄팔라고등중학교 교원들의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성원임)

해와 별 빛나는 나라

씨. 씨 저벨레루

동쪽에서 솟은 태양은
따사로온 빛발로 만물에 생을 준다네
하여 세상만물 태양을 우러르며
태양을 따라 만물은 자란다네

동방에서 솟은 인류의 태양
인류에게 참다운 생을 안겨주었다네
아 온 세상 인민들 태양을 우러르며
주체의 태양을 따르네

동방에서 솟은 주체의 향도성

자주의 앞길 밝혀주네
아 온 세상 사람들 향도성 우러르네
조선은 새 힘 주는 희망의 나라라네

향도성 따라서 온 세계 나아가네
동방의 조선은 해와 별 빛나는 나라라네
해와 별 빛나는 사회주의금수강산
조선은 자주의 등대 주체의 나라라네

(필자는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임)

《가사창작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2)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깃든 이야기

오늘 우리 인민들이 사는 조국강산 그 어데서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흠모하여 칭송하는 노래들이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가 그렇듯 정서깊고 사색있게 장엄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사혁명을 탁월한 령도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0년 12월 어느날, 지난 시기 당에 대한 가요 창작에서 나타난 본질적결함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주시면서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를 써야 하겠는데 《동지애의 노래》와 같은 식으로 정서깊고 사색있게 써야 하겠다고 하시며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라고 하여 감정을 띄워서 송가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지난 시기 가사창작에서 시인들이 범하고있던 완고한 도식의 틀을 깨뜨리고 일대 방향전환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시발점으로 되였다.

지난날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노래는 응당 송가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틀에 맞추어 창작해왔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시인들은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노래를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념을 담아 정서깊고 사색있게 쓰는데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유일사상에 대한 가사 창작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한 시인은 한결음을 걸어도 하나의 생각을 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고 그 길에서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썼다.

1981년 2월 어느날이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무대에 올리게 되였다.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 창작에서 낡은 틀을 마술대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계

신후에 지은 노래로서 그이의 지도를 받게 되는 창작가들의 가슴은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노래가사를 창작한 시인도 곡을 붙인 작곡가도 일군들도 모두 긴장해졌다.

시인은 가사를 잘못 써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초조한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하지만 이 가요를 들으신 그날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무실에서든 록음으로 다시 들어보시고 지어는 승용차를 타고가시는 길에서도 여러번 들어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것처럼 사색에 사색을 거듭해오셨다는것을 그 누가 꿈엔들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며칠후 극장에 나오시여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정서깊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좋다고 하시면서 전사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에 담았기때문에 선물이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2절 가사가 좋다고 하시면서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를 쓰라고 과업을 주었는데 노래를 아주 잘 썼다고 하시면서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방송에 많이 내보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고 조용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보시는것이였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랴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어라
...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노래를 불러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따라불렀다.

노래를 끝마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당중앙 우러러》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고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그이의 말씀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서로 마주보았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받드는 한 혁명전사라고 하시며 《당중앙 우러러》라는 표현을 《당중앙 따라서》로 고쳐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그이의 한없이 겸허한 말씀에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후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향토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드는 우리 인민들은 노래를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불렀다.

그러던 1981년 8월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한일군에게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좋다고, 인민들이 이 노래를 즐겨부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에 대한 평론을 써서 《로동신문》에 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론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되어 이 노래를 그렇게도 좋아하며 진심으로 부르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창작가들이 써서 올린 평론을 보아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에 《당중앙 우러러》라는 구절이 그대로 있는것을 보시자 친히 펜을 들어 《당중앙 따라서》로 고쳐놓으시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창작가들은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품모에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사까지 고쳐주셨으니 이제 나무랄데 없는 완성된 노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직 한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은 이 노래를 보다 훌륭하게 완성시켜주시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고계시였다.

노래가 불리워지기 시작한지 1년이 켜 지난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전화로 찾으시여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2절 가사를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릴 불러 혁명동지라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라는 구절은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수 있지만 가사에 전인민적폭은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를 다시 한번 써오라고 하시였다.

이 말씀에 접한 시인은 한편의 가사에 기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색과 심혈에 뜨거움을 금치 못하면서 곧 가사를 수정하였다.

시인은 그이께서 지적해주신 2절 첫단 《우릴 불러 혁명동지라고 믿어주는 그 사랑에》를 《우리 생명 밝은 별과 같이 빛내주는 그 사랑에》라고 고쳐서 올렸다.

며칠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친 기사를 보시고 창조집단에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2절 가사를 수정하여 제기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1절에서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진 길 그 얼마랴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어라》라고 노래한 그런 폭으로 2절 가사도 고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당원으로, 작가로 자라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이의 의도에 맞게 가사 한구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있는 자신을 깊이 자책하면서 시인은 다시 가사를 수정하는데 모든 정열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그리하여 며칠후 1, 2, 3 안으로 된 수정안을 만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친히 고치신 2절 가사를 보여주시는것이였다.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붉다네

얼마나 뜻이 깊고 폭이 넓은 명가사인가!

정녕 이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찾아주실수 있는 숭고하고도 빛나는 시구들이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전사들이 당중앙을 우러르며 그 사랑을 못잊어하는 감정을 전사들의 가슴속에 꿰고있는 신념과 의지, 불타는 맹세로 바꾸어주시였다.

그리하여 2절의 폭을 1절과 같이 넓힘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 종전가사에서 가지고있던 본질적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시적형상에 있어서도 가사의 구조에 맞게 2절을 보다 승화시켜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의 구절구절을 경탄의 눈으로 보고 또 들여다보는 일군들에게 작가와 고친 가사를 함의해보고 그 정형을 알려달라고 당부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시인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날 아침 그 일군에게 전화로 작가와 합의해보았는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시인이 감격해하며 명가사로 접수하였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러면 됐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또다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고쳐진 가사에 맞게 노래를 새롭게 형상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진정 가요《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는 그 어느 개별적인 작가에 의하여 완성된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완성된 명가사이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작가에게 돌려주시었다.

1982년 4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노래《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를 잘 썼다고, 특히 가사에《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라는 표현은 당의 의도와 꼭 맞는다고 하시면서 노래《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를 쓴 동무에게 가사를 잘 썼다고 평가하였다는것을 전달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시인들에 대한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는 말씀인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믿음, 이보다 더 큰 표창이 또 어데 있겠는가.

유일사상에 대한 노래를 그 어떤 정치적구호나 웨침으로써가 아니라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높은 정서와 깊은 사색을 담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창작하도록 시인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끄시여 그들의 정치적안목을 넓혀주시고 창작적대담성을 키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인들을 보다 높은 창작적경지로 계속 힘차게 이끌어주시었다.

수고합니다!

김숙

예 와서
이렇게 탄부들을 만나니
내 너무도 쉽게
그리고 생각없이 하던
그런 말이 있었구나
《수고합니다!》

탄부들이 한생토록 걷고걸는 이 길
내 잠시 걸으니
가슴깊이 새겨보노라
그 말의 참뜻을
《수고합니다!》

되새겨보노라
깊고 무겁고 값높은 그 뜻을
청춘도 한생도
막장에서 맞고 보내는
탄물오른 저 공훈탄부의 손에서

이 말이 풍기는 향취를
내 처음 느꼈노라
땅속 굵이굵이 밝은 빛을 뿌리는
나어린 운전공처녀의
밝은 눈동자에서

그대들이 흘리는 티없는 땀방울에

내 시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며
그대들이 캐는 《검은금》에
내 마음 비쳐보니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

《수고합니다!》 이 말은
해놓은 일의 대가처럼 받아들일
그런 말이 아니여라
평범히 주고받을 걸치레의 인사는
더더욱 아니여라

아, 이 인사 이 말은
한일을 두고 부끄럼없고
한일을 두고 장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 그네들이 받을수 있구나
그대들에게만 하고싶구나

부모에게 바치는 효성을
수고로 생각지 않는 자식의 마음인듯
우리 당을 받들어
온몸으로 《검은금》을 들어올리는
탄부들 그대들에게
내 머리숙여 진심으로 인사보내노라
아,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어린 장수

천하명산중에서도 동방의 령지라고 부르는 백두산은 이 세상 모든 산들의 조종이며 근본뿌리라고 할수 있다.

옛사람들은 백두산이야말로 조선 일체의 집약적표현이며 조선 최고의 전팔적가치이며 조선 특유의 절대적정화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거목의 뿌리이며 조선이라는 형상의 거울이라는것이다.

조선을 위하여 함에도 백두산을 비롯하여야 하며 조선을 알려 함에도 백두산에 비쳐보아야 한다고 했다.

동방의 령봉 해발 9천여척의 백두산말랭이에 올라서서 천풍에 옷깃을 날리며 눈을 아래지경에 주어보면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늘을 나는 룡을 잡아 묶고 백년 묵은 범을 한손아귀로 거머쥐는 용감한 장수, 아니, 온 세상을 평정할 세계 최고의 위인이 탄생할 성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그러므로 조선을 강점한 일본놈들도 백두산을 두려워하였고 더욱 그곳에서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제일 무서워하였다.

이 이야기는 해방되기 직전에 백두산에서 있는 일이니까 갑신년 가을이 아니면 을유년 봄에 있는 일일것이다.

일제말기 왜놈들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말만 듣고도 무서워서 대가리를 구겨박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백두산에서 가까운곳에 자리잡고있는 왜놈 《토벌대》에선 갑자기 출동명령이 내려왔다.

《토벌대장》 미야자끼가 방금 밀정으로부터 긴급정보를 받았던것이다. 정보에 의하면 **김일성**장군이 유격대를 거느리고 멀리 북쪽으로 출전하였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계실 땐 무서워서 바깥출입도 못하고 꿈쩍않던놈들이 멀리에 출전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때라고 생각하고 총출동을 한 것이였다.

상관들로부터 늘쌈 머저리요, 비겁쟁이요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어온 미야자끼는 천재일우의 이 기회에 한번 《무공》을 세워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미야자끼는 날이 어둡자 졸병들을 마구 내몰면서도 제놈은 겁이 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맨뒤에서 따라갔다.

이때 하늘에서 병긋하면서 별찌 하나가 허공중에 선을 쭉 그으며 땅으로 떨어졌다.

《토벌대장》은 이것을 보더니 갑자기 목을 움츠리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다.

걸으려 해도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미야자끼가 이러는데는 연고가 있었다.

몇해전이었다.

《토벌대장》으로 갓 부임되어와 하루강아지범 무서운줄 모르던 때에 **김일성**장군이 부하 몇사람을 거느리고 백두산에서 내려 어느 산막집에 쉬고있다는 정보를 받은 그는 《토벌대》에서 제일 끝끝하고 용감하다고 하는놈들을 100명 끌라가지고 밤이 이슬하여 그리로 은밀하게 달려갔다.

그때 바로 하늘에서 별찌가 병긋하고 땅으로 떨어지더니 얼마 있다가 광풍이 일고 번개가 번쩍거리였다.

세찬 광풍에 졸병들은 휴지장 날리듯 어디론가 연방 날려갔다.

미야자끼는 졸병놈들이야 어떻게 되건 저혼자 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놓았다.

정신없이 뛰다가 기진해진 이놈은 산마루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제가 방금 도망쳐온 그 골짜기에 떨어졌다.

《아이쿠!》

《토벌대장》은 비명을 질렀다.

졸병들은 그 불덩이에 맞아 비명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모두 타죽고말았다.

《후-》

놈은 제목숨 하나라도 건진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긴숨을 내쉬였다.

이상한것은 《토벌대》가 들어선 그곳에서만 광풍이 일고 벼락을 쳤던것이다.

조금 있더니 밤하늘에선 푸르스름한 달빛이 쏟아져내렸다.

달밝은 밤하늘로는 가랑잎을 탄 유격대원들이 날아가고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룡마를 탄 백두산 대장수 **김일성**장군이 보였다.

(정말 **김일성**장군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하고 《승천입지》한다는 말이 옳긴 옳구나.)

그때부터 미야자끼는 얼이 빠져 머저리가 되었다.

그를 보고 머저리요, 겁쟁이요 하는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였다.

그가 어데인가 출동할 때에는 그곳에 **김일성** 장군이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가늠하고자 용단을 내리곤하였다.

이번에도 그는 백두산에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자 마치 용감성을 내어 근거지를 치거나 하는것처럼 우에다 굉장히 보고하고는 이렇게 출동한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찌가 떨어진것이다.

이번에 또 천둥이 울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겁이 났다.

류성이 하늘에서 사라진지 오랫동안 사위는 아무런 기미도 없이 조용하였다.

(음, **김일성** 장군이 멀리 출전하였다는것이 사실은 사실이구나.)

부들부들 떨던 《토벌대장》은 그제야 기운을 내어 칼을 빼들고 소리쳤다.

《뿔뿔하는가? 뿔리뿔리 돌격하라!》

《토벌대》놈들은 여름 한철 메뚜기인양 날치는 미야자끼가 무서워 리명수를 지나 간백산쪽으로 우르르 물러갔다.

이때였다.

백두산에 뜬 장군별 옆에 얼마전에 새로 나타난 상서로운 별이 유별나게 밝은 빛을 뿌리었다.

이것을 본 미야자끼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흠칫하고 소름이 끼치었다.

주춤주춤하며 얼마쯤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놈들아!》 하는 우뢰같은 호령소리가 울리었다.

《**김일성** 장군이다!》

《아이쿠!-죽었구나.》

《토벌대》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까투리처럼 대가리만 땅에 박고 엉치를 하늘높이 쳐든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얼마만에 아무런 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미야자끼는 《토벌대》를 끌고 꿈무늬를 빼여 병영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놈은 밀정놈을 불러들여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네놈은 나쁜놈이다. **김일성** 장군이 출전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우리 〈황군〉의 행동에 혼란을 주었다. 지금같은 〈비상시국〉에 그런 죄는 죽어 마땅하다.》

미야자끼가 한창 성이 나서 권총을 빼들고 밀정놈을 닦아세우는데 한 장교가 급히 들어와 보고를 하였다.

그 내용인즉 **김일성** 장군이 어제밤에 멀리 북쪽에서 왜놈병영을 쳤다는것이였다.

《뿔이?》

미야자끼는 **김일성** 장군이 여덟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이 시꺼멓게 죽어 와들와들 떨던 밀정놈은 인제야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미야자끼는 또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졸병들은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꾸물거리며 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사실 미야자끼도 속은 좀 껄림직하였다.

어제밤 하늘에서 울린 호령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았던것이다.

일부러 느장을 부리며 더디게 움직이는 《토벌대》를 겨우 내몰아 간백산쪽으로 가는데 저 멀리 백두산마루에서 밤빛롱마 한마리가 금빛을 뿌리며 날아왔다.

(아이쿠, 저게 **김일성** 장군이 탄 말이 아닌가? 북쪽으로 출전했더니... 아무래도 **김일성** 장군이 돌인게 분명하다.)

미야자끼는 마음이 철렁해서 생각하였다. 그는 풀덩굴속으로 뛰어들었다.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토벌대》놈들도 모두 땅에 엎디어 풀숲에 몸을 숨기었다.

롱마는 왜놈들이 숨어있는 밀림으로 썰-하고 날아지나갔다.

(보지 못했구나.)

미야자끼는 롱마에 탄 **김일성** 장군이 자기들을 보지 못한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얼마후 《오호흥!-》하는 말울음소리와 함께 롱마가 다시 돌아서 날아왔다.

미야자끼는 풀숲에 더 깊숙이 몸을 숨기고 롱마를 올려다보았다.

《영?》

놈은 깜짝 놀라 텐검을 하였다.

글쎄 롱마에는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갑옷을 입은 나어린 한 장수가 타고있었던것이었다.

어린 장수는 손에 룡천검을 들고있었다.

미야자끼는 백두산에 또하나의 새별이 뜬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미야자끼는 **김일성** 장군이 아닌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토벌대》를 앞으로 좀더 깊이 진입시키려고 하였다.

놈들이 몇걸음 옮겨 살금살금 기여가는데 《오호흥!》하는 롱마울음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하였다.

올려다보니 그것은 어린 장수가 룡천검을 휘둘러 때 그 장검에서 내뿜는 빛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끝안에서 바람통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왜놈들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점점 밀려났다.

얼마쯤 물러서니 바람은 다시 잠풍하여졌다.

미야자끼는 아무래도 그냥 물러나기는 싫었다.

그는 또다시 졸병들을 돌려세워 앞으로 올라갔다.

다시 롱마울음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하면서 바람통이 터져나왔다. 왜놈들은 할수없이 그 바람에 밀려 다시금 뒤걸음쳐 쫓겨나왔다.

참으로 신기한 조화였다.

악에 반친 《토벌대장》은 그냥그냥 졸병들을 끌안으로 몰아댔다.

그러자 이번엔 《이놈들! 이 무엄한놈들아!》하는 노기에 찬 어린 장수의 호령소리가 들리더니 《짜르릉!》하고 천둥이 울고 번개불이 번쩍거렸다.

그제야 미야자끼는 어리석은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어린 장수가 룡천검을 한번 더 휘두르자 왜놈들이 숨어있던 밀림의 나무들이 모두 군사로 변해 《와!-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놈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미야자끼도 총에 맞아 쓰러지고말았다.

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어린 장수도 **김일성**장군이 가지고있는 모든 술법을 다 가지고있구나. 내가 미련한놈이지.》

미야자끼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고 《토벌대》놈들은 한놈도 남지 않고 모두 황천객이 되었다.

그후에도 소백수풀 가까이에는 한놈의 왜놈도 기여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린 장수-백두광명성이 탄생한 이 혁명의 성지는 백두산의 깊은 품속에 안겨 오래동안 알려지지 않고있었다고 한다.

산문시

로병의 고백

오영재

멀리도 세월이 흘러 기억에도 삭막한 일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비쳐주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걸던 시누대엇힌 락동강변의 오솔길과 가을비 뿌리는 태백산의 미츠러운 벼랑길을 따뜻이 비쳐주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이 엇바뀌는 그속의 내 작은 그림자, 내 발자욱까지 잊지 않고 찾아내어 비쳐주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신께서 나에게 비쳐주신 빛입니다.

40 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그 시절은 나의 청춘시절이었습니다.

인생의 춘추동에서 청춘시절은 꽃이 피어 열매를 꿈꾸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보낸 청춘은 곧 한생의 헛되임이며 그래서 꽃없는 어두운 봄은 가을로 던져지는 그늘이며 열매없는 가을은 봄에 대한 서글픈 후회이며 속죄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나의 청춘시절을 비쳐주어 후회없는 나의 가을엔 열매가 있습니다. 비록 남보다 뛰어나게 크고 달고 향기롭지는 못하지만 조국이라는 위대한 과원에 나의 열매가 보태졌습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내 한생의 보람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깨우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승자에 의하여 혁명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계승되지 못할 때 지난날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친 청춘들이 오늘의 좌절앞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비참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빛이 꺼져버리자 그들의 청춘의 빛도 꺼져버리고 그렇듯 자랑높이 가슴을 빛내이던 혼장들은 한갓 쇠조박이 되어 생계를 위한 로점의 초라한 매대우에서 울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그날에 참호속에서 내가 받은 혼장, 이제는 세월의 탓으로 빛이 바랜 그 혼장을 당신은 금빛으로 새로이 빛내주시고 그 빛으로 나의 한생을 감싸주셨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승리이며 정의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사랑이며 량심이며 진리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신념과 의지, 담대한 결심, 무비의 용단으로 지켜낸 우리의 사회주의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운명의 보호자, 생명의 은인 아니 이 모든 이름들을 합친것입니다.

그 빛을 안고살면 한생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 빛은 오늘날이 아닌 나의 오랜 과거도 먼 미래도 비쳐주고 어제도 오늘처럼 가까이 해주고 래일도 오늘처럼 뚜렷이 보게 해줍니다. 그 빛을 안고 살면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로쇠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 빛은 운명의 길잡이, 삶의 생명선, 그 빛은 력사와 세기에 무궁한것입니다.

그 빛앞에서, 그 빛속에서, 그 빛과 더불어 나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태양이여, 당신앞에서 나는 언제나 충성만을 다해갈 청춘로병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어디까진가

박철

이사가기 전날 밤에

밤은 깊었으나 잠들수 없구나
책상우엔 몇번이나 읽어본
새집 입사증
래일이면
이 정든 집을 떠나야 하기에

살아온 세월로
정들어서만 아니다
새살림을 꾸리고 오늘토록 살아온 집
가슴엔 걱정이 그들먹 차오르누나

여름날 단길줄 모르는 창문처럼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찾아드는 사랑으로
언제나 문이 열려져있던 이 집

아이들의 통통한 두볼에 실려
날마다 날아들던 웃음이여
나의 가슴에 안겨
안해의 가슴에 안겨
늘 집에 넘쳐나던 기쁨이여

베풀어주는 그 크나큰 은정속에

아이들이 크고 가장집물이 늘어
집이 좁아지자
오늘은 또 통일거리에
새집을 지어서 주니

부모의 한사랑도
자식에게 집만채 장만해주면
크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진가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집이여 은혜여
위대한 아버이 그이 품속에서
나날이 더 큰 행복으로
추녀를 얹으며 사는
인민의 복된 세상이여

아 부모의 슬하이면
만족할 집에서
꿈처럼 새집을 받아안고
아버이사랑의 크나큰에
감사의 마음 쌓고쌓으며
잠을 잊은 밤이여!

첫날밤에

큰방에서 작은 방
작은 방에서 부엌
나는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
이 크고 이 좋은 집이
정말 내가 살 집이란 말인가

밤은 깊고
이사집도 다 풀어놓고...
그러나 어떻게 잠재울수 있단말인가
너무도 크나큰 고마움에
후둑-후둑- 뛰는 이 심장을

나는 감히... 생각해본다
이 집을 내 돈주고 산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가

만원?...
아니면 십만원?...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것이여
돈으로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여
한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로지 사랑으로
수도의 한시민인 나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니

다시다시 쓸어보는
고운 벽지로 도배한 벽이여
다시다시 열어보고 닫아보는
크고작은 문들이여
다시다시 살뜰히 틀어보는 수도꼭지여

무엇인가 어버이사랑은
이렇게 막대한것을 인민에게 거저 주자고
그이 품엔 것처럼
낮도 밤도 따로 없고
세월의 한계점도 없는것이더냐

내 밤을 잊고 밤을 잊고
머리우에 집을 떠이고 살고싶구나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누리는
이 나라의 평범한 인간의 가치를
이 집이 온 세상에 보증하기에

둘째날밤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서니
광복거리에 사는 어머니가 오셨구나
락원거리에 출가한 누이가 왔구나
아들이 새 집을 받았다고
오빠가 새 집을 받았다고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며
어머니 가슴젖는 기쁨
동생이 터치는 감탄
-좋구나!
-좋아요!

이런 집에서 아들 살고
이런 집에서 어머니 살아
이런 집에서 오빠 살고
이런 집에서 동생 살아
얼굴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여

쏟는 이야기...
쏟는 이야기...
광복거리 락원거리서 목메이던 은정
밤이 깊도록 쏟아놓으니
아, 집이 좁구나 것처럼 넓은...

세번째날밤에

건설의 나날
몇번이나 걸은 거리건만
감격은 새롭구나
이 저녁 아이들을 거느리고
다시 통일거리를 걸으니

이 거리에 내가 산다
이 거리에 나의 아이들이 산다
터져오르는 기쁨-
갓 심은 가로수 파란 잎새들도
내 가슴의 노래로 춤을 추누나

환성을 터치며 아이들이 벗어선다
반겨주는 동물조각앞에
뜨거웁에 젖은 눈동자인듯 반공중에 황홀한
창가의 불빛들 바라보며
나도 걸음 멈춘다

사랑은
이 땅 이 하늘아래 무엇을 낳았는가
나의 삶은
그 어떤 크나큰 행복을 안고
환희로이 설레이는가

층층 아슬한 높이에서
마주오는 미래를 향해 웃는 눈부심이어
풍족한 생활이 마음껏 흐르라
넓으나넓은 폭으로 열어놓은
새 거리의 웅장함이어

내 오늘 여기서 살아
무엇이 부럼있으랴
내 여기서 아들딸을 시집장가 보내며
21 세기를 맞아 산대도
그 무엇이 부족하랴

나의 걸음 아이들 걸음 자육자육이
휘감기는 행복으로 무거운 거리여
이 시대에 로동당시대에
생을 받은 영광이
걸음걸음 벌게 부푸는 거리여

밤이 새도록 걷고싶구나
밤이 새도록 걸어도 다 안을수 없구나
나는 오늘에 살고
아아- 친애하는 어버이 은혜론 사랑은
세기를 넘어 펼쳐져있어

밤이여 영원하라

사랑은
아버이사랑은
이처럼 켤수도 없고
헤아릴수도 없는
무한대한것이던가

16 층 높은 창가에 서서 바라보니
멀리 가까이
밤하늘을 불태우며 쏟아지는
높고낮은 살림집건설장의
불빛불빛... 용접의 불꽃이여

새집들이 고마움에 젖은 가슴
다시 고마움으로 젖는다
새집들이 흥분으로 뜨겁던 밤
다시 흥분으로 뜨겁다
진정 어디서 어디까진가 아버지사랑은

오늘의 감격 래일로
끝없이 펼쳐가는 저 불빛
더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밤마다 지새시는
그 창가의 불빛은 아닌가

땅을 흔들고 하늘을 울리는
거창한 건설의 이 음향
이것은 그이의 품에서 태어나는

더 좋은 세월의
거센 숨결소리는 아닌가

준엄한 이 시대에
혁명을 지키자 한가슴 내대시고도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보람찬 삶의 노래를 주자고
그이께서 또 한 심장 내대신 건설의 밤이여

이제 저 눈부신 불빛아래
더 큰 인민의 기쁨을 떠실고
더 큰 인민의 긍지를 떠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래일은
더더욱 찬연히 밝아오려니

끓고 끓으라 건설의 밤이여
불타고 불타라 내 조국의 밤이여
지붕과 지붕
거리와 거리
인민의 행복으로 끝없이 잇고이으며

아 밤이여 밤이여
위대한 사랑의 태양이 불타는
내 나라의 창조의 밤이여
영원하라! 이 땅우에
빛나는 세월을 끝없이 낳고남으며

청춘의 성격

김재원

청춘, 청춘은 물과 불 가림없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웃는 시절
간석지파도에 젖으면서도 폭풍향해 웃더라
아슬한 철탑에 오르면서도 해와 마주 웃더라

청춘, 청춘은 총란도 두렵없이
가장 앞에 가장 먼저 나서는 시절
몇살때던가 한별만세를 웨친 열혈투사들
몇살적인가 적의 화구를 막은 전쟁영웅들

사랑을 안고는 가슴달아 못자는 나이
분노를 안고는 가슴터져 못참는 나이
아아, 당의 불씨를 안고 태어난 청춘은 불길
아아, 어머니당을 결사옹위할 청춘은 폭탄

그래서 청춘아, 어머니당은
너에게 맡겼다 조국의 운명!

명제해설

《창작가, 예술인들의 실력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입니다.》

김정일

오늘 우리 인민의 정치적식견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정치적인목이 지난날과는 비할바없이 넓어졌고 풍부하여졌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바로 자신이 이런 인민들을 교양할만한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갖추고있는가에 대하여 되새겨보면서 높은 정치적식견과 정치적인안목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으로 혁명사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남에게 없는 재능을 귀중히 여기면서 혁명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최정로역을 맡은 배우나 차흥기역을 맡은 배우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것은 남보다 얼굴이 잘 생겨서가 아니라 깊이 사색하고 예술사업을 하기때문이다.

깊이 사색하면서 머리를 쓰지 않으면 훌륭한 역형상을 창조해낼수 없다.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는 누구보다도 작가들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 일부 작가들은 공부를 잘하지 않기때문에 문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지 못하며 자매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지 못하다.

특히 생활철학에 대한 리해가 깊지 못한것이 제일 문제이다. 때문에 작가는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철학가가 되고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실력과 함께 깨끗한 창작적량심을 가져야 한다.

량심문제는 오늘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신을 수양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가사

삼천리 강산에 우리 태양 빛나네
인민의 마음속에 그 해빛 넘치네
우리 수령 김정일 김정일동지
영원한 영원한 인민의 태양

해빛이 없으면 이 땅의 꽃이 없고
우리 태양 없으면 인민이 없네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과 수령께 충실하려고 애쓰며 일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것이다.

현실주제의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모를 박고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창작가, 예술인들부터 청렴하고 결백한 당적량심을 가져야 한다.

당적량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서 나타나기때문에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에게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도리로, 의리로 여길줄 알아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인민대중의 량심의 대변자이므로 그들의 당적량심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항상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살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생각하고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여기서 경계할것은 작품을 쓸 때에 지금까지 들어오던 인민의 목소리와 늘 보아오던 인민의 생활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것을 고안해내는 창작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려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수양하면서 누구보다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훌륭한 인간학의 창조자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실력에 있어서나 창작적량심에 있어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수령

박미성

우리 수령 김정일 김정일동지
영원한 영원한 인민의 태양

만민이 우리르는 희망의 밝은 태양
동방의 조선에서 솟아올랐네
우리 수령 김정일 김정일동지
영원한 영원한 인류의 태양

다심한 사랑

강학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잘 안생긴 사람도 옷차림을 잘하고 나하면 돋보이고 잘나보인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따라 새옷을 갈아입으며 옷차림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이다.

로병대회가 끝난날 저녁이었다.

퇴근길에 올라서니 어디라없이 명절기분에 싸인 사람들의 활기에 찬 모습들이 눈에 띄우는데 씩씩한 《조국보위의 노래》가 왕왕 울려나오는 방송차를 선두로 하여 로병들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거리를 누빈다. 길가던 사람들은 오래오래 그들을 환영하여 손을 흔들었다. 나도 대회에 참가한 안해가 그속에 끼워있지 않을까 눈여겨 살피며 정겹게 환호를 보냈다.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모두 의젓하게 차려입고 빛나는 훈장들을 번쩍번쩍 달아놓으니 10년은 더 젊어들보였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안해는 먼저 와서 나를 반겨맞으며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물었다.

《로병대회에 참가하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소?》하고 묻자 안해는 옷장문을 열고 정히 포장한 함을 들어내리더니 그속에서 옷감을 꺼내보이는 것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예요. 지금 있는 옷을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입겠는데 이렇게 또 고급옷감을 보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안감까지 다 받쳐서 말이예요!》하며 눈물이 글썽해있더니 그것을 몸에 척 둘러보였다.

잇누런 금실로 꽃문양까지 곱게 수놓아 짜서 눈부신 광채를 뿌리는 옷감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온 안해가 말년에 와서 큰 복을 받아안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올랐다.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을 넘나들며 싸우고 평화의 날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왔을 녀성로병들을 위해 친히 고운 색깔을 골라 선물로 보내주셨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은 정말 친부모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안해는 나의 마음을 헤아린 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정말 다심하신 분이예요.》하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다심하신 분!》

나는 저도모르게 안해의 말을 되뇌이였다. 그 말을 되뇌이노라니 내가 금년 4월달 양덕군 은

하리협동농장 청년분조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선동차로 그곳에 갔다가 김옥련관리위원장의 집을 방문하고 받아안았던 뜨거운 감정이 또다시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김옥련동무로 말하면 1970년대말 양덕 은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명옥담임교원(그는 지금도 반장으로, 충성의 세포 세포비서로 사업하고 있다.)과 함께 은하협동농장에 진출한 27명의 남녀청년분조원중의 한사람이다.

나는 그가 살고있는 아담한 문화주택에 들어서니 순간 한쪽벽이 좁다하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 걸려있는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가운데서도 나의 눈길을 제일 끈것은 단독으로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농업대회주석단앞에 서서여 환히 웃으시며 옥련동무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환희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러보느라니 마치 내가 당자이거나 한것처럼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날 옥련동무는 뜻깊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옷장속에 정히 보관하고있던 양복 한벌을 꺼내 보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옷이 그때 제가 입었던 옷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은하리청년분조원들이 농장에 진출하여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첫 분배몫과 함께 충성의 편지를 올렸을 때 못내 대견해하시며 우리 몸에 꼭 맞게 옷을 한벌씩 해입혀 평양에 데려다 방송야회와 텔레비존좌담회에 참가시켜야겠다시면서 유능한 재단사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우리 청년분조원들은 재단사가 자를 들고 몸을 짊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다심하신 사랑에 목이 메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들으며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일도 있단말인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력사에 산골농장의 처녀총각들을 위해 몸에 꼭 맞게 옷을 해입히시려고 그 먼곳에서 유능한 재단사까지 보내준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고, 젊음이 꽃피는 한창나이인 청년들인 그들에게 옷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슬하의 자식보다 떨어져있는 자식들을 못잊어하며 더 잘 입혀 번듯이 내세우시려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이런 가슴 후더운 일화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고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이 속속들이 배여있는 옷은 색깔과 천의 질도 고급이었고 바느질솜씨까지도 그 누구도 따를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나의 놀라움은 그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 옷의 안설편에는 김옥련이라는 이름이 금실로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나의 심장은 금시 밖으로 뛰어나올것처럼 높뛰었다. 20 여명 분조원들의 옷이 헛갈릴세라 금실로 이름까지 또렷이 새겨넣게 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하신 사랑앞에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인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우리 인민을 친아버이사랑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이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는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여 실오리마다에 충충이 고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가늠해보며 그 옷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다. 실로 감격과 흥분없이 는 바라볼수도 만져볼수도 없는 옷이었다.

내가 그날의 흥분을 고스란히 안해에게 전해주자 안해역시 놀라움을 금치못하며

《그 먼 양덕에 재단사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같이 다심하신 분은 더는 없을거예요. 그런분이시기에 우리로병들의 남은 여생이 더욱 밝고 즐거움으로 가득차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런 고운천을 골라

선물로 보내주셨군요. 이런 믿음, 이런 사랑에 어떻게 해야 다 보답할수 있겠는지...》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과연 그렇다. 한일보다 몇배, 몇백배의 값진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니 그 믿음, 그 사랑을 무슨 수로 다 갚는단말인가! 나는 받고 갚지 못하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천만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그이의 사랑에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그이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서 변심을 모르는 충성심을 바쳐가고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뛰어다니며 애쓰고있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에서 빛나는 열매만을 거두게 되리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통일거리 살림집의 로대에 나서니 거리로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꽃물결되어 안겨온다. 근심과 걱정없이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신들을 위해 바쳐오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을 알거나 할가 하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뜨겁게 치는 것이었다.

나의 곁으로 다가온 안해도 생각에 잠겨 어디라할것 없이 생신한 활력이 넘치는 거리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풍경시

해만물상앞에서

전찬기

눈들어보면 바위집승들
날고 기고 뛰고 쉬고
눈길 내리면 거울같은 바다물밑에
해삼, 갈비, 섭조개들 진주밭이다

앞발쳐든 바위곰이 물가에 서있고
바위독수리 사납게 머리를 수그렸으니
너 조심스러워졌느냐
겉먹은듯 더듬는 꽃문어의 다리들

홀홀 옷을 벗는 끝끝한 총각들아
맑아서 알아보이는 물속에 들지 말아
그속에 아껴둔 묘석병풍을 보고
너희들도 바위돌로 굳어질라

저 먼바다 고래도 이 기슭에 반해서
바위로 굳어진곳이란다
해금강 경치야 천태만상이라지만
사랑의 전설 많아 빛나는 명승이라오

예대로만 있는 경치아니오
향도의 태양이 산천도 다듬어
사회주의 이 땅에 펼쳐준 아름다움
보고싶어 만물도 못떠나는 이 경치

아, 해만물상 물의 경치는 한눈에 보아도
물속의 신비경은 언제 다 보랴
저 바위수탉이 해를 치며 올 때까지
에서 내 천만년 널 노래하고싶어라

기다리는 어머니

로정법

두석달씩, 어떤 때는 반년씩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다가 고향 포구로 돌아올 때의 심정을 어로공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헤아리랴.

《부두가 보인다!》

아까부터 갑판에 나와 서있던 선원들이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서 어쩔줄 모른다.

꽃다발을 들고 하얗게 나와선 사람들속에서 그림판 얼굴들을 찾아보려고 남이 미처 불사이 없이 망원경을 빼앗아간다.

저속에 나의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한생을 기다려 살아오는 나의 어머니가...

1

그 시절에 나의 어린 가슴속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 비내리던 새벽보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한테 장가를 들던 화창한 봄날 아침의 일이 더 쓸쓸한 추억으로 새겨져있었다.

아버지가 벌써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어머니보다 더 젊고 예쁜 녀자한테 장가를 든다는 그 증오에 가까운 시새움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가슴속에다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났던 아름다운 아침의 일을 비내리는 마가울저녁의 절경처럼 어둡고 쓸쓸한것으로 새겨두게 한것이라.

어머니가 죽은 다음부터는 뭇수룩 먼바다로 나가 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던 아버지가 밤차를 타고 새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날밤에 나는 너렁청한 집에서 혼자 잤다.

한밤중에 옆자리가 허전하여 깨어나보니 아버지는 언제 떠났는지 넓은 방안은 푹푹거리는 시계소리로 꽉 찼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남빛의 창공에서는 초롱초롱한 애기별들을 수없이 거느린 엄마별이 평화로이 조울고있었다.

나는 가만가만 울기 시작하였다.

엄마별이 우는 나를 측은하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타이르는듯했다.

《야야, 이제는 울어야 소용이 없다. 아버지가 이제 예쁜 새 엄마를 데려오면 너는 늘 네 방에서 혼자 자야 한단다.

네가 아직도 손을 올려놓고서야 잠들곤하던 엄마의 부드러운 젖가슴은 이제 없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젖떨어진 강아지처럼 네절로 찾아먹고

네혼자 말하며 네절로 놀다가 싫으면 혼자서 꼬부리고 자야만 한다》고.

《이녀석, 너 우느냐?》

사이문이 드룩 열리며 아버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떠난줄만 알았더니 아버지는 지금 옷방에서 낮에 빨아넣었던 와이샤쓰를 다리고있었다.

나는 얼른 모포를 폭 뒤집어썼다. 하지만 모포를 꿇고 나를 침울한 눈으로 내려다보는 아버지가 보였다. 나는 인차 잠든척하였다.

그러자 사이문은 도로 닫기였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떠나려는것 같질 않아 살금살금 일어나서 문밖으로 올려다보니 아버지는 다리에 담아놓은 숯불에다 담배불을 붙이고는 벽에 길게 기대앉으며 눈을 감았다.

샤쓰는 대강 다려서 아무렇게나 버려둔채이고 다림질감을 추기느라 떠다놓은 물사발옆에는 반쯤 마시다만 술고뿌가 보였다.

이따금 꼭 내려덮었던 아버지의 눈두덩이 무겁게 들리우며 쓸쓸한 눈길에 맞은쪽 벽우를 쓸어갔다.

아버지의 눈길이 자주 가는 그 벽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받은 표창장과 함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방금 해수욕을 하고 나와서는 남의 눈길을 피하듯 꽃송이가 탐스럽게 어우러진 해당화덩굴속에 들어가 찍은것인데 사진사의 사진기술이 좋았는지 아니면 해방과 청춘, 그자체가 그토록 아름다운것인지 황홀한 기쁨이 엄마의 수집은 옷음속에 비껴있는 그 사진은 그대로 한쪽의 예술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적에 자기가 앞으로 서든살도 못살고 죽으리란데 대해상상이나 했을것인가.

사진속의 어머니는 오늘도 웃고있다.

자기가 지금 저세상에 가있는줄도 모르고, 또 남편이 살결고운 자기의 어깨우에다 손을 올려놓고 찍은, 찢어버리지 않고서는 갈라놓을수 없는 사이를 비집고 래일이면 새 녀자가 들어서게 된다는것도 모르고 웃기만한다.

그냥 놓아두면 앞으로도 저렇게 그냥 웃고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 액틀을 내리우더니 사진만 빼놓고 나머지는 마사서 창밖으로 훌 내던졌다. 다시 사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두리번거릴 때 내가 뛰어들었다.

나는 뒤집을 지고 서서 말없이 아버지를 쏘아 보았다.

내가 너무 갑자기 뛰어드는바람에 깜짝 놀라고 자기를 보는 눈총에 당황해진 아버지가 사진을 든 손을 어디다 건사할지 몰라하며 《아니, 너 아직 자지 않겠느냐?》 하였다.

《왜 그렇게 보느냐? 오, 이 사진때문에 그러느냐?》

아버지는 낯색을 흐리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럼 내가 간수하려무나.》 하며 사진을 내주었다.

《간수하되 보이지 않게 깊이 하거라.》

아버지는 언짢은지 고뿌에 남았던 술을 천천히 들이켰다.

나는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액틀을 마사버린 아버지께 대한 분한 생각뿐이었다.

방안을 밝히던 초불처럼 언제나 엄마의 웃는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있어 이 방이 좋았고 아버지가 없는 쓸쓸한 날이면 더더구나 이 방에 올라와 뭐라뭐라 혼자 말하며 놀다가는 그대로 꼬부리고 잠들곤하던 이 방은 엄마냄새가 그대로 배여있는 나의 꿈나라...

그러나 이 방을 밝히던 초불은 꺼지고 꿈속에서나마 안겨보던 엄마의 품은 영영 사라져버렸다.

《웬 눈물이나?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낮으나 엄한 추궁에 이어 아버지의 억세고도 부드러운 손이 나를 곁으로 끌어갔다.

《잊어버려라. 죽은 엄마가 너에게 가져다줄것이란 슬픔밖에 없다. 네 엄마는 왜놈들이 죽였다.

담배공장에 팔려가서 얻은 폐병이 결국 서른살도 못살고 죽게 만든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새 엄마한테 정을 옮겨다오. 그래야 아버지도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험해질거다.》

아버지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갈린 음성으로 말하였다,

《나는 늘 바다에 나가 살아야 하는 어부이다.

영명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몰아내구 나라를 찾아주셨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 새 조국 건설에 보탬을 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렇다고 너를 밤낮 이웃에다 맡겨둘수가 없구나. 나는 이웃이 아니라 너를 제어머니한테 맡겨놓고싶다. 두고보아라. 내가 잘못보지 않았다면 그 너자는 너의 좋은 어머니로 되어주리라 생각한다. 그 너자의 남편은 왜놈들의 징용에 끌려나가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왜놈들때문에 네 엄마를 잃은것처럼 그 너자도 왜놈들한테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살기로 한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늘 이모양 이꼴로 살아야 한다.

넌 양말 한짝 제때에 빨아신지 못하는 비위생적인 아이로 남아있게 될것이고 난 고기비린내나는 의복을 벗어두고 내가에 나가 아낙네들옆에 앉아야 하는 궁상스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말이다. 그뿐이나? 나는 또다시 네가 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밥을 지어야만 하구 네밥 한그릇만 떠놓으면 이 아버진 부뚜막에 걸터앉아 아무렇게나 대강 한술 떠먹고 선창으로 뛰어야 한다.

너 역시 혼자 자다 깨어나서는 아버지도 없는 너런청한 빈방에 쓸쓸히 앉아서 아버지가 신문지로 덮어놓고 간 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고 학교로 가게 될것이다.

그러지 말자. 무엇때문에 그러겠느냐? 새 조선의 하늘은 저렇게 맑고 마당에는 꽃들이 웃고있지 않느냐.

어서 슬픔과 애수는 저 먼먼 하늘나라로 날려 보내고 너와 나를 찾아 문턱을 넘어서는 새 봄을 마중하자꾸나.

춘길아, 역으로 나와다오. 네가 새 엄마를 마중해다오.》

나는 나가지 않았다.

이웃녀인들이 모여들어 잔치상을 차리면서 나에게 어서 어머니 마중을 나가보라고 했을 때 나는 슬그머니 남대천방축으로 나와버렸다.

방축의 남쪽 경사면은 벌써 무르녹는 봄이었다.

이른봄, 아이들이 불싸움을 벌렸던 묵은 잔디판에는 대가 실한 금잔디가 총총하게 돌아나고 질긴 잔디뿌리가 콧 엉켜돈 땅겉질을 용케도 뚫고 할미꽃이 몽글몽글 솟아올랐는데 오랑캐꽃과 더불어 이 봄에 처음보는 할미꽃은 그 망울이 버들개지처럼 보르르한 털에 덮여 만져보면 보드랍고 매끌매끌한 맛에 눈이 소르르 감길 정도였다.

이 세상에 나온지 며칠밖에 안되는 송아지 한마리가 아직 일어설 기운이 없는지 한가로이 새김질을 하고 선 어미의 발치에 누워서 이따금 귀를 쫑긋거리며 봄빛에 취하여 졸고있었다.

그결에서 땀뭍더 봉봉거리던 벌 한마리가 어찌자고 송아지의 귀벽에 내려앉더니 귀구멍안으로 벌벌 기여들어갔다.

아마 벌한테는 이 봄의 날씨가 아직 찬모양이었다.

화닥닥 놀란 송아지가 귀쪽을 털며 꺽충 뛰쳐 일어나더니 어미의 배허벅에 귀를 사납게 비벼댔다.

벌은 봉- 하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까만점으로 되어 사라져버리고 무슨 일인가하듯 새김질을 그

치고 날아가는 벌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미소가 새끼를 쿵쿵 땀새맡아보더니 다시 입놀림을 시작하였다.

송아지는 가려운지 다시 귀쪽을 털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모두발톱질을 하면서 저쪽으로 달려갔다. 다시 맹렬한 기세로 뛰여온 송아지가 어미소의 뒤통사이에 대가리를 틀어 박았다.

송아지는 점점 더 뒤통리를 힘있게 내뺌치고 몽툭한 주둥이로 어미소의 젖통을 사정없이 올리 받으면서 쭉쭉 소리를 내며 젖을 빨기 시작하였다.

기차소리가 들려왔다.

방축 저 웃켄, 남대천을 건너지른 긴 철다리로 평양쪽으로 나가는 기차가 그릉그릉 철골을 울리며 지나가고있었다.

필경 저 차에 새 엄마가 왔을것이다.

내게 있어서 저 기차는 참으로 쓸쓸한 차였다.

매일아침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철다리를 건너가는 바로 저 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던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더니...

나는 봄벌이 정글거리리는 목은 잔디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그리고는 인차 잠들었다. 찻잔한 맛을 본 개미들이 눈물자욱을 따라 얼굴로 기여 오른다는것도 모르고 그리고 위로하듯 눈우에서 나풀거리던 노랑나비가 어깨우에 내려앉았다는 것도 모르고...

《춘길아!》

측은하게 들리는 조용한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엄마가 왔다. 어서 일어나거라.》

새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나를 찾아 방축으로 나온것이였다.

감장치마에 백설같이 깨끗한 옥당목저고리를 입고 역시 옥당목저선에 흰코고무신을 신은 녀성이 주의깊은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어서 일어나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쥐는 그 녀자의 몸에서는 정향꽃향기와도 같은 향수내와 분내가 연하게 풍겼는데 어느 모로 보아도 새 엄마는 활짝 핀 목화송이처럼 깨끗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외할머니한테서 들은 그 《장화홍련전》의 계모처럼 생겨먹은데란 하나도 없었다.

저 선량해보이는 눈과 점이 그대로 내뻗듯한 상냥한 웃음속에, 나의 주먹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파스한 손길안에 어떻게 잔악한 마음이 숨어있으랴.

그 녀자는 시집온 첫날에 벌써 옷방구석에 꿇져두었던 목은 빨래와 천이라고 생긴것은 몽땅 내다 어떤것은 삶고 어떤것은 두드려서 눈같이 희게 빨아 널었다.

가시장안의 작은 낫술잔으로부터 낫바리, 낫양푼에 이르기까지 그 녀자의 손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기름기가 찰찰 돌았다.

풀을 먹여서 다듬이질을 한 새 이불안을 가져다 끼던 날 그 녀자는 나를 흘랑 벗겨 합치안에다 얹혀놓고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뺨뜨를 안벗으려고 몸을 꼬는 나를 보는 그 녀자의 얼굴에는 즐겁고도 상냥한 그리고 무척 재미나하는 웃음이 비껴있었다.

《물이 너무 따갑지 않아요? 그럼 찬물을 조금 섞을까?》하며 물젖은 손으로 나의 몸을 씻어줄 때 그 녀인의 손맛은 살뜰하고 정에 겨웠다.

목욕이 끝나자 새 엄마는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나를 갇안아기처럼 타올에 싸서 냉큼 안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새 이불속에 꼭 넣어주며 입을 꼭 맞추어주었다.

그리고는 검은색 바탕에 흰줄을 친 새 뺨뜨를 이불안으로 살짝 밀어넣으며 《누가 보지 않게 이불안에서 얼른 입어요.》하고 상글상글 웃었다. 이것이 내 기억속에 새겨진 새 엄마의 첫인상이었다.

드디어 옷방 창문턱에는 어머니가 가져왔던 검은색자기꽃병이 놓이고 거기서 정향꽃향기가 진하게 풍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향기는 분명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향기, 새 엄마가 나와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온 향기였다.

1년이 지나 우리 집에는 춘심이가 태어났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엄마가 귀여운 계집애를 낳아준것이였다.

두 가정이 모여 살면서도 아물지 못했던 이음 자리는 춘심이가 태여남으로 해서 상처에 새 살이 나온것처럼 되였다.

그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하였다.

계모한테 제자식이 생기면 본처자식을 구박한다고들 하였지만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춘심이가 없을 때보다도 더 각별하였다.

아버지가 바다로 나갈 때면 춘심이와 나, 엄마가 같이 부두까지 따라나가 배래주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그해 아버지는 수산협동조합적으로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아 상으로 5구짜리 라지오를 타왔다.

춘심이가 돌이 되던 해의 봄날에 우리 네 식구는 어느 휴일을 타서 남대천의 푸른 방축으로 봄맛이를 나갔다.

아버지는 낚시대를 준비하였고 나는 반두를 들었다. 어머니는 끈달린 바구니와 문드러진 식칼을 가지고 나갔다.

춘심이는 엄마가 업고 나는 업힌 춘심이의 손을 잡고 네 식구는 눈부리가 모자라게 곧추 뻗어간 방축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푸른 잔디가 웅단처럼 부드럽게 깔리고 이 봄에 갓 태어난 염소새끼들이 풀밭에 피여난 흰꽃

처럼 방축 경사지 여기저기에 점점이 널려져 뒹굴고있는 봄날아침의 푸른 방축길은 청신하고 아름답고 생에 대한 희망으로 약동하고있었다.

좌로, 우로 흰 모래불을 남기면서 구불구불 흘러오는 맑은 강물, 방축너머 바다쪽으로 아득히 펼쳐진 논벌, 논벌 여기저기에 무쳐놓은 거무스럼한 거름무지들, 어디선가 논에다 거름을 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바다를 건너건너
언덕을 넘어넘어
해방 조국에 봄빛이 빛나네
실실이 드리운 시내가 버들
풀피리 불어불어
새 나라 노래하세

우리가 두고온 마을은 벌써 저 멀리로 보이는 데 여기서 바라보이는 마을은 온통 살구꽃속에 묻히고 그 꽃속에 묻힌 동네를 다시 물김같은 아침안개가 포근히 감싸안고있었다.

아버지는 이날 새 엄마가 시집을 때 해온 흰 세루양복을 입었다. 둥글모자도 흰색, 가죽구두도 흰 것이었다.

어머니 역시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받쳐입고 흰버선에 흰고무신 그리고 머리에는 장미꽃송이가 소담하게 수놓아진 타올수건을 썼다.

씨앗바구니처럼 어머니가 어깨에 멘 바구니에는 낚시질을 믿었다가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꼬박 굶길것 같아 자기대로 준비한 기름진 요리감들이 담뱃 담겨져있었다.

약속한 장소에 와서 우리 네 식구는 서로 갈라졌다.

아버지는 묵은 버들이 음침하게 그늘을 드리워 물색이 퍼렇고 뿌해보이는 소앞에다 자리를 잡고 낚시도구를 펼쳐놓았다.

나는 물이 얇은 가늌을 따라 그물질을 하며 올라갔다.

춘심을 엮은 엄마는 바구니를 들고 방축을 넘어 보도랑을 따라 까마득히 멀어졌다가는 다시 오며 미나리와 냉이, 달래를 껴다.

이날의 승리자는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담배 한갑을 다 태우며 겨우 붕어 세마리를 낚아내고 내가 반사발도 안되게 미꾸라지를 잡아내는동안에 어머니는 봄냄새가 나는 나물을 한바구니 꼴뚝 캐가지고 온 것이었다.

붕어회는 실패하였으나 음식상에 봄을 불려다 놓은듯 어머니가 특색있게 차려놓은 점심을 모두 배가 불쑥하게 먹었다.

그리고는 푸른 잔디판에 나앉아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독창도 하고 2 중창도 하고 합창도 하였다.

아버지는 이날 《노들강변》을 불렀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지간히 취한 기분이였다. 그런 아버지를 나와 엄마가 랑옆에서 부축하고 걸었다. 그러자 흠죽해진 아버지가 나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주며 《춘길아, 엄마가 좋지?》하고는 다시 엄마를 향해 거나한 목소리로 《여보, 중구만. 들에 나오면 장군님 은덕에 땅을 받은 농민들이 봄노래를 부르고 학교로 가면 우리애들의 글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들리는구려.

여보, 우리 일을 많이 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합시다. 그리구 오래 삽시다. 이름자리가 없이, 남들이 부러워서 시샘이 날 정도로 재미나게, 께가 쏘아지게 살아보잔 말이요. 여보, 하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지? 차, 이런... 춘길아, 네 엄마가 우는구나.》

나는 커서도 이날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못해 하였다. 말하자면 그날 하루의 일은 비단천에 수놓아진 선명하고 아름다운 한폭의 수예품처럼 나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었다.

그날의 하늘, 그날의 들, 철다리를 건드던 기차바퀴소리며 아버지가 부르던 노래소리, 눈물짓던 어머니, 지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마트면 아버지를 넘어뜨릴뻔했던 돌부리까지도 그 아름다운 수예품에 싹여진 한오리의 고운 색실로 되어준 것이었다.

2

노을피는 저녁이면 어머니와 같이 배마중을 나오던 그 부두가에서 나는 전선으로 떠나가는 아버지를 배태였다.

어디 멀지 않은곳에서 함포소리가 쿵쿵 울리던 저녁녘이였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과 바다는 회색으로 흐려있는데 부두가는 떠나는 사람들과 배태주러 나온 사람들로 복잡복잡 뚫었다.

엿그제까지만 하여도 바다멀리에 나가 고등어를 잡아오던 백마력 기관선이 지금은 군용수송선으로 동원되어 군대가는 사람들을 태우고있었다.

대렬명부를 든 인솔군관이 배다리열에 서서 이름을 부르면 이쪽에 서있던 젊은이들이 예, 하고 건너가 배에 올랐다.

배에 올라서도 그 젊은이는 될수록 가족들과 가까이 마주서려고 배의 현측에 나와섰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앞줄에 서기가 험치 않았다. 그리하여 배에 탄 사람도 부두에 서서 배태주는 사람도 저저마다 앞으로만 비집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다가는 물에 떨어지겠다는 아츠러운 비명이 들리고 그에 이어 하하 호호, 하는 웃음이 터졌다.

날새게 조타실지붕에 올라앉은 젊은이는 장한듯 사람들을 둘러보며 버럭버럭 웃고있었다.

그렇게 세심하고 조용하던 어머니가 그날은 어떻게나 정신이 없이 덤벼치는지 붉은 비로도천에

다 오각별과 《승리》라는 글까지 수놓아 만든 담배쌈지를 재봉기우에 그냥 놓고 나와 아이를 나한테 풀어 맡기고 집으로 허둥지둥 뛰어갔다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뒤에 서있었지만 키가 커서 잘 보였다.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어머니에게 고등어염장목통을 하나 굴러다 얹어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고기를 푸는 나무기중기우에 올라가 앉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리는 좀 멀었지만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다 목통을 고여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어보이더니 뭐라뭐라 우스운 말과 웃기는 몸짓을 해서 어머니와 나를 자꾸 웃기려 하였다.

아버지가 잘 보라고 어머니가 앞으로 돌려안고 있는 춘심한테도 아버지는 쫓웃하며 별의별 손짓을 다해서 얘기를 끝내 깨득깨득 웃겨놓고야말았다.

《여보, 아무 걱정마오. 오는 주먹, 가는 흥두께 라구 미국놈들이 우릴 잘못 건드렸소. 새 생활의 맛을 본 사람들이란걸 타산 못했거든. 우리가 왜 맛이나 보고 그만두겠소? 실컷 먹어야지. 만만치 않은데 걸려들었지. 두고보오. 이제 미국놈들이 그물에 걸린 곱등어처럼 빠져나가자고 빼드려거리질 않나.

답새겨야 하오. 노대건 삿대건 손에 잡히는대로 들고 대갈통을 두들겨팼판이지...》

그런 말을 해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도 웃겨놓았다.

배다리가 치워지고 기관이 툽툽툽 잦은소리를 내지르며 배가 기슭을 서서히 뜨기 시작하자 부두가는 《몸성히 잘 싸우라요.》 《여보, 후방을 부탁하오.》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계셔야 합니다.》 《오나, 미국놈들이 망하는걸 내 눈으로 보기전엔 죽지 않는다.》 《금녀, 가서 편지하겠소. 편지에 다 쓸테요.》 《알아요. 알아요. 쓰지 않아도 알아요.》, 《아버지!》, 《오,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라.》 하는 웨침소리와 떠나가는 청년들의 힘찬 노래소리, 흐느낌소리에 휘말려들었다.

배머리를 돌렸을 때 아버지는 벌써 우리한테서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두손 높이 들고 박수를 쳐보였다. 나는 그 순간에 킁킁하게 질려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한테 흔들던 손을 똑 멈추었다.

목통우에 올라설 때는 그렇게 쉽사리 올라서던 어머니가 내려올 때는 너무 다리를 떨어 수산협 동창고장령감이 어머니를 불안아 내렸다.

이튿날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대신 협동조합으로 나가 배를 탔다.

그해 여름엔 고등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비행기와 함포사격을 피해 짹짹이 나가 잡아도 소금이 모자라 미처 절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종종 자루에 멜빵을 해가지고 다른 녀인들과 같이 퍼그나 먼곳으로 소금을 지러 떠나곤하였다.

그런 날이면 나는 밤새껏 보채는 춘심을 업고 서성거려야 하였다.

당분간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젊은 교원들은 모두 군대로 나가고 미구하여 학교마저 놈들의 함포에 맞아 무참히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하루종일 집에서 춘심을 보았다.

춘심은 매번 엄마를 안떨어지려고 앙탈을 썼다. 낮잠을 자다가 깨어난 춘심이 엄마를 찾으려 서럽게 울 때, 아무리 얼려도 그치지 않고 훌쩍 느끼며 울 때에는 결집에 그애를 찰싹 때려놓고 나도 따라 울었다.

그런 생활속에서도 숨막히게 기쁜 일도 있었으니 그것은 바다우를 땀뿔며 비행기가 날치고 파도까지 사나와 하루종일 조마조마해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춘길아!》, 《춘심아!》하며 들어서는 때였다.

《우리 춘길이가 용쿠나. 춘심아, 너 오늘 또 오빠를 울리지 않았니?》

어머니는 저녁찬거리로 가지고 들어온 생선을 나한테 들려주고 춘심을 받아 안았다.

그러면 춘심은 깨득깨득 웃으며 고사리같은 두손으로 어머니의 젖가슴을 성급히 잡아해쳤다.

《어머니, 다 큰애가 아직 젖을 먹는다구 동네엄마들이 흉봐요.》

《그래. 흥 좀 보래자꾸나.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우리 춘심인데 젖이라도 좀 오래 먹어야지. 그렇지 춘심아, 아버지만 돌아오면 그땐 똑하자. 오빠가 널 이렇게 잘 보아주니 엄만 오늘도 고등어를 삼백키로나 잡았구나. 그걸 몽땅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실어보냈다. 그러니 우리 춘길인 전선에서 싸우는 아버지를 돕고있는셈이지.》

그런 날에 아버지한테서 편지라도 한장 오면 그땐 정말 명절이었다.

《춘길아, 저녁에 뭘 해먹을가? 네 먹고싶은것을 해먹자꾸나. 밀지짐을 지질가?》

《엄마, 전기 왔어요. 라지오를 틀랴요?》

하루는 큰엄마로 따르는 수산협동세포위원장 이 창고장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큰엄마는 내 손에 마른남지 한뭉음을 들려주며 오늘날엔 자기네 집에 가서 창일리와 함께 자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조반을 먹자고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밤사이에 서리맞은 나팔꽃처럼 풀썩 늙어버린 어머니를 보고 눈이 쾅해졌다.

더구나 놀라운것은 어머니의 머리에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흰오리가 섞인것이였다.

《울지 말고 밥을 먹어라. 아버지는 기회를 부설하러 나갔다가 희생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튿날에 일어나보니 흰머리카락이 더 많아진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아직 젊디젊은 어머니한테서 놀란 청춘이 떠나간다는것을 알리는것이였다. 이제 머지 않아 인생의 굵인돌이를 돌아가며 울리는 쓸쓸한 기적 소리가 들릴것이다.

남편과 자식들과 이 생활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언제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사물사물 정기가 서려돌던 어머니의 고운 눈은 빛을 잃고 서늘해졌다.

너무도 빨리 들이닥친 남편의 죽음과 웬일인지 순하던 아이까지 갑자기 양양 보채면서 밤새젖젖을 파는통에 처녀처럼 보동보동하던 불은 살이 쪽 빠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량한 감을 자아냈다.

이제 그 불에 장미빛의 살이 다시 오르고 아이의 턱을 깨물어주는 그 입술에 물기있는 웃음이 비끼리라고는 바랄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흰머리는 다시 거매지지 않을것이다. 청춘은 이렇게 자기의 그림자로 서든셋이라는 젊은 나이만을 어머니한테 남겨놓고 다른것은 다 걷어가지고 영영 가버렸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씨까지도...

어머니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들어왔다.

어떤날은 너희들끼리 밥을 해먹으라고 나가서는 이삼일씩 들어오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전선형편이 어려워진다고들 하였다. 라디오에서는 락동강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왔다.

이무렵에 와서 춘심은 종종 얻어맞았다.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나는 맞지 않았지만 이따금 서늘한 눈길로 쏘아볼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일갔다 들어오면 나를 어유등앞에 불러앉히고 공부를 시켰다. 이것 역시 아버지가 전사한후에 새롭게 시작된 일과였다.

학교를 복구할 복구할 때까지 그저 놀아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바로 그 공부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성을 내곤하였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줄을 몰랐었다.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머니의 마음속 의지의 기둥이 나한테로 옮겨졌다는것은 더구나 알지 못하였다.

그저 아버지가 없으니 이젠 이 집에서 내가 남이로구나 하는 서러운 생각뿐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평양 어디엔가 있다는 외할머니한테로 가자고 나서곤하였다.

하지만 놀란 잠자리처럼 홀 날아가버리지 못하도록 나를 사랑의 거미줄로 총총 동여맨것은 커

가면서 점점 더 기막히게 예뻐지고 나를 끝없이 따르는 춘심이였다.

그 애는 계모가 난 아이였다.

어쩌면 죽어라고 미워할수도 있는 그런 계모가 난 애가 이렇게 깨물어주고싶도록 귀여울까. 그것 참 이상하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릴 때도 있었다.

그래 집을 나갔다가도 그 애가 끊임없이 늘어놓는 그 거미줄에 걸려 뽕뽕거리다가는 할수 없이 끌려왔고 들어오면서는 하다 못해 얼음과자 하나라도 사들고 그것이 녹을가봐 집으로 뺄다 달리곤하였다.

그날도 나는 신새벽에 덩장을 추러 나간 어머니한테 조반을 해가지고 부두에 나가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하늘이 새까매지면서 무엇인가 썩-하고 이쪽으로 날아왔다. 미군함재기들이였다.

마을 여기저기서 항공을 알리는 종소리가 쟁쟁쟁쟁 들렸다. 나는 주먹을 부르치고 집으로 내뛰었다. 놀라 깨어난 춘심이 나를 찾으며 울고있는 모양이 눈에 밟혀왔다.

내가 수산협동정문을 벗어나기도전에 첫 폭음이 일었다. 땅이 꺼져내리는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애야.》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나를 덮치듯 하며 방공호속으로 끌고들어갔다.

나는 춘심이 집에 혼자 있다고 몸부림쳤다.

그러자 방공호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젠 왜 이러는가 하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갔을 때 나와보니 읍거리의 전경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앞이 별로 행해서 보려니까 한때는 학교로 쓰다가 후에는 영화도 하고 곡마단이 와서 자리를 펼치던 이전 《레배당》 건물이 벽체만 몇개 남기고 폴싹해버렸다. 신작로 가늉으로 오종종하게 앉아있던 약국이며 자전거방, 시계수리, 육고집 같은것들도 간곳이 없었다.

철길너머 저쪽에서 시꺼먼 연기가 룡트림쳐오르는데 그 근방에는 가마니며 솜, 물고기목통같은것을 받아들이는 수매소가 있었다.

방공호에서 나온 사람들이 좀 높은곳에 모여서서 불이 불고있는곳들을 가리키며 저긴 어디고 저긴 남대천철교쪽이고 하는 말들을 하고있었다.

어른들의 그런 말은 들으려 하면서도 나는 춘심이 혼자 자고있던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폭탄구덩이밖에 남지 않은 집앞에서 몸을 비틀며 오장이 찢기는듯한 소리를 내질렀다.

이웃사람들이 달라붙어 그런 어머니를 억지로 불안아다 자리에 눕혔다.

미처버릴듯한 한순간이 지나가자 어머니의 이마에 진땀이 함뿍 내배더니 그다음엔 소리없이 울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오래 울었다. 나는 사람이 그렇게 슬피 우는것을 처음 보았다.

나는 흰오리가 드문드문 섞인 어머니의 머리를 겁을 먹고 바라보며 래일 아침이면 할머니처럼 몽땅 셋하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사흘을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닷새후부터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나는 온종일 림시로 거처를 꾸린 창고장령감네 옷방에서 일하갔던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점심밥까지 지어놓고 나가면서 비행기가 오면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라는것, 빈둥거리며 놀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공부를 집어치웠다. 공부도 촌심이가 옆에서 방해할 놀적에 할 재미가 있었고 더 잘되었다.

방안에 있으면 자꾸 그 애가 생각나서 나는 밖으로 뛰쳐나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야 들어오곤하였다.

어머니는 이전처럼 내가 숙제를 안했다고 성내지 않았다. 지치고 서글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는 이불을 머리까지 폭 뒤집어쓰고 벽쪽으로 돌아누웠다.

나는 모자간에 오가던 사랑의 불은 이미 꺼진지 오래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실 아버지가 지켰던 불이고 그 불이 어머니를 태운데 불과하였다고...

아버지가 전사하자 그 불은 꺼졌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촌심이가 그 불 한고치를 쥐고 놓지 않고있었다.

어머니는 행여나 아직 불티라도 하나 남아있지 않을가 하여 《공부를 해라》, 《밥을 제때에 들어와 먹어라》하고 입으로 불어보는것이지만 날리는것은 재티뿐이었다.

촌심이가 폭사하자 이제 나와 어머니를 혈육으로 이어주던 실줄은 끊어졌다.

남대천철교는 다시 이어져도 이 실줄은 영영 이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때문에 촌심이가 죽었다는 죄의식, 나는 어서 어머니결을 떠나려고 하였다. 아니, 마음은 벌써 이 집을 떠나 재빛으로 흐린 무연한 광야에서 헤엄치고있었다.

소금을 지러 간 어머니가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피가 나게 사흘을 기다려도 종내 오지 않던 날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다.

그런 철없는 행동이 가뜩이나 가슴이 구새먹은 나무처럼 되어버린 어머니한테 어떤 타격이 되리란것을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나의 어머

니가 어떤분이란걸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영영 쓰러뜨릴수도 있는 그런 가혹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한시간을 더 참지 못해서 넘어선 문턱이 나와 어머니사이를 40년이라는 세월의 심연으로 갈라놓을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3

자동차가 왔다고 재밤중에 우리를 깨웠다.

초저녁부터 떠날준비를 해놓고 차를 기다리다가 솜옷들을 그냥 입은채로 그자리에 꼬꾸라졌던 우리였다.

애육원마당에 풀로 위장을 한 군용집차 석대가 빨리 떠나자고 독촉하듯 불안스레 부르렁거리고 있었다.

새까맣게 흐린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분간 못할 차갑고 축축한것이 흘날리며 내려왔다.

전조등에 뿌옇게 드러난 질척한 마당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던 인민군대아저씨가 눈을 비비며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닝큼닝큼 불안아 품을 친 차우에 올려놓아주었다.

《앞에서부터 착착 조여앉아라. 모자들은 내리우구... 먼길을 가자면 추울게다.》

차를 타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 탔소?》

《예, 다 탔어요.》

담당보모가 인민군대아저씨의 부촉을 받아 맨 나중에 차에 올랐다.

《그럼 출발합시다. 출발!》

차가 애육원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를 바래주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알아보았다.

위생복차림그대로 나와선 첫머리칸의 보육원들, 식모들, 세탁부, 마차부, 목수, 화구간령감.

그들은 진논가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마당의 구석구석에 모여서서 조용히 우리를 바래였다. 주변마을사람들도 차소리를 듣고 대문가나 처마밑에 나와 서있었다,

나는 그 녀인들과 늙은이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쫓아오다 돌아서서 흐느끼는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에 대한 생각은 깊이 하지 않았다. 산산조각이 되어 어디로 날려갔는지 시체조차 찾을수 없었던 내 동생을 부르며 그렇게 슬피울던 어머니를 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 나한테는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것이였다.

나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간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헤어지기 그렇게 서운해한다는것도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나한테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름다운 장미밭이 지평선너머로 아득히 펼쳐지고 꽃을 따는 아가씨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는 그 나라에 가는것이 기쁜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고있었다.

가야 한단니까 가는것이고 떨어져야 갈데가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에 보건성에서 내려왔다는 어머니가 큰 아이들은 외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슬그머니 뺑소니칠 궁리도 해보았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 그만두고말았다.

그렇게 되면 나는 또다시 이전처럼 추워서 덜덜 떨며 장마당을 오가다가 지짐장사할머니의 어깨너머로 손을 붙씩 들이밀게 될것이고 내무서의 방공호에서 하루밤을 자고나면 애육원에서 왔다는 상냥한 녀선생이 나타나

《아유! 요 눈알만 초롱초롱한 감둥이들을 좀보지. 다시 도망칠 생각은 아예 말라요. 어데 가서든 찾아내고야말테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줄것을 나한테 부탁하고 갔거든요.》하며 우리를 목욕탕으로 몰고 갈것이다.

눈이 오는 날이라 차는 전조등을 켜놓고서 뱃바 달렸다.

이따금 차가 지나온 산너머 저 어딘가에서 신호탄이 날아올랐다가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곤하였다. 항공을 감시하던 인민군대아저씨는 아까부터 우리와 마주앉아 시무룩해있는 아이들을 웃겨놓으려고 애쓰고있었다.

《거기 가면 그 나라 빵은 절대로 많이 먹지 말아, 그 사람들처럼 코가 커지면 야단이거던. 전쟁이 끝나면 조국으로 나와야했는데 코 큰 아이는 들여놓을수 없단 말이야. 그 어디에 가있다오든 너희들의 몸에서는 신선하고 향긋한 조선사과냄새가 나야 한단 말이다. 알겠니?》

우리의 기분을 돌려주려고 애쓰는 아저씨를 보면서 나는 전선으로 가던 날의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아버지도 저랬었다.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를 웃겨놓았던것처럼 아저씨는 끝내 우리가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놓았다.

애순이가 제일 먼저 짚었다. 차가 몹시 들추곤해서 그 애는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

보름달 둥근달
낮처럼 흰해
시골길 십리길
외가에서 오는 길
내가 가면 달도 가고
내가 서면 달도 선다

애순은 그 노래를 불러놓고 훌쩍훌쩍 울었다. 오랍동생과 손목잡고 외가에서 돌아오던 밤이 생각나서일가.

그 애를 겨우 진정시켜놓고나서 아저씨는 이번엔 나를 짚었다.

바다를 건너건너
언덕을 넘어넘어
해방조국에 ...

나도 그 노래를 불러놓고는 애순이처럼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 춘심이와 같이 봄맞이를 나갔던 남대천 푸른 방축,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춘심이도 죽고, 푸른 방축은 뭉텅뭉텅 허리가 잘리우고 머리 하얘진 엄마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소리내여 엉엉 울었다.

《이것참 야단이구나. 노래하고는 울고 노래하고는 울고...》

아저씨의 음성도 갈려있었다.

《애들아, 우리 합창을 하지 않겠니. 자- 다 같이 부르자. 〈밝아오는 새 조선의...〉》

모두 따라 불렀다. 하지만 힘찬 그 노래도 어떤지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대로 차를 타고 오는동안은 노래도 하고 웃기도 하느라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차가 압록강대안에 와서 멎고 《자- 이제 다 왔다. 어서들 내려자.》하는 말이 들렸을 때부터, 발밑으로 내려다보이는 시꺼먼 강물우에서 우리를 태워갈 목선 네척이 흔들거리고있는것을 보았을 때부터 아이들의 기분상태는 꽤 달라졌다.

무슨 불인지 이따금 번쩍할 때마다 폭격에 내려앉은 공장의 우람한 형체가 저 멀리로 바라보였다.

배를 타자고 강언덕을 내려가던 어느 아이가고무신이 벗겨졌다면서 쿨적거리기 시작하였다. 고무신은 인차 찾았으나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물가운데 들어선 인민군대아저씨가 언터구를 잡지 못해 울지 못하고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심히 안아다 배에 올려놓아주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용케들 참고있었다. 하지만 첫배를 보내면서 《애들아, 잘들 가거라》하는 목멘소리가 들리자 이번엔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모두 부둥켜안고 울기 시작하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이국으로 보내며 조국의 산야가 흐느끼는것인가 새까만 하늘에는 진눈까비가 비로 변하여 주룩주룩 내렸다.

나는 지금까지 춘심이를 부르며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이 인간에게서 제일 슬픈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이밤 국경의 나무가에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고무신 한짝이 벗겨졌다고 생트집을 잡아 쿨적거리던 애순이를 보면서, 그것이 결국엔 울음바다로 만들어놓았던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는 나의 어머니것보다도 더 슬픈 눈물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시절에 우리가 벌써 조국이 무엇인지 알고있었던란 말인가. 일곱, 여덟살, 많아야 열두살짜리들이 무엇을 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린 무엇때문에 울었던가. 찬비 내리는 압록강물결위에 빠그덕빠그덕 노젓는 소리가 구슬피 울고 두고온 기슭이 점점 멀어져갈적에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찢어놓던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어른들의 가슴만 찢어졌던가.

우리는 의의가지없는 교아의 신세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것도 아니었다.

어머니 생각이 날세라 보모도 우리 보모, 가서도 우리 노래를 부르라고 음악선생도 우리 선생, 의사도 우리 의사, 나라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것이였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던가. 그것이 그래 조국이 아니었던 말인가.

우리한테도 벌써 그런것이 있는줄 모르고있었을뿐이였다. 그것을 알도록 전쟁이, 압록강의 그 쪽배가 우리를 깨우쳐주었다.

우리를 태운 기관차는 가도가도 끝없이 계속되는 이국의 광야를 며칠을 두고 계속 달렸다.

우리는 어미잃은 병아리들처럼 창결에 오구구 모여앉아 흘러가는 산야를 쓸쓸하게 바라보았다.

땅도 처음보는 이국땅이요, 사람도 처음보는 이국사람, 떠도는 공기에서조차 이국냄새가 서려도는 남의 나라, 남의 땅.

기차가 서는 역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어보이며 《코레아!》 《김일성!》 하고 웨쳤다.

매우 뚱뚱한 어머니들이 빵과 우유, 당과류구력을 들고 우리가 있는 차칸으로 올라오기도 하였다.

그 녀인들이 반갑다고 우리의 손에 향기로운 사랑을 쥐여주며 웃을 때 나는 어유등이 그물거리는 방공호안에서 숙제를 안했다고 나를 엄하게 쏘아보던 계모를 눈물머금고 생각하였다. 그계 사랑인줄, 그가 진정 나의 어머니인줄 왜 몰랐던가. 그 좋은 꿈을 떠나 왜 여기까지 흘러왔던가.

나는 그때 외할머니를 찾아 평양으로 떠났었다. 평양으로 향한 천리로상에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도 보내고 겨울을 맞았다. 그 길에서 나는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북으로 들어오는 인민군대도 만

났고 다시 재진공하여 나오는 인민군대와 중국인 민지원군도 보았다.

굵으면서, 뿔면서, 어떤 때는 무던한 어머니한테 끌려가 밥도 먹고 모자도 얻어쓰고, 어떤 때는 감자밭에 들어가 낱감자를 캐먹으면서, 또 어떤 때는 재미있는 동무들을 만나 장난도 하고 싸움도 하며 세월가는줄 모르다가 석달인가 녀달인가 만에 평양에 들어서니 대동강다리는 끊어졌는데 아직도 들어서면 뿌적뿌적하는 얼음우로 사람들이 드문드문 한줄로 서서 강을 건너가고있었다.

당장 얼음이 꺼져내리는것 같아서 《아저씨!》 하고 앞선 사람을 쫓아가니 《아저씨》가 핵 돌아서며 쫓아오지 말라고 고함쳤다. 둘이 함께 서면 꺼진다는것이였다. 이번엔 내 뒤에서 오던 《진짜 아저씨》가 웃으며 나의 손목을 잡아주었는데 그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구레나루가 시꺼먼 내무원대위였다.

경상골에서 산다던 외할머니는 찾을수가 없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반토굴과 방공호만이 다닥다닥 들어앉았는데 외할머니네를 안다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가루개시장과 서문밖장안을 살살이 훑으며 할머니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날에 그만 돈도 안내고 지짐 한짝을 먹으려다 붙들렸다.

우리를 데려간곳은 지상건물이 폭격에 없어지고 지하실비슷한것만 남은 그런곳이었는데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에 피발이 선 당직내무원이 난로앞에 앉아 눈을 감고있다가 우리를 맞았다.

대동강을 건너여준 바로 그 구레나룻대위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게 참으로 다행이였다.

《어랍쇼, 이거 가루개친구들이구만. 어쩌다가 걸렸나? 그런데 이거 난사구만. 미국놈들이 어떻게나 깨깨 마사놓았는지 이런 〈반동〉 들을 잡아와도 어디 가둘데가 없단 말이야.》

그날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 구레나룻 아저씨와 같이 후끈후끈한 방에서 오금을 찌고 잤다.

신새벽에 우리를 깨웠다.

《친구들, 일어나라구. 여긴 려관도 아닌거구 우리 서장동무가 출근하면 곤난하단 말이야.》

구레나룻 대위는 거밋거밋한 량볼에 비누거품을 하얗게 칠하며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다. 면도를 하고난 대위는 손거울을 꺼내들고 꼼꼼히 옷맵시를 보더니 밖으로 덜컥 쇠를 채우고 나가버렸다.

이제는 쥬기밥이나 가져다주면 한덩이씩 얻어먹고 애육원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하루고 이를

이고 갇혀있게 되었다고 걱정하고있는데 생각밖에 대위는 인차 돌아왔다.

그는 밖에서부터 떠들썩하며 문을 열었다.

《여보게들, 이걸 보라구.》

대위는 들고온 큼직한 보따리를 머리로 쳐들어보였다.

《장마당 할머니들이 한턱 냈다네. 구레나루가 오래간만이라면서 녹게 주더구만. 더가짐까지 받쳐가면서...》

보자기안에서는 찰떡, 흰쌀떡, 지짐, 엿, 락화생, 꽃감, 별의별것이 다 나왔다.

대위는 그것을 책상우에 짹 퍼놓으며 우리를 불렀다.

《친구들, 새해를 축하하네! 오늘이 설날인줄은 알고있었나? 리별도 많았고 희생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던 전쟁의 첫해는 가고 새해가 왔네. 자, 복수와 승리를 위해서 들자구. 난 이런것도 하나 가져왔어.》

그는 벌쭉 웃으며 외투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보였다.

《용기있는 친구들은 요구하라구. 자, 누가 한잔 부어주겠나? 내절로 부어먹을 재미야 있나.》

나는 이전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것처럼 두손으로 술병을 받쳐들고 조심치 부었다.

《고맙네. 손이 새까맣다구 그렇게 창피해할진 없네. 씻으면 되니까. 그만하라구. 반고뿌면 돼, 서장동무가 알면 큰일이라니. 제가 술을 못하니까 우릴 더 못살게 굴거든. 몇살인가? 우리 경식이와 동갑이구만. 그런 아들이 있었지. 후퇴갔다 오니 죽였더구만. 그 어린것이 무얼 안다구... 에이, 이런 말은 그만하세. 설날이 아닌가. 친구들, 덤비지 말구 천천히 들라구. 노래랑 부르면서...》

나는 나를 태우고 이국의 땅야를 달리던 기차칸에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였다.

이국에서 설을 맞을 때면 더더욱 가슴저리게 그날이 생각났다. 그 설은 후에 내가 생각하고있던 조국이라는 내용속에 합쳐지였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설이나 단오, 추석명절 그리고 개학날이 오면 더 자주 생각나는 그런것입니다.》라고 나는 교실창문밖에 펼쳐진 낯선 나라땅의 거리를 쓸쓸하게 내다보며 작문시험지에 썼다.

그렇다. 그 당시 《조국!》하면 내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1951년 설-면도를 깨끗이 하고 옷맵시를 보던 구레나룻대위와 사탕과자를 연방 집어가던 새까만 손들, 그 새까만 아이들이 손세까지 쓰며 부르던 《조국보위의 노래》였다.

거기에 처마밑에들 나와 서서 떠나는 우리를 바라보던 마을너인들과 《고무신을 잃었으면 찾

아보자》하고 얼러추던 인민군대아저씨, 남대천 방축, 이런것들이 합쳐지였다.

나는 폐허속에서 새로 일떠선 조국이 바야흐로 사회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던 때에 귀국하였다. 그때 내 나이는 열여섯살이었다.

그때까지도 내 가슴속에 간직된 조국이라는 거울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던만큼 그 아픔이 쉽사리 가시지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생기에 넘친 조국의 새 모습을 늘 보면서...

조국은 3년간의 고급중학교과정을 마친 나에게 또다시 대학의 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나는 대학과정도 최우등으로 마쳤다.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끌어준것은 숙제를 안했다고 쓰아보던 어머니의 엄한 눈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에, 장가를 들던 날에, 렬사증을 받던 날에, 입당을 하고 큰 배의 선장이 되던 날에, 조국의 고마움에 눈물짓던 그 무수한 밤들에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울었다.

귀국한 날부터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어머니는 어데 가도 없었다. 살아있으면 혹시 제 살던 곳을 한번 다녀갈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일터에 자리를 잡았건만 어머니의 소식은 알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머니가 뜻밖에 텔레비죤화면에 나타났다. 서른명은 실히 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속에 둘러싸여 기자와 마주앉아있는것이였다.

《...난 그 애를 찾느라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지요. 어딘들 찾아가보지 않았겠소. 그러다 가만 정신을 차리고보니 우리 춘길이와 같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걸 알았수다. 우리 춘심이가 빨던 젖이 아직 가드라들지 않은게 다행이었지요. 기총탄에 맞아 예미가 나가넘어졌는데두 잔등에 업혀서 제 혼자 품지락거리며 방구방구 웃고있는 제 집애를 풀어안았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웁디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 애들을 떠나보내시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간부들에게 〈우리부터 하나씩 데려다 기릅시다〉라고 하시였다더군요. 그러시고는 몸소... 그런데도 난 우리 춘길이란 춘길이라구 정신나간것처럼 싸다녔구려. 치마두른 백성이라는게... 우리 아들도 누구의 품에 안겼을거라는 생각이 듭디다.》

얼마후에는 하나 더 업어왔수다. 젖이 나오라고 독을 쓰고 먹었지요.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쌀알이 없으면 능쟁이를 뜯어다 된장에 버무려 한 번에 바쁘면 두 번에 먹고 먹기가 바쁘면 눈을 꼭 감구 삼켰수다. 애들을 살리자면 먹어야 했지요.

그후엔 염소도 한마리 생기구, 터밭두 일구구, 생활이 펴는데 따라 아이들을 더 데려왔수다.

옛말로 됐지요. 이젠 다 자라 탄부두 되구, 군관두 되구, 선생노릇두 하구, 원이 없수다. 매일 명절이지요. 아들이 왔다가면 딸이 찾아오구, 늙마에 락을 붙네다. 고생할적 같아서는 이런 날이 다시 없을줄 알았는데 이젠 늙고싶지 않수다.》

《우리 외로운줄 모르고 자랐어요. 저녁마다 우리 오락회를 했답니다. 복은 어머니가 치군했어요.

물담은 낫양푼에 바가지를 얹어놓구 두드리면 뚱뚱 뚱뚱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그때 우리 집의 복이었답니다. 어머니, 그때 부르던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지요. 선창은 큰오빠, 좋지요?》

어머니는 《우리 막내이》라고 소개한 중년녀인을 돌아보며 즐겁게 웃었다.

어느 손자녀석이 벌써 할머니한테다 복통을 안겨주느라고 야단이였다.

저 백발의 로인이 바로 왜놈들한테 남편을 빼앗기고 미국놈들한테 또다시 남편과 딸을 빼앗기고 아들마저 달아나버려 쓰러져 더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지금 아이들과 같이 웃으며 전시가요를 부르고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간직하고있던 조국이라는 거울에는 늘 안개처럼 서려있던 애수가 사라지고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고 자식들한테 받들려 환하게 웃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새로 비졌다.

기자는 아들딸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있는 어머니가 왜 여생을 큰 집에서 홀로 보내는가고 물었다.

《벌써부터 자식들의 집이 되고싶지 않수다. 오금이나 못쓰면 누구든 와서 데려가겠지요. 저저끔 가져가고 하니 뉘집에 갈지 형제간에 의가 상할것 같아 걱정이되다.》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어머니님 아직도 춘길오빠를 기다리고있답니다. 어머니, 춘길오빠가 이제 이 텔레비존을 보고 꼭 찾아와요, 찾아온대두요.》

막내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4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은 번듯하고 아담한 농촌문화주택이었다.

강냉이와 혼작을 한 터밭에서 감자를 캐고있던 어머니가 자동차소리를 듣고 허리를 폈다.

《어머니, 춘길이가 왔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를 찾아온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는 나의 두손을 움켜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인차 눈물을 거두고 나에게서 물러났다.

40여년이란 긴 세월이 가뜩이나 여성버성하던 모자간의 사이를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버린것이여서 그냥 볼테고 울기가 어색해진것이였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은 나와 어머니한테서 서로 낮익고 그림던 모색의 조각까지 깡그리 가져가버리고 나의 앞에는 눈가에 정찬 웃음이 남실 남실 넘치던 30대의 미모의 녀성이 아니라 머리가 모시바구니같은 낫선 로파가, 어머니의 앞에는 따끈한 물함지안에서 간지럽다고 웃던 일여덟살 총각이 아니라 수염티가 거뭇한 50대의 웬 남정이 자기를 어머니라 부르며 서있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인사도 어색하게 받았다.

처가 가지고온 옷을 내놓으며 《어머니, 이것으로 갈아입고 가지자요.》했을 때도 《고맙다.》했을뿐 그 어떤 감동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로였다.

《이게 네 큰딸이야? 앤 둘째 딸? 애는 막내이, 딸형제, 아들 하나구나.》

차비를 하고 집으로 가자는 처의 말에 어머니는 도리를 저었다.

《일전에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생각해보았다만 내가 이제 따라간대야 하루종일 빈집이나 지키다 말겠는데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 군관노릇을 하는 네 동생이 있단다. 아마 셋째가 될거다, 런던장을 하지. 난 그 애한테 패지를 길러 보내주는 재미로 산다. 자주 온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는 불쑥 들러 〈어머니, 이걸 받으시지요.〉 하며 패지사료를 한두가마니씩 부려놓군한단다.》

《제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야 일이 없이는 한시도 못살지요. 제가 어머니의 일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패지도 기를수 있구요. 군관을 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어디 여기에만 있습니까.》

《됐다. 살아있는 너를 보았으니 그것이면 된다.

용타, 그 험한 전쟁판에서두 죽지 않구 살아남아서 아버지처럼 큰 고기배의 선장을 한다니 이젠 죽어도 눈을 감겠다. 아이들이나 오겠다면 한번씩 보내렴.》

어머니는 막내이의 손을 끌어다잡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누나랑 같이 오군해라. 사랑, 파자 사먹을 돈 일랑은 내 주군하마. 이젠 그런 재미나 보며 살자꾸나.》

그리고는 어서 들어가 점심이나 해먹자고 하였다.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앞서 걸었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한테 어머니를 돌려세울 힘이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정!- 오직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만이 그를 불러세울수 있는데 우리에게겐 그것이 없었다.

새 어머니가 들어와 2년을 같이 살면서 이어지기 시작했던 가느다란 정금의 금선마저도 전쟁과 40 여년이라는 세월의 칼날이 무수한 토막으로 갈라놓았으니 나한테는 배우처럼 어머니, 어머니하고 울며 매어달릴 그런 노죽도 없었다.

그래 손가락만 쥐여끼으며 모지름을 쓰고있는데 아까부터 울먹울먹해서 우리의 눈치를 보고있던 열살난 막내가 어푸러지듯 달려가더니 할머니를 앞에서 막아서며 허리를 부둥켜안았다.

뒤따라 두 손녀가 달려가서 할머니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쥐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요. 우리한테만 할머니가 없어요. 아버진 내내 할머니 말만 하시었어요.》

《난 학교에서 빨리 돌아와 할머니를 동무해드릴래요.》

《잘 때도 할머니와 잘래요.》

그러면서 막내는 아까부터 꺼내주고있던 알사탕 한알을 할머니의 목에 매달리며 억지로 입에 넣어주었다.

짓물리기 시작한 정기없는 눈으로 그런 손자를 한참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섰던 로인의 얼굴에 한순간 섬광과 같은것이 번쩍하는가싶더니 그다음엔 아이를 와락 부둥켜안으며 울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어머니가 막내이한테서 어제날의 나를 본 모양이었다.

손자가 40 여년전의 아들의 얼굴모습을 되살려보인것이 분명하였다.

나이드 그때의 내 나이, 생김새도 신통히 나를 닮았다고들 하였다.

아들을 찾자 이번엔 토막쳐나갔던 정금의 금선이 제절로 이어지며 핑핑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오냐. 가자, 가자. 너희들을 기다리느라고 이 할민 이렇게 백발이 됐다. 빈집을 지키면 일 있느냐. 너희들이 학교갔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재미루 살자꾸나.》

어머니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도 막내이를 품에 꼭 끼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제날의 아들처럼 이번엔 또 손자가 자기의 품에서 빠져나와 달아나지나 않겠는지 겁을 내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도 한동안은 돼지를 기르느라 정신이 없던 어머니가 지금은 방안에 조용히 앉아 전설장에 보낼 장갑을 뜬다.

이제는 돼지죽바께찌를 들고 밖에 나다니기가 힘겨워진것이다.

창결에 의자를 끌어다놓고 앉아서 뜨개질을 하며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는것은 어머니의 여생에 락중의 락이다.

살림집밑으로 읍의 중심을 지나는 포장도로가 시원하게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앞둔 거리는 벌써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있다.

원림사업소 노동자들이 온실에서 피운 고운 꽃들을 단지채로 내다 길가턱을 따라가며 심는다.

생화묶음을 든 처녀들의 한떼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지나간다.

밖은 얼마나 좋은가. 밖에는 손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젊은 시절 출근시간이 늦을가보아 바빠 뛰어가던 수산사업소가 있고 늘 자기 혼자만 꼬마계획을 못했노라고 입술이 뾰죽해다니는 둘째손녀를 이끌고 종종 찾아가던 수매소가 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기쁨은 바다쪽에서 먼저 찾아든다.

《뽕-》

배고동소리가 들려온것이다. 먼바다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것일까. 명절이 래일모레니 돌아올 때도 됐나보다.

배고동소리가 다시 들린다.

어머니는 뜨개바늘을 팽개치고 화닥닥 일어난다. 저것은 분명 아들이 보내는 소리다. 어머니 들으라고 아들은 매번 먼데서부터 고동을 길게 울리곤 한다.

어머니는 허둥허둥 층계를 내려간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처럼 다리가 잘 돌아주지 않는다.

내가 자칫 실수해서 넘어지گی라도 한다면 놀이 에미때문에 맘 못놓고 나가사는 아들이 또 얼마나 속상해할까.

어머니는 복도층계의 란간을 살살 쓸며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간다.

물고기를 실러 사업소로 들어가던 운반차운전사가 선장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냉큼 불안한 운반차에 올려놓아준다.

《왜 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갈 때까지 가만 기다리고계시라지 않았나요?》

《이런 재미도 못보면 죽고말지.》

《어머니, 제 직업이 못돼서 늘 어머니결을 떠나 이렇게 나가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뭘 그러느냐. 기다리다 만나니 더 좋지 않느냐.》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나의 투박한 손을 자꾸 쓰다듬는다.

《큰 배의 선장이 어떻게 늘 에미곁에서만 붙어 돌겠느냐.》

《떠나고싶지 않아요. 늘 어머니곁에 있고싶습니다. 어머니, 우린 너무도 오래 떨어져있지 않았나요.》

나는 끝내 참아내지 못한다.

《그만해라. 사람들이 보라.》

《어머니, 바깥세상이 늘 그림지요? 기뻐하세요. 이번 4.15에 사업소에서 남대천방죽으로 들놀이를 갑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요. 차가 오겠지만 우린 걸어갑시다. 아이들을 앞세우고 천천히 말입니다.》

《그러자꾸나. 난 걸을 수 있다.》

어머니가 장담한다.

그날의 들놀이는 얼마나 좋았던가.

열여섯이나 되는 어머니의 아들딸들이 몽땅 왔었다. 정세가 긴장해서 군관을 하는 동생들이 더러 못오기는 했지만 대신 며느리가 오고 아이들이 왔다.

너렁청한 두칸방이 서른한명인지 두명인지 하는 식구들로 꽉 차서 한쪽에서는 하하 웃고 한쪽에서는 와당탕탕 뛰여다니고 한쪽에서는 서로 쥐여박을 내기를 하다 울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 《이제야 사람사는 집안같구나》 하며 우는 애를 안아가고...

대학에 다니는 나의 큰딸은 첫새벽에 일어나 자기의 4촌언니들과 같이 할머니가 입고갈 옷들을 손질하더니 곁에 입을 자케트에다 금별메달을 정히 달아드렸다.

맴시쟁이 둘째 딸은 자기또래 형제들과 함께 할머니를 한시간동안이나 경대앞에 붙들어앉히고 성화를 시켰다.

머리를 빗겨주고 수건을 씌워주고 다시 벗기고 다시 씌우고 크림을 발라주고 분침까지 꺼내서 한번 살짝 쳐놓고는 까르르 웃었다.

《할머니, 우리가 이제 할머니를 색시로 만들어 드릴래요.》

색시로 다시 된다는 소리가 싫지 않은지 할머니도 호호 웃었다.

사내가 사내라 막녕이는 지평이를 짊어왔다. 지평이가 무슨 소용있단 말인가. 술한 형님들과 누나들이 벌써 랑컨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란부, 기관사, 당일군, 농장원, 대학생, 안전원, 하나같이 끝끝한 아들딸들과 손자손녀들을 거느리고 밖에 나서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며 어머니에게 박수를 보내준다.

꽃송이를 안겨주고 가는 소년단원들도 있다.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이 사회가 어머니한테 박수를 보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선다.

《어머니, 좋지요?》

《원이 없다. 별로 큰일두 못한 나로선 송구스럽기만 하구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나의 젊음을 되찾아주시구 또 이렇게 한생을 빛내어주시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얼마나 좋은가.

쟁글거리는 봄별, 줄음이 실린 최독길, 시내가의 버들개지, 묘잔등의 할미꽃, 이 봄에 처음 보는 노랑나비...

《어머니, 생각나지요? 저기가 바로 아버지랑 같이 봄맞이를 나왔던곳입니다. 어머니가 춘심을 엮은채로 미나리를 캐며 따라가던 보물도랑은 저쯤 되구요, 아버지가 앉았던 뉘시터는 바로 저기예요. 여긴 우리가 점심을 먹던곳이구요. 이제라도 찾아보면 여기 어디 풀숲밑에 봄바람에 자꾸 파들거리는 보자기의 귀를 지질러놓으라고 강에서 주어왔던 하얀 차돌알이 그냥 있을것만 같아요.》

《할머니, 저 송아지를 보라요. 이 봄에 갓난 햇송아지예요. 엄마의 발치에 누워 그냥 즐기만 해요.》

《그렇구나. 아마도 봄별에 취했나보다.》

《할머니, 난 할머니한테 달래를 캐다 드릴래요.》

둘째딸이 방긋 웃으며 가지고온 호미를 내보인다.

《어머니, 걷기가 힘들지요?》

나는 닝큼 어머니를 업는다. 이제는 검불처럼 겁석해지셨다.

아이들이 할머니가 업혔다고 좋아라 웃는다. 너희들은 아직 할머니를 업고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모를것이다.

아이들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세대는 혁명의 1세대들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할 고마운 세대란다. 누린것보다 바친것이 더 많은 그 세대가 벌써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아버지는 그것이 제일 가슴아프다.

《어머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젠 내려서 걸자꾸나.》

《가만 계십시오. 우리 열여섯형제를 어머니가 업어길렀는데 이제는 아들의 잔등에 마음놓고 업혀도 됩니다. 다리는 든든하니까요.》

4월의 훈향이 짙게 흐르는 푸른 방축길로 아이들이 아-하며 달려간다.

눈부리가 모자라게 곧추 뻗어간 푸른 길 저끝에서 아이들이 진달래꽃을 흔들며 함께 뛰친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제는 우리가 업어드려요.》

×

또다시 1년이 지나 어머니가 늘 배마중을 하던 잔교에서 나는 인민군대로 가는 둘째딸을 보내었다.

얼마나 많은 작별의 눈물이 이 잔교에 뿌려졌던가.

예나 지금이나 바다도 그 바다요 파도소리도 그때와 다름이 없건만 오늘은 비가 오는 저 하늘도 흐려보이질 않고 까-악-거리는 갈매기의 울음조차도 노래처럼 느껴진다.

정론시

총진군 앞으로 !

송명근

발맞춰 앞으로!
발맞춰 앞으로!

누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누가 평범하게 걸기를 바라느냐
당이 결심하면
언제나 어느 때나
한치도 드림없이 발맞춰온 우리의 걸음이다

전후의 재더미를 헤칠 때엔
전설의 천리마를 안아올리며
사회주의보루를 쌓아올릴 때엔
속도전의 열풍을 휘몰아오며
당이 번개치면 우뢰로 대답한
우리의 총진군이다

보아라
열과 빛을 땅속에서 안아올리는
탄부의 걸음은 목직해서 좋다
강철과 철갑을 불속에서 구워내는
용해공의 걸음 활기차서 좋다

보아라
영예군인의 삼륜차를 조심히 밀며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는 처녀의 걸음
고아들의 친어머니가 되어주려
육아원을 찾아가는 저 녀인의 걸음...
얼마나 진하디 진한 인간의 향기를 날리며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빛내주느냐

발밑에서는 파도가 어리광부리듯 기둥뿌리를 치고 소금기 뱀 축축한 대기가 얼굴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잔교, 이는 룩지와 바다를 이어주고 정과 정을 이어주는 물우의 역이다.

배나갔던 사람들이 잔교에 내려서면 벌써 물을 느낀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돌아오는 동포들도 잔교에 한발을 내짚으면 이곳이 바로 죽어서도 오리라던 나의 조국임을 실감한다.

그러고보면 잔교는 바다를 향해 제일 멀리로 뻗어나간 물의 한끝이다. 아니, 품을 찾아 돌아오는 아들들을 어서 오라 반겨부르며 얼싸안자고 조국이 두팔을 짹 벌리고있는것이다.

바로 그 잔교에서 어머니는 오늘도 자식들을 기다린다.

한생을 기다려 사는 나의 어머니가.

우리의 힘찬 걸음에
우리의 진리의 걸음에
제국주의의 압력은 산산이 부서진다
사회주의의 진군은 승승장구한다

걸음을 맞추자
걸음을 맞추자
《우리 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창조제로!

남을 쳐다보지 않는데 습관된 우리
그것이 우리의 체질
그것이 우리의 전통
오직 제힘으로 사회주의를 지켜갈
숭고한 리념이
우리의 진군을 떠мина니

오늘의 한걸음으로
누가 이 땅에 영생의 위훈을 새기느냐
누가 한점 향기를 조국에 보태느냐
누가 시대를 우뚝 떠밀어올리느냐
그것은 너다, 나다, 온 인민이다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승리의 한길로만 곧추 이어진 걸음
일심단결의 기발을 날리며
가자! 지구를 북처럼 울리며
가자! 사회주의 승전고를 울리며
가자! 사회주의 한길로 끝까지 끝까지

복무

림길명

빠스에서 내리자마자 새살림거리 건설장부터 한바퀴 돌아본 군당부원 김형우는 소공원의자에 걸터앉아 흡족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뜻밖이군. 공사가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출장을 떠날 때까지만 하여도 겨울동안에 미진한 내부공사와 주변정리를 끝내고 봄에 나가서 입사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 그였다. 그런데 출장을 간 열흘사이에 내부공사를 거의 끝내서 초겨울전으로 당장 입사를 앞당길수 있게 된것이였다.

형우는 온 군이 달라붙어 진행하는 새살림거리건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당적으로 편의봉사부문 건설을 맡아보게 된 그가 건설이 끝나감에 따라 봉사망배치때문에 은근히 원심을 쓰게 된것이기도 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히 앉아있을가?...)

형우는 빨리 사무실에 가서 봉사망배치안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경영과에 전화를 걸어보고싶었다.

형우는 불쭙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리였다. 발목이 시큰거려났기때문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출장지인 두진탄광에서 빠스를 기다리지 않고 내쳐 걸어오다가 월항령을 넘을 때에 돌부리를 걷어차면서 곱디던 발목이 독을 쓰기 시작한다는것을 알았다.

그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쭈서나는 발목을 주무르던 형우는 허거픈 웃음을 짓고말았다. 산골길을 걸어오느라 흠뻑뻑 땀이 오르는 구두가 말이 아니었던것이다.

형우는 누가 볼세라 얼른 호주머니에서 조가비모양의 구두닦개를 꺼내 흠뻑뻑 털었다. 그러나 구두닦고송이에 희속희속 드러난 돌부리에 굵직한 자리만은 여전히 험상해보였다. 아무리 바빠도 그대로 거리에 나다닐수는 없었다.

그는 신발수리소부터 들러 약칠을 하기로 하였다. 구두는 병사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구두를 번쩍번쩍 윤기나게 닦아신던 습관이 몸에 밴 그였다.

신발수리소는 산골군의 좁다란 읍거리에서도 제일 막바지 골목쪽에 자리잡고있었다.

손님들이 많았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두가 형형색색의 구두를 들고 와서 순서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중년나이의 수리공녀인이 혼자 고

무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손님들의 말없는 독촉에 쫓기듯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고있을뿐이었다.

신발수리소에 들리면 군내에서 벌여지고있는 건설장소식들을 짙막한 인사말로 묻곤하던 수리공아바이의 자리가 비어있는것을 보고서야 형우는 편의봉사관리소에서 여태 새 수리공을 배치하지 못했다는것을 알았다.

신발수리공아바이가 아들을 따라 도시로 이사를 떠난것은 보름전이다. 그때 형우는 로력을 보충해달라는 녀인의 제기를 받고 당장 신발수리공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며칠만 참아달라던 관리소지배인의 말을 듣고 출장을 떠났었다.

그런데 결국 수리공을 보충해주지 못하여 매일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리게 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제때에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주지 못하고 출장을 간 자신이 후회되였다.

바빠하는 수리공녀인에게 인사말을 건넨 먼목조차 없음을 느낀 형우는 슬며시 손님들 뒤의 자에 앉았다. 기다리다가 구두약칠을 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버리고 말것인지 한참 망설이다가 그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때 손님들속에서 누군가가 초조한 어조로 녀인에게 독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우. 혼자서 약칠도 하고 이것저것 하자니 바빠서...》

《물론 혼자서 힘들어하는걸 알면서도... 빠스 시간을 놓칠가봐 그러니다...》

《보아하니 제대군인인것 같은데 휴가를 가나요?...》

《휴가요?...》

제대군인이 얼굴을 붉히며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간다.

《사실은 성리에 사는 처녀와 약혼식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할것이지...》

녀인이 미안해하자 손님들까지 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이런 일이야 미리미리 해야지요...》

《은덕이라는데가 처음이 꽤나서 신발수리소를 찾을수가 있어야지요. 이런 구석에 박혀있는

걸...일이 바쁜 사람들이 어디 구두약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거 안됐어요. 타고장손님을 푸대접해서...》

녀인이 웃으면서 정성껏 약칠을 한 구두를 제대군인에게 넘겨주었다.

《자 마음에 들어요?...》

《히야! 거울같은게 멋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입이 합지박만해진다.

《여보게 젊은이, 약혼녀가 자네의 얼굴보다 그 구두에 훌쩍 반할걸세... 허허...》

결에 선 중절모를 쓴 로인이 한마디 하는바람에 와 웃음보가 터졌다.

그러나 형우는 웃을수가 없었다. 방금 떠나간 그 제대군인이 군의 편의봉사사업에 대하여 단마디로 평가해버린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기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제대군인을 찾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긴 깊은 산골인 군의 편의봉사사업은 아직 도시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새살림거리가 완공되면 군의 봉사망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다.

형우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녀인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수리공녀인도 그런 앞날을 내다보았음인지 여전히 웃으며 손님들의 구두를 수리해주고있었다.

형우는 오늘따라 녀인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자주 녀인의 신세를 지면서도 언제부터 신발수리를 하기 시작했는지 세대주는 무슨일을 하는지 이쯤조차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이때 자동차 한대가 신발수리소앞에 와서 멈춰서더니 키가 작달막한 청년이 배낭을 메고 수리소안으로 뚝쭈 들어섰다.

《편안했어요?...》

녀인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청년의 몸에서는 송진내가 확 풍기였다.

《아니 동철이가 왔구나!...》

반가와하는 녀인을 보자 보통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내 언제까지 이 심부름을 하겠는지...》

청년이 배낭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하는 소리였다. 가만보니 배낭안에서 조금만 손질하면 훌륭해질 겨울용신발들이 여러켤레 나왔다.

《이게 다냐?...》

《달게 뭐예요, 아주머니가 혼자서 수고할가봐 남겨두고 왔는데...》

《수고는 무슨 수고... 그래 산판일은 어떻게 돼가냐?...》

녀인은 마치 떠나온 친정집소식을 묻듯한다.

《벌목을 시작했어요. 산판이 뚫어번집니다. 첫눈이 내리면 통나무를 끌어내리겠다구 기세를 올리거든요...》

《그래 우리 령감은 앓지나 앓는지?...》

《앓다니요, 합숙살이 올라서 몰라보게 변했어요. 요전날 뭐라구 했는지 알아요. <이동벌목이 끝나 집에 내려가면 로친네가 제 령감을 잘못보고 내쫓으면 어쩐다?...> 허허허...》

《령감두 호호...》

갑자기 손님들까지 웃어버렸다.

《벌목을 시작했던 말이지. 당장 산판에는 눈이 내리겠는데 빨리 신발을 수리해주어야겠구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멀리 산판쪽을 지켜보던 녀인이 다시 구두수리를 시작한다.

형우는 고개를 숙이였다. 산판에서 일하는 벌목공들의 편의를 도모해줄대신 신발수리때문에 읍에까지 내려오게 만들었구나 하는 자책감에서였다.

나라에서는 벌목공들에게 로보물자로 신발을 특별히 더 많이 공급해주고있다. 그런데 일부 벌목공들은 신발이 흔하다고 하여 조금만 손질해도 될 신발을 수리할사이가 없다면서 그냥 내버려두기가 일쑤였다. 갱목사업소 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그런 실태를 알게 된 형우는 관리소지배인에게 의견을 주어 산판에 이동수리를 보내도록한지 오랬였다. 그때부터 로보물자를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벌목공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였던가. 그런데 수리공 로력을 하나 보충해주지 못해서 이동수리를 못가게 됐으니 벌목공들이 일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형우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약칠을 할념도 않고 신발수리소를 나오고말았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두지령으로부터 땀뻘 바람이 불어왔다. 황이 든 가로수잎들이 우수수 맥없이 떨어지고있었다.

추위가 빨리 다가오려는 모양이다.

형우는 걸음길우에 나딩구는 나무잎들을 밟으며 군당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다.

《여보!...》

문득 뒤에서 울리는 안해의 귀에 익은 목소리에 형우는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연회색봄가을외투에 하얀 꽃무늬를 놓은 목수건을 두른 안해가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형우는 처음에 어디서 이런 멋쟁이가 나타났는가 하여 멍해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여보, 출장갔다오시기에 수고하셔요...》

안해의 살뜰한 목소리가 들려와서야 형우는 자신을 다잡았다.

《수고야 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보기만해요?...》

안해가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며 눈을 꼭
게 흘기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도 황홀해서...》

《어마나, 그럼 이 봄가을외투가 여기선 어울
리지 않는가보지요?...》

《아니 아니 왜 어울리지 않겠소...》

형우는 머리를 가로저어보였다. 결혼하자 남
편을 따라 도시서 이사를 온지 며칠 안되는 안해
로서는 심분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였
다.

《그래 어데 갔다오는길이요?...》

《행정경제위원회 로동과장동지가 불러서 갔
었어요.》

《오-원택동무가?...》

로동과장은 형우의 막역한 친구였다.

그가 결혼할 때 처의 직업문제는 자기가 맡겠
으니 참견 말라고 하더니 출장간사이에 안해를
만나 직장문제를 토론한 모양이었다.

《그래 그 친구가 뭐랍데?...》

《책방에 자리가 날 때까지 좀더 기다려달래
요.》

《좀더?...》

《나도 집에서 노는게 답답해요. 당신한테 도
움이 될만한 일감이라도 없겠어요?...》

《일감?...》

형우는 일감이라는 안해의 말을 듣자 불현듯
신발수리소생각이 났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
를 들어 방금 지나온 출렁다리너머에 시선을 던
졌다.

개울건너 산기슭에 오붓하니 들어앉은 단층
마을 골목길은 저너어스름속에 자취를 감추고있
었다. 그어름에서 신발수리소의 정다운 불빛이
깜빡거리고있었다.

형우의 눈앞에는 레사롭던 신발수리공녀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산판에서 첫 갱목을 찍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도 기뻐하던 녀인, 그러면서도 산판
에서 수고하는 벌목공들을 위해 이동수리를 가지
못하게 된것을 못내 가슴아파하던 녀인.

그는 아마 석탄전선에 더 많은 갱목을 보내주
기 위해 떨쳐나선 벌목공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는줄 모르고 신발수리를 하고있을지도 모른다.

불빛 밝은 창가에서 녀인이 구두창에 못을 박
는 망치질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구
두칼로 밀창기슭을 도려내는 사르륵사르륵 하는
소리까지도...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어요?...》

문득 안해가 묻는 소리에 형우는 당황히 머리
를 흔들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형우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안해에게 무엇인
가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걸음을 떼었다. 순간
저도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어디 다쳤어요?...》

안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령을 넘어올 때 약간 돌부리에 걸채였더랬소
...》

《어마나 구두가 말이 아니군요. 약칠을 해야
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신발수리소에 들렀다가 그저
나오고말았소...》

《왜요?...》

《얼마전에 수리공아바이가 이사를 간 다음부
터 녀인이 혼자 일하는데 손님들이 어떻게나 많
은지...》

《여보, 걱정말아요. 아침에 내가 잘 닦아드려
요.》

《당신이?...》

형우는 안해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내가 할줄 모를가봐 그러세요?... 중학교때
부터 내가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리곤했어요
...》

생긋이 웃는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던 형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신발수리를 하는 안해를
상상해보았다.

여전히 생글생글 웃는 안해를 바라보던 형우
는 저도 모르게 불쑥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신발수리공이 되면 어떻겠
소?...》

《예?... 호호, 무슨 룡담을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신발수리공이라는 소리에
어이없다는투로 안해가 웃어대는바람에 형우는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다. 자기가 너무 단도직입
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허거픈 웃음을 웃으며 《그저 한번 해본
소리지...》 하고 혼자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말았
다.

《여보, 그럼 당신은 먼저 집에 들어가오. 난
사무실에 들렀다가겠소...》

형우는 별로 정색해진것 같은 안해에게 아무
일 없었던듯이 빙그레 웃음까지 지어보이고나서
자리를 뗐다.

그런데 안해는 그자리에 굳어진채 멀어져가
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만있었다.

걸음을 옮기던 형우는 또다시 신발수리소녀
인에게로 생각이 쏠렸고 아까 하였던 안해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또다시 불
같이 일어났다.

하지만 안해가 쉽게 응할가.

어찌 형우인들 자기 안해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그런 일터에서 일하길 바라지 않겠는가. 안
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비길수 없
을 정도로 류다른것이였다.

그는 그 어떤 남다른 가정형편이나 인물을 보고 안해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당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학업에 필요한 책을 구하려고 어느 한 책방에 들렀었는데 거기서 옥임을 처음 알게 되었었다. 그때 옥임이는 요구하는 책이 없어 못내 안타까와하는 형우를 보자 제가 도서관에까지 가서 책을 빌려다 안겨주었었다.

이름없는 독자를 위해 바치는 처녀의 아름다운 복무정신에 감동된 형우는 저도 모르게 옥임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옥임동문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소?...》

《전 그저 조용한 책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요구하는 책을 드리고 싶어요. ...》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배우고 배우길 바란단 말이지. 참 그런 소원이야 사들여 주겠소, 허허...》

이것은 첫사랑을 고백하던 날 옥임이 앞에서 웃으며 한 형우의 말이였다.

그런 안해에게 신발수리공소리를 했으니 안해의 마음속 고요한 강물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격이 됐던 것이다.

군당위원회집수에 들어서자 경비원은 기다렸듯 형우를 맞아주었다.

《형우동무! 마침 오누만. 어서 책임비서동지한테 가보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형우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네. 도착하면 즉시 방에 보내라고 하더구만...》

형우는 그길로 책임비서방으로 찾아갔다.

책임비서는 전화중이었다. 책임비서는 눈인사를 보내며 들어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왜 찾았을가?...)

전화를 끝낸 책임비서가 불쑥 량해부터 구하는 것이였다.

《이거 출장갔다 돌아온 사람을 불러 안됐구만. 집에도 들려보지 못했겠지?...》

《집사람을 길가에서 만났답니다.》

《그랬으면 됐소. 형우동무! 동무가 편의봉사부문 건설을 맡아보지?...》

책임비서가 문건을 들여다보며 묻는 말이였다.

《그렇습니다.》

《그래 동문 새살림거리의 편의봉사망배치를 어떤 방향에서 하면 좋을것 같소?...》

형우는 출장지에 가있으면서 늘 머리에 구상해보던 문제인지라 인차 대답하였다.

《제일 채양이 잘 들고 사람들이 봄비는 네거리에 앉히는 방향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

《그건 나하고 같은 생각이구만. 물론 그래야지... 그런데...》

책임비서는 잠시 말을 끊고 한참 문건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들며 물었다.

《어째서 봉사망배치안에 신발수리소가 없소?...》

그때에야 형우는 책임비서가 보던 것이 도시경영과에서 올려보낸 봉사망배치안임을 알았다.

《그건 아마 식당이나 미용원, 리발소, 책방 같은 것들을 앉힌 다음에 본다는거겠지요...》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

형우는 갑자기 대답을 못했다.

《음...》

방안을 두벽두벽 거닐던 책임비서가 말을 이었다.

《물론 식당이나 미용원, 리발소, 책방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 그러나 신발수리소라고 해서 차요시하면 되겠소? 봉사에는 선후차가 따로 없단 말이요. 나는 군당에 처음 부임되어왔을 때부터 신발수리소를 어째서 골목에 앉혔는지, 왜 간판은 크게 써붙이지 않는지 리해되지 않았소. 동무도 집을 나설 때엔 신발부터 찾겠지? 신발이 없는 한걸음도 갈수 없다는건 생활의 법칙이요. 인간의 이런 선차적요구를 누구나 체험하고있겠는데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신발수리소를 외면할수 있단 말이요.》

내가 알기엔 신발수리소에서 로력이 모자라 주민들에게 제때에 신발을 수리해주지 못하고있다오. 그래 읍내에 신발수리공을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형우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책임비서를 마주 볼수가 없었다. 신발수리소에 로력을 제때에 보충해주도록 대책을 취하지 못한것은 두말할것없고 봉사망배치안에서 신발수리소가 빠진것도 모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기때문이었다.

《그건 그렇고...》

문득 책임비서가 화제를 돌리였다.

《내가 동무를 찾은건 다른 문제때문이요...》

그의 어조는 상상외로 부드러웠다.

《동무도 알다싶이 우린 새살림거리 건설을 끝내고 입사를 앞당기자구 하오. 그런데...》

그제서야 형우는 책임비서가 새로 입사하게 될 주민들에 대한 석탄공급문제때문에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짐작은 옳았다. 군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사가 앞당겨질것을 예견치 못하고 탄광들에 미리 민수용탄생산계획을 물리지 않았기때문에 입사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였다.

《행정경제위원회동무들이 탄광에 나가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형우동무에게 그곳 형편을 알아보자구 찾았소...》

책임비서는 형우에게 큰 기대를 거는듯싶었다.

열흘동안에 걸쳐 탄광에 내려가 실패를 료해해 본 형우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

《탄부들을 발동시켜 탄예비를 찾아내야지요...》

형우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잘 생각했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인민들에게 당의 배려가 한시바빠 안겨지도록 해야겠소.》

책임비서는 석탄을 보장하지 못해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사를 미룬다면 당앞에 면목이 없다고 말하였다.

《책임비서동지! 래일아침에 인차 탄광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출장지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입사가 늦어질게 아닙니까?...》

《음 군대성미 그대로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는데 당일군들인 우리가 그이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야 하지 않겠소?... 형우동무.》

《걱정마십시오!...》

형우는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 책임비서에게 확신에 넘친 어조로 대답하고나서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임무를 받은 형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가로등불빛이 희미하게 흐르는 걸음길을 따라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으로 가고있었다. 굵디던 발목은 점점 더 찌서난다.

그러나 형우는 그 아픔보다도 자신에 대한 알수 없는 불만을 이겨내기가 더 가뻔했다.

《그래 읍내에 신발수리공을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요?...》

방금전에 책임비서가 한 말이 다시금 귀가에 쟁쟁히 되살아난다. 그것은 봉사망배치안에서 신발수리소를 빼놓은 일군들에게 얼마나 인민성이 부족한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물론 책임비서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마디 충고한것이지만 당사업을 갖 시작한 형우로서는 심각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낄 때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듯싶었다.

형우는 번열에 타는 가슴을 식혀보려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문득 그의 눈길은 신발수리소쪽에 가서 멎었다. 초저녁에 깜빡이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퇴근한 모양이였다. 그도 자식들을 돌봐야 할 어머니가 아닌가.

그러나 그 녀인은 밀린 일감들을 가득 안고 집에 들어가서 밤새껏 수리할지도 모른다.

형우는 다시 생각깊은 걸음을 옮기였다. 가로수의 마지막 잎새들이 떨어져 발에 밟히운다. 길 건너 맞은편 살림집의 창문들에서 내비치는 형광

등불빛이 조명되어 훑날리는 잎새들이 밤눈처럼 번쩍거린다. 불빛을 타고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글썽한 소리, 웃음소리, 기타소리는 이웃들의 단란한 가정적분위기를 짙게 해준다.

형우는 어쩐지 집을 가까이 하자 알수 없는 불안감이 불쑥 갈마드는것이였다.

(안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까? 내가 한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을까?... 참 내가 무슨 부질없는 생각을 다...)

형우는 혼자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지뫄게 머리를 흔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농촌마을 딸네 집에 나들이를 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었다.

《언제 오셨어요?...》

《좀전에... 그런데 넌 출장갔다 낮에 왔다면서 왜 인제야 집에 들어오느냐?...》

뜨물바께뜨를 들고 밖으로 나오던 어머니가 허리를 펴면서 하는 소리였다.

《좀 일이 생겨서요...》

《아무리 바빠도 때식은 제시간에 하거라. 병이 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 집안일 걱정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자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안해가 얼른 밖으로 나오더니 《어머니, 내가 해요!》하고 뜨물바께뜨를 빼앗아들기 바쁘게 돼지우리쪽으로 짖은 걸음을 한다.

형우는 늘 아들이 자기 말은 일을 제대로 못할가봐 다심하게 깨우치는 어머니앞에서 웃기만 하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좀더 노시지 않구...》

형우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화제를 돌려 어머니에게 물었다.

《네 누이가 두부를 맛았기에...》

《여기서도 맛아먹으면 되겠는데 그 먼데서 가져오다니요...》

《누이가 제손으로 맛은 두부를 올케한테 먹였으면 하길래... 그런데 애야!...》

아들의 웃웃을 받아 말꼬지에 걸던 어머니가 안색을 흐린다.

《너 발목을 상했다는게 사실이나?》

형우는 안해가 벌써 눈치채고 어머니한테 다 말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웃으면서 태연히 응대했다.

《어머니도 참,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디 보자!》

다짜고짜로 그의 양말을 벗겨보던 어머니가 혀를 끝끝 찬다.

《원 이렇게 부었는데두 감추다니...》

어머니는 안해가 가져온 옥도정기를 아들의 발목에 발라주면서 호호 입바람을 불어준다. 그러는 어머니를 모노라니 형우는 철부지자식을 키우며 애태우던 때의 어머니모습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일할줄 모르는 사람이 재구만 친다구 내가 아직도 멀었지요?...》

《원 애두, 첫술에 배가 부르겠느냐. 너 그런 소릴 하는걸 보니 무슨 실수라도 한게로구나.》

《어머니, 전 오늘 책임비서동지한테서 말을 들었습니다. ...》

《아니, 무슨 일때문에?...》

《새살림거리 난방용석탄보장을 예견치 못했으니까요...》

《그거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책임이야 다같이 저야지요. 그래서 난 탄부들을 사상동원시켜 탄예비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연을 듣고난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네 맘을 알겠다. 그런데 애야, 이 늙은게 뭐 좀 도와줄게 없겠느냐?...》

《어머니까지야 뭐...》

형우는 웃었다. 어머니도 빙긋이 따라웃는다.

《애두, 당에서는 당일군가족들부터 나라에서 걱정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줄것을 바라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난 며칠전에 신발수리소알을 지나다가 늙은게 구두약칠이라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다 생각해봤단다. 호호...》

《어머니가요?...》

《왜? 군당부원의 예미가 그런 일을 하면 못쓴다더냐?...》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형우는 웃지 않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곁에 앉아 소설책을 보는척하는 안해에게로 시선이 갔다. 순간 눈길이 마주친 안해는 당황히 고개를 숙여버리였다. 쌍검진 눈언저리가 벌거우리해진 그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비껴있었다.

(참 내가 안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형우는 신발수리소란 말이 나올적마다 안해부터 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에!-...》

그는 당치 않은 일에 스스로 화를 내듯하며 옷방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몸을 일으키다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목에 힘을 줄수가 없었던것이다.

《애야, 이 발목이 아무래도 심상찮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였다.

《찜질을 해야겠다. 그럼 좀 나올게다...》

안해가 세수대야에 찬물을 떠다놓고 부지런히 찜질을 하더니 동통이 좀 멎었다.

《이젠 좀 눈을 붙이세요.》

안해가 불을 끄고 아래방에 내려갔으나 형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고즈넉한 방안에서는 벽시계가 쉬임없이 똑딱거리고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신발수리공이 구두밑창에 못을 박을 때 울리는 똑딱마치소리처럼 느껴지였다.

형우의 눈앞에는 아이들을 잠재워놓고 불밑에 앉아 별목공들의 신발을 수리하고있을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문득 아래방에서 쑥덕쑥덕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이건 병어리장갑이 아니세요?...》

안해의 조심스런 목소리였다.

《오-래일아침에 형우가 탄광으로 출장을 떠난 다기에...》

《또 출장을 간대요?...》

저지기 놀라는 안해에게 어머니는 달래는듯한 어조로 말해주고있었다.

《이제 곧 새살림거리에 입사를 하게 된다는구나. 주민들이 새집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자면 석탄이 더 있어야 한다질 않겠니. 그래 탄부들을 불러일으키려 간단다. 그애 가는편에 탄부들에게 도움이 될가 해서 내 병어리장갑을 지어보내려고 한다...》

《어머니, 가위를 인주세요...》

《일없다. 내가 하마...》

어머니는 가위를 빼앗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는것 같았다.

형우의 눈기슭에 이슬이 고이였다. 그는 목구멍을 짹 메우는 뜨거운감을 느끼였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북받쳐오른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탄광에 출장갈적마다 병어리장갑을 지어보내곤하였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세자식을 키우느라고 수고해오신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많아 집에서 쉰다. 그러나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남편이 못다하고 간 일을 하겠다면서 손이 놀새 없다. 짬짬이 분토를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는가 하면 인민소비품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파지, 파고철을 주어모으기도 하고 해마다 돼지를 길러 주변 인민군부대에 가져다주기도 한다.

아!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일하고있는가? 혁명의 3 세인 내가 2 세들에 비해볼 때 너무도 뒤떨어져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나는 안해에게 신발수리공을 하라고 강경히 요구하지 못하였는가? 군당부원의 체면을 생각해서였던가?...

형우는 당신이 신발수리공이 되라고 하자 그게 정말인가고 묻는 안해에게 통담이라고 했던 자신이 역겨워났다. 그는 비로소 지금껏 자신에게서 불안을 느껴온것이 무엇때문이었던가를 어렵것이나마 깨달은것 같았다.

나는 안해에게 꼭 신발수리공이 되어달라고 말해야 한다. 인민이 바라는 일에 선뜻 어깨를 들이밀지 못한다면 무슨 당일군의 자격이 있는가. 만약 안해를 설복시킬수 없다면 내 자신이라도 신발수리공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형우는 밤새껏 안해의 마음속깊이 들어가 그의 심금을 울릴만한 말마디들을 고르고 골랐건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에 부어오른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을 나서려는데 안해가 그의 걸음을 멈춰세웠었다. 《여보, 그 다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간다고 그러세요?...》

《걱정마오, 다리가 부러지기야 하겠소...》

《좀 기다렸다가 낫뻐스를 타고가면 안되겠어요?...》

《한시간이 새롭소...》

《그럼 가시다가 아무 자동차라도 세워달라고 하세요, 네?...》

《물론 세우면 태워주겠지. 그러나 건설장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지체시켜서야 되겠소?...》

《당신은 어찌면...》

안해는 자기의 진정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을 섭섭하게 여기는듯 눈물이 글썽해진 눈을 내리깔았다.

형우는 그런 안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안타까이 쳐다보다가 그냥 집을 나서고말았다.

그는 동구밖까지 가서야 안해에게 할말을 놓친 자신을 후회하였다.

탄광에 도착하자마자 형우는 안전모를 쓰고 막장으로 들어갔다. 그의 선동은 일군들과 탄부들을 감동시키었다.

탄부의 가족들까지 떨쳐나서 도와나섰다.

흰눈이 펄펄 내리는 날 형우는 마지막 자동차에 석탄을 가득 싣고 군을 향해 떠났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석탄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새살림거리에 입사를 한 주민들이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겨울을 날수 있게 된것이다.

형우는 운전칸뒤벽에 몸을 기댄채 잠들고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형우는 자동차가 덜컥 벗어나는바람에 깨여났다.

《다 왔습시다...》

운전사가 알려서야 형우는 눈을 비비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새살림거리의 살림집들에 입사가 끝났던것이다.

차에서 내린 형우는 마치도 수도의 네거리에 나선 사람처럼 화려한 거리를 황홀경에 잠겨 바라보았다.

해빛이 반짝거리는 창문들이 그를 반겨 웃는것 같았다. 그런가 하면 각이한 모양의 건축형식을 자랑하며 줄지어 늘어선 식당, 양복점, 책방, 상점들이 그를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기도 하였다.

형우는 문득 신발수리소라고 쓴 간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네온등으로 글자를 부각한 간판이 너무도 희한해서만이 아니었다. 읍에서도 제일 막바지 골목에 있던 신발수리소가 뻘스정류소

앞 네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옮겨앉았기때문이었다.

형우는 언젠가 봉사에는 선후차가 따로 없다고 하던 책임비서의 말이 되살아났다. 그리고보면 신발수리소를 새살림거리의 한복판에 앉힌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그런데 새집에서 혼자 신발수리를 하고있을 녀인을 생각하니 형우는 어쩐지 마음이 알찌근했다. 아니 끝내 안해에게 신발수리공이 되라고 말을 하지 못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났다.

남편을 먼 산판에 떠나보내고도 생활에서 한점의 마음속 그늘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손님들의 질긋은 신발을 수리해주고있을 녀인, 그에게 내 무슨 낯으로 구두수리를 맡길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그는 수리소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녀인에게 고무적인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싶었던것이다. 방안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두가 형형색색의 구두와 신발을 들고와서 순서를 기다리고있었다.

《수고합니다!-》

형우는 누구에게라없이 인사부터 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군당...》

재봉기를 돌리던 수리공녀인이 여느때없이 반가와하였다.

《그새 통 보이지 않더니...》

《출장을 갔댔지요, 탄광에...》

《그런걸 난 또 봉사성이 없다고 노하셨는가 했지요...》

녀인이 생긋이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형우는 그동안 퍼그나 쾌활해진 녀인을 보자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새집에 이사오니 성수가 난게지요?...》

《왜 그러쨌어요. 꽃같은 새각시가 수리공으로 들어와서 일자리가 폭폭 나는데...》

《새각시라니요?...》

형우는 녀인이 슬쩍 눈짓해보이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금 안방에서 나와 구두솔을 들고 수리공의 빈자리에 앉은 안해와 눈길이 마주친것이였다.

(아니 당신이?...)

형우는 마치 꿈을 꾸는게 아닌가싶어 안해를 멍청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자 안해는 얼른 머리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우고 몸을 돌리고 앉아 구두약칠을 하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구두솔이 자꾸 빛나갔다. 몹시 당황해진 모양이었다.

형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신발수리소에 나오기까지 안해의 심리적고충이 충분히 리해되었던것이다.

그 순간 그는 와락 달려가 안해를 포옹해주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다.

《여보, 고맙소!-...》

형우는 마음속으로 안해에게 따듯이 속삭이며 눈을 습쩍이었다.

《어서 구두를 벗어주세요,》

수리공녀인이 재촉해서야 형우는 당황히 손을 내저었다.

《난 수리를 하러 온게 아닙니다.》

《그럼?...》

《그저 약질을 줘...》

《그래요! ...》

녀인이 구두를 받아서 안해에게 넘겨주었다.

형우는 남편의 구두를 받아들고 약질을 하는 안해를 지켜보다가 녀인과 눈길이 마주치자 어물쩍 화제를 돌렸다.

《아주머니, 요즘도 벌목공들이 신발수리를 맡기려 내려오군합니까?...》

《아니요. 이젠 이동수리를 가게 됐으니까. 우린 참 할일이 많고많아요. 여기다가 신발기계를 가져다놓고 신발갈은것은 주문봉사해드리자고 해요.》

《힘들겠는데...》

《힘이야 들겠지요. 하지만 이동수리랑 해보니 더 큰걸 해보고싶을만큼 신심이 생기더군요...》

형우는 흥분에 넘쳐 자기들의 구상을 터놓는 녀인을 감동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요!-》

문득 안해가 약질을 끝낸 구두를 내놓고는 고개를 꼭 숙인다.

구두가 번쩍번쩍 빛이 난다.

형우는 수고를 한 안해에게 무엇이냐고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새각시가 닦아주니 너무 좋아서 어쩔줄을 모르는구만...》

로인이 룡조로 한마디 하는바람에 손님들이 와웃음을 터치었다.

형우는 당황히 얼굴을 붉히며 약질값으로 1원 짜리를 내놓기 바쁘게 수리소를 나섰다.

《여보, 나머지돈!-...》

뒤따라 울려나오는 안해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선 순간 형우는 어쩔바를 몰랐다. 저도 모르게 《여보!》라고 부른 새 신발수리공이 군당부원의 안해라는것을 알아차린 녀인과 손님들이 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형우는 얼굴을 붉히는 안해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여겨져 정겨운 미소를 보낸채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룡남산의 새벽노을밑에서

변홍영

새벽노을이 불타는
이 산마루에 오르면
내 가슴은 커진다
마치도 세계의 령마루에 올라
선듯
크나큰 자부에 차넘친다

내 다만 여기서
학창의 꿈을 키운 그 궁지만
이 아니다
아직은 탐구의 첫 문어구에서
있던 그 시절
세계를 다 아는듯이 두툼한
책을 끼고
대학도서관으로 들어서던
20대 청춘의 그 랑만도 아니다

그 시절은 이미
세월의 한끝에 추억으로 남았다
내 여기를 떠나 먼길을 걸어
왔노니
귀밑머리 흰서리는 감출길 없
어도
대학모를 눌러썼던 그때처럼

이 산마루에 오르면 누를길
없구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젊은날
의 그 흥분을

나는 본다
장쾌하게 열려오는 조선의 새
벽을
누리에 펴럭이는 붉은 기폭인양
아침노을이 온 하늘을 덮으며
불타오름을
내 가슴속에선 장엄한 음악이
울린다

그렇다, 내 가슴을 불붙이는
저 노을은 이미
우리의 하늘에서만 불타는것
이 아니다
조선이 추켜든
꺼지지 않는 사상과 리념의
빛발로
온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았노니
오, 들으라, 내 지금 여기 올라

가슴속 격정을 터치는 목소리
보풀인 작은 수첩장우에
남몰래 적어넣던
대학시절의 첫 흥분이 아니다

타오르는 주체의 노을로
누리를 덮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신
념의 맹세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오늘도 여기서 온 우주에 울
려가고있나니

저 불타는 노을속에 의지를
벼리고
위대한 그이를 따르며
혁명의 폭풍을 호흡한 전사
내 한생을 다 불태워
그 노래에 작은 가락이나마
보탬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리라
그것이 내 여기서 가슴속에 새긴
내 생의 숭고한 목적이 아니더냐!

평범한 생활의 본질과 미적탐구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에서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에 실지 있는 인간이어야 하고 사람들결에서 늘 같이 숨쉬고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안겨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일부 소설들이 인민들속에 널리 읽히우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작품에 펼쳐진 생활과 현실생활사이에 간격이 있고 인물들이 대체로 리상화되어있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소설문학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당에서 바라는데로 자화자찬, 미화분식을 극복하고 소설창작에서 진실성, 과학성,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작품에 펼쳐진 생활과 현실생활사이의 간격을 줄이며 인물들을 리상화하지 않고 진실하게 형상하는 여기에 소설문학에서 진실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길이 있다.

이로부터 필자는 이 글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심오한 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소설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일부 소설이 친숙감이 멀하고 사람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인물이 대체로 리상화되어있는데 있다. 현실의 인간보다 비할수 없는 높이에 올라있는 인물의 형상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소설은 마땅히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초월하는 인물을 꾸며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생활에서의 비상한 이야기나 기적적인 사실을 두고 흔히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소설에 담겨지는 이야기에 대한, 소설적흥미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리해가 반영되어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소설을 어떻게 리해하고있는가 또 어떻게 리해하여왔는가

를 알게 된다. 그에 의하면 현실에서 보는 평범한 이야기, 우리가 늘 목격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소설과 인연이 먼것으로 인정된다. 소설의 이야기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너무도 범속한, 하등 흥미의 가치를 못가지는 그러한 생활로 되는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도 수긍되는 점이 없는것이 아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극적이어야 하고 아무튼 흥미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이 소설이라는 문학형태의 특성, 더우기는 사실주의소설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오늘에 와서 비상한 사실이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소설의 내용속에 얼마든지 포함되고있기때문이다.

이제와서 독자들은 비상한 이야기의 흥미보다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추구에 더 관심을 가지며 자기들과는 비슷지도 않은 어떤 멀고도 높은곳에 서있는 인간, 말하자면 리상화된 인물형상들보다는 자기 주위의 평범한 인간들의 형상에 더 주의를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활에 체현되어있는 진리에 그 심오한 사색과 철학에 보다 더 의의를 부여하는것이다.

생활의 진실에 대한 추구, 이것은 사실주의소설의 근본특성이며 원칙이다. 생활과 떨어져서는 소설을 아무리 미끈하게 꾸린다고 하여도 참된 의미에서의 흥미는 이미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생활에 비하면 무색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생활이라는 거창한 대해의 물결에 비하면 그러한 소설의 이야기라는것은 한갓 유치하고 보잘것 없는것이다. 오직 생활의 진실에 투철한 소설만이 강한 견인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작가의 창작은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사색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그의 열정은 끝없이 타오르나 그의 창작은 항상 생활의 법칙에 의해 방향지어지며 그에 종속되게 된다. 생활의 본질, 그의 리성은 랭철하며 그의 필연성은 가혹하다. 때로 그것은 작가를 무시하며 작가에게 도전한다. 작가는 그것이 아무리 동정심을 자아내는것이라 할지라도 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설사 그 사실이 누가 말한것처럼 작가자신의 동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다.

김삼복의 중편소설 **《향토》**의 주인공 오근풍의 형상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어쩌면 그에게도 보다 온화한 행복이 차례질수 있지 않았

을가. 왜 그는 홀몸으로 살며 것처럼 어려운 일을 감당해나아야 했는가. 그리고 도형이네는 왜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가. 과연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말인가. 어찌하여 시간은 그(오근풍)를 어쩔수 없는 최후의 시각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강복례의 중편소설 《먼 산촌에서》에서의 두 남녀주인공이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듯 랑만적이었고 그들의 희망과 포부는 그렇듯 황홀한 것이었던만 생활은 조금도 양보를 몰랐다. 《꿈》은 현실에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꿈》에서는 자유로웠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그들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불가피한, 그렇게밖에 달리 될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었다. 이 소설에서 성격적개성들이 우리에게 것처럼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이 소설의 생활에의 충실성에 있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백보흠의 중편소설 《우리의 빛》을 비롯한 우리의 일부 장중편소설들이 심오한 내용과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기는것도 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생활에서는 언제나 모든것이 그렇다. 바로 그렇게 작가 천세봉은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를 창작할 때 장길봉의 최후를 쓰면서 울었다.

인간들의 운명의 필연은 대가들도 어찌하지 못하는것이다. 대가일수록 그는 자기자신의 의도와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것을 포기하며 더욱더 생활에 복종한다.

그렇다면 작가의 창작적작업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할일이 없어졌는가. 작가는 생활의 료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공의 뒤를 다만 충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말인가. 하다면 구태여 생활탐구의 필요성이 어데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작가가 생활을 연구하고 성격을 탐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힘겹고 어려운 창작적작업은 계속된다. 작가는 무엇보다 생활의 합법칙성을 틀어쥐여야 한다. 생활의 합법칙성을 발견하여야 하며 그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기전까지는, 생활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기전까지는 아직 인물들을 한결음도 움직여나갈수 없다. 그런 작가는 어두운 밤길을 걷는 길손과도 같다.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수도 있으며 허허벌판에서 온밤 헤매일수도 있다. 합법칙성을 인식한 작가만이 모든것을 환히 볼수 있다. 길은 얼마나 멀고 길가의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애물은 어떤것이 있고 지름길은 어데로 뻗어있는가. 그리고 강물은 얼마나 깊고 언덕길은 얼마나 가파로우며 벼랑은 얼마나 험한가. 종착점은 어데쯤인가. 그 길을 가자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갖추고 힘은 어느정도 축적해야 하는가 하는것들을 타산할수 있다. 말하자면 생활과 성격을 지배하는 이 합법칙성을 인식한 토대우에서만 작가는

그 합법칙성을 자기의 창작에 리용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창작적작업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원리에서 류사하다. 창작은 생활의 법칙의 인식이며 이 법칙에 의한 인간형상들의 창조이다. 이 법칙의 인식을 떠난 작가의 창작은 언제나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작가의 주관, 리상, 념원은 한갓 공상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들가운데 현실의 생활보다 자기자신의 주관과 《리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작가가 있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의 창작을 상상해볼수 있다.

아마도 그는 생활을 가공하며 생활에 자기식의 수정을 가하며 또 필요하다면 아무때나 그것을 《창조》할것이다. 주인공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면 열정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의지가 필요하다면 의지를 부여할것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은 보태주고 과격한 성격에는 온화한 성품을, 부족점에는 우점을, 치욕에는 명예를 더해줄것이다.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럽게 말하게 하며 슬퍼해야 할 장소에서는 슬퍼하게 하며 모두 웃을 때는 같이 웃을줄도 알게 할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붓끝에서 가장 《리상적인》 인간의 형상이 창조된다. 그래 이것이 생활에 대한, 그의 합법칙성에 대한 외곡이 아니란말인가. 이것이 그 자화자찬이 아니고 미화본식이 아니란말인가.

그러한 작가에 의하여 씌여진 소설은 또 어떠할것인가. 그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 무슨 교재와도 흡사할것이다. 혹은 행동의 준칙이나 심하면 지어 공식과 같은것을 상기시킬수도 있다. 두말할것없이 그러한 작품에서 인간은 성격에 의해서보다는 어떤 사회적규범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보다는 어떤 《도덕적정표》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될것이다.

어떻게 이런 형상에서 피도 살도 눈물도 있는 인간, 불행도 고통도 슬픔도 있고 기쁨도 행복도 희망도 있는 인간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서 내가 잘 아는 고뇌, 내가 잘 아는 그 유년시절의 회상, 그 놀이감 또 내가 잘 아는 첫사랑의 그 말못할 심정 그리고 우뢰치는 밤과 그 하늘과 숲속의 그 무시무시한 오솔길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러한 인간들의 형상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교육학적》 요구와 표정들에 의한 각종 훌륭한 품성들의 복합체인것이다. 그런데 각종 색소를 뒤섞으면 무색으로 변하듯이 그것 역시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는것이다.

교육에서는 이렇게 하여야 하고 저렇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모범학생이나 훌륭한 인간육성에 관한 교양을 할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그것을 교육학적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문학창작이란 산 인간의 개성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설의 생활과 현실의 생활사이 간격이 있을 때 더우기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지 않은 소설가들은 자기가 자신을 구축하는, 말하자면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하는 그러한 창작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생활의 바다를 두려워하며 그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다만 실개천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 소설들에서는 소설의 인간과 현실의 인간의 차이와 간격을 줄이는것이 아주 필요하다. 소설의 인간형상을 현실생활의 인간에 가깝게 더가깝게 접근시키자. 그리고 현실생활의 다양하고 풍만한 바다에 대담하게 망설임없이 뛰어들라. 현실생활에 있는 모든것이 문학적형상의 대상으로 된다. 생활이 있고 인간이 있는곳에는 문학도 있다.

생활, 그것은 끝없이 넓고 한량없이 깊으며 쉬임없이 뒤설레는 바다이다.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이 명제에는 예술적흥미에 대한 심오한 해명이 주어져있다. 비상한 생활에 대한 현상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하는것, 그것은 더욱 필요하다. 실상 거기에 높은 작가적기교가 있다고 말할수도 있다.

진정한 예술의 미는 어떤 비범한 성격이나 비상한 생활 또는 기적적인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생활의 가치도 높이 볼줄 안다. 사실주의문학의 력사는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시가 있고 예술이 있다는것을 수많은 증명하였다. 실지 사실주의의 대가들은 특이한 생활 그자체를 미학적리념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실사 비범한 인간성격을 다루는 경우에도 거기에서 평범한것, 일상적인것을 보았으며 그에 주로 많이 관심하였다.

모든 비범한것은 그것이 아무리 비범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비범한것일수록 훌륭한것일수록 그것은 더욱 그렇다. 아니 그것은 인간적인것이기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비범한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떠난 비범한것, 훌륭한것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심오히 체현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높이 발

현되게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에서 비범한것, 훌륭한것은 결코 초인간적인것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것이며 평범한것이며 현실에 있는것이다. 그것은 리상이거나 꿈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 생활의 하루하루에, 평범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비범한것, 비상한것, 훌륭한것 등을 평범한것, 일상적인것, 현실적인것 등과 분리시키거나 대치시키지 않는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리와 대치로부터 성격의 리상화, 형상의 비진실성이 초래되기때문이다. 비범한것은 평범한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평범한것은 비범한것을 자체에 포함한다.

만약 우리가 소설에서 레하면 지배인이나 관리위원장 등 지도일군들의 형상을 단지 그들의 직무상의 무로써만 구별할수 있고 거기서 인간적감정 말하자면 고민, 기쁨, 슬픔, 행복과 같은 풍부한 내면생활을 볼수 없다면 그러한 성격은 사실상 무가치한것이다. 적지 않은 소설들에서 우리가 도식적인 《지배인》, 도식적인 《관리위원장》을 보게 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어떤 직무에 앞서 인간을 보여주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리태운의 단편소설 《사랑》(《조선문학》1992년 9호)을 좋게 보고 있다. 이 소설에는 인간으로서의 관리위원장이 형상되어있다.

흔히 우리는 일군들의 형상을 창조할 때 그들이 될수록 원만하고 훌륭한 표정들을 부여하기 좋아한다. 그것은 옳다. 아무튼 훌륭한것이 나쁘겠는가. 그러나 그 내적요인이 간략화되어있고 성격이 일상생활로부터 떠나 많은 경우 기정사실화되어있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깊은 공감을 가지고 받아들일수는 없다. 공감이 없는데서 문학특성은 벌써 희박해진다.

단편소설 《사랑》의 주인공 현심은 처녀관리위원장이다. 그의 내심세계는 우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여 처음 이 소설의 1절을 그닥 흥미있게 읽지 못하였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소설자체를 시답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 우리는 관리위원장 사업에 착수한 현심의 모습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는 이른새벽부터 벌판을 돌아본다. 이신작을 일군들의 미덕으로 알고있는 그는 김매는 기계가 지나간 자리에 벼포기 몇대 넘어진것을 보고는 그것을 일으켜세우기도 하고 여기저기 김이 눈에 띄우면 김을 뜯고 벼뿌리를 굽으며 나가다니니 거기서 아침해가 솟아오르는것을 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스개소리로 떠들썩한 농장원들의 발머리칠참에 끼여들기도 한다. 그렇게 오전 한것이 지나간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현심의 내심세계를 엿볼수 없다. 그가 무엇을 생각

하는지, 어떤 기분에 잠겨있는지, 그것이 평범한 것인지 고상한 것인지 아직은 알수 없다.

그런데 이때 관리부위원장이 그를 찾아온다. 남산봉밀 농촌주택건설에 쓸 목재를 해결하는것 때문에 현심이 그를 보냈던것인데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것이다. 어쩐지 일이 꼬이는것이 마음에 언짢았다. 그는 수산분조장을 만난다. 목재문제를 해결하는것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장면을 보기로 하자.

《불시에 배속에서 쏘르륵 소리가 났다. 뒤이어 짜늘한 전룡같은것이 온몸을 휩쌌다. 현심은 그 체서야 자기가 여직껏 아침도 안먹고 돌아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온몸이 노근해지며 땀이 오싹 났다.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때에 먹으라고 합숙어머니가 콩을 닭아서는 바가지에 담아 머리말에 늘 놔주는데 다른 일에 몰해있다니니 빈번히 이런 실수가 되풀이된다.

(참 코코에 말썽이라니까.)

현심은 딱히 무엇이라고 찍어말할수 없는것에 화를 내면서 분조장을 불러가지고 분조실로 들어갔다. 앞뒤창을 활짝 열어놓아 방안은 바깥보다 오히려 서늘했다.

《얼마나 잡았대구요?》

앉은뱅이책상옆에 쪼그리고앉으며 현심은 분조장을 치며보았다. 쟁충한 키에 가슴이 훌룩한 분조장은 벌써 땀가 좋지 않은 예감에 앉지도 못하고 문결에 서성거렸다. 그것이 또한 현심의 부아를 더 돋게 했다. 자기의 정당성을 확신한다면 내앞에서도 당당해야 할것이다.

관리위원장동무, 난 그렇게 못하겠수다.

왜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가.

안타깝게 쪼그리고앉아 초들초들 마른 입술만 감싸는 현심의 모습은 보기에도 측은하리만치 초췌했다. 살이 쏙 빠지고 눈확이 꺼먼데 《멋쟁이소조》라고 불리우던 그 시절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범상히 읽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심의 심리감정상태를 방불히 본다. 그의 기분, 그의 감정, 그의 마음이 보인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서 오는 초조감, 그로부터 느껴지는 짜증비슷한 감정, 그리고 육체적피로에 겹친 시장기...이런것들이 그가 관리위원장이긴 하나 어쨌든 처녀라는 그것을 부인 못하는데서 오는 기분상태인것이다. 이러한 기분상태, 이것이 그의 개성의 일부이며 바로 그때문에 그의 형상은 진실한것이다. 사실 분조장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에게 화를 낼 일은 조금도 없는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관리위원장의 자세는 아니였다. 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 할것이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인것이다. 그런데 생활은 언제나 그렇게만 되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이 소설에서

처럼 기대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관리위원장 현심의 성격형상에 손상으로 되는가. 그것이 흠인것은 사실이지만 소설에서 그것을 무시해버릴 필요는 조금도 없다.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실감을 준다. 관리위원장이라고 하여 시장기도 모르고 화를 낼줄도 모르는 인간이겠는가.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개성을 가진 인간인 그 처녀 리현심의 성격적매력이 있다고 보는것이다. 이것이 현실의 인간이며 이것이 사실적문학의 그 진실이다.

...현심은 다시 분조장을 통하여 이번에는 림옥의 차를 나무실으려 보내도록 조직한다. 그런 다음에도 또 누에가 석잠에서 깨어났다는 양잠반지원사업조직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장마철걱정때문에 마음쓴다. 농장의 세대주가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림옥이 제 배짱대로 논다는 말이 들려온다. (실은 잘못 전달된것이다) 또 다시 현심의 속은 좋지 않다. 그는 림옥이를 오히려 한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짐작이 갔다. 분조장이 통안에 올라가라니까 우물렁거리며 내뿔을것이다. 그리고 작업반에 가서는 관리위원장이 농장원들의 생활에 무관심하다고 투덜거리겠지.

까맣게 잊고있던 부임 첫날의 일이 떠오르면서 림옥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탁아유치원에 공급되는 물고기를 실은 소형자동차가 앞에 와 몇더니 운전수가 차문을 열어잡고 소리쳤다.

《타십시오, 관리위원장동지.》

현심은 무심히 한발을 내짚다가 이내 도리를 저었다.

《가세요, 잠깐 들렀다갈데가 있어요.》

얼결에 거짓말을 하고나서도 그는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실은 림옥의 차를 타고가려 하지 않았던가.

길은 벌써 뜨겁게 달아있었다. 그 길로 현심은 걸어들어왔다.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테다.

걸음마다 으벼르며 마을에 다달은 현심은 합숙이 아니라 관리위원회로 곧장 들어갔다.

림옥이가 제발로 현심을 찾아 합숙마당에 들어선것은 해질무렵이었다.

식당어머니를 도와 토방앞에서 풋배추를 다듬던 현심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만 팔을 내밀면 달을듯 바투 와 밟은 신발교송이의 기름얼룩을 보며 신발이나 좀 빨아신을게지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알게 되는 그 처녀의 마음이다. 《그러면 뭘니까?》라고 할만큼 그의 행동은 관리위원장답지 않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한다. 독자들에게 그 좁한 아량은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협소하지 않은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개성에, 그 진실에 공감

한다. 왜냐하면 그것때문에 그의 긍정적주인공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그는 성실하며 헌신적인것이다.

그 어떤 인간의 생활에도 평범한 일상사는 있다. 설사 그가 비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거기서 자기들과 비슷한것, 자기들에게도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기때문이다.

관리위원장 현심의 성격은 그의 내심세계의 평범성때문에 오히려 아름답다.

현심은 웬일인지 자기가 더욱 옹졸하게 처신하는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감정을 앞세우면서 직권으로 아래사람들을 놀려보려는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것을 그자신도 모르지 않는것이다.

사업에 대한 열중, 사람들에 대한 리해, 자신에 대한 불만, 일욕심과 성실성 그리고 사랑, 이런것들이 농촌생활속으로 그를 깊이 더 깊이 끌어들인다. 이제 그는 조금씩 생활의 진미를 알것 같다. 도무지 익숙될것 같지 않던 그 생활이 그의 마음속 깊은곳으로 서서히 스며든다. 성급하고 우물렁거리기 잘하는 림옥이며 이곳 사람들의 《잠잠지 못한》 룡담이며 그 말투며 어째서인지 그 모든것이 정답게 느껴지는것이다.

한 도시처녀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집을 떠나 생소한 농촌생활에 정을 붙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아붓게 된다는것은 하나의 비범한 현상이며 비상한 생활이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평범한가. 하면서도 얼마나 흥미있는 생활인가.

작가는 현심의 심리를 아주 진지하게 파고있다.

《몸은 오늘도 가볍지 않았다. 욕심스레 차려놓은 누에때문에 요즘 농장에서는 불이 일었다. 현심이기도 어제 밤늦도록 뽕을 뺐다. 입안이 소태같이 쓰고 기운이 없다. 게다가 아까 작업소장한테서 들은 말이 그냥 속에 얹혀있다. 림옥에 대한 칭찬이었지만 꼭 자기를 비웃는것만 같았다. 너한테는 왜 그런 배짱이 없느냐? 그래도 어제날의 소조원이었다구? 과단성있는 일군이랴구? ...

오르락내리락한 산골길을 자전거로 달리기란 짜증날 일이었다. 또 언덕받이다. 옛가락처럼 꼬이는 다리로 자전거를 밀며 그냥 생각한다.

나의 과단성과 림옥의 과단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 확실히 나에게 없는것이 그에게는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프락포르가 덮칠듯 다가오고있었다. 림옥이가 뒀을것이다. 차도 주인을 닮아 성급하고 우물렁거리다. 이상한 사람이야. 남들과 대하는걸 보면 더할나위없이 서글서글한데 날보고는 왜 그럴가?

소조원시절에 그들은 펍 자별한 사이였다. 종종 책을 들고와서는 수학공식이나 외국어단어를 물어보곤했고 비탈발가는 기계를 시작하자부터는 열정적인 토론상대가 되어주었다. 저 기계가

지금처럼 크기가 유모차만해진데는 림옥의 사색이 깃들어있다. 현심이가 관리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만해도 림옥은 지금같지 않았다. 일을 잔뜩 벌려놓고 그 일에 빠져 현심이가 눈코뜰새없이 돌아치자부터 그는 웬일인지 슬며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아닐가?)》

잘못을 저지른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현심이 자신도 자기를 알수 없는것이다. 갈팡질팡하는 자기 마음속의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된지 알수 없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자책인지 기쁨인지 혹은 외로움인지 아니면 정말 그의 생각처럼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것인지 아니, 멀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반대로 가까와지는 그 무엇이 있는것이다. 그렇다. 그 무엇이란 그들의 사랑의 시작인것이다. 그것은 림옥에 대한 야속함, 림옥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림옥이와 그의 고향에 대한, 동시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인것이다.

계속 인용하기로 하자.

《나무를 가득 실은 프락포르가 곁에 와뒀은것은 그가 언덕받이를 절반도 오르기전이었다. 운전칸에 탔던 호송원이 뛰어내리더니 앞을 막아섰다.

《타십시오.》

자전거를 잡은 그는 다른 손으로 현심의 어깨를 부축했다. 현심은 시키는대로 했다. 림옥이가 근심어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눈길을 돌렸다.

《수고했어요.》

현심은 그에게 웃어보이고싶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차는 떠났다. 현심은 등반이에 몸을 실었다. 그담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지 모른다.

군병원앞에 뒀은 프락포르에서 현심을 안아 내릴 때 그의 주머니에서 닳은 콩 몇알이 땅에 떨어졌다. 뒤따르던 의사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림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무엇이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하는가. 많은것이 여기서는 생략되고있다. 다만 병원에 실려가는 현심이와 닳은 콩 몇알뿐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리위원장사업에 한몫 다 바치는 그의 모든 땀과 노력과 고심이 비껴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며 성실성과 헌신성이며 자기 희생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아닌 그의 사랑인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강의한가. 이 아름다움, 이 강의성은 그가 이미 당의 령도를 받으며 소조원시절에 간직했던것이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준비했었다. 현심은 자기가 관리위원장의 일을 감당해내기가 힘들것이라는것, 도시에서 자란 자기가 농촌생활에 애착을 가치는것이 헛치 않으리라는것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것들을 이겨내리라는것도 믿었다.

현심은 관리위원장이긴 하지만 역시 천진한 처녀이다. 때로는 정말 농장의 큰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군다운데가 전혀 없다. 열중할 때는 열중하고 고민할 때는 고민하지만 명랑할 때는 명랑하다.

소독탕크결 잔디판에 누워있는 림옥이를 발견했을 때의 현심의 마음은 말그대로 동심이다.

…눈귀를 한껏 쪼프리고 하얀 이새에선 잔줄거리는 미소가 흘러나온다. 무슨 생각에 잠겼는가. 머리맡에 핀 유난스러운 파란 조팝꽃이 그를 유혹했는가.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부터 키득 하는 웃음이 솟구쳤다. 반가웠다. 장난기가 살아났다. 발은 벌써 그쪽을 내짚는다. 허리는 고양이처럼 착 까부라지고 숨소리는 쉼근거린다.

귀구멍을 간지럽혀줄래야!

길고 가는 풀대 하나를 낚시대마냥 앞으로 내민 현심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장난바치시절의 계집애로 돌아가는 자신을 아련함이 느끼며 림옥이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걸음, 한걸음만 더...

발밑에서 삭정이가 딱 하고 부러졌다.

림옥은 텅기듯 일어났다. 위험한 지경에까지 다가온 현심을 멍하니 바라보던 림옥은 불시에 상체를 뒤로 제끼며 소리높이 웃었다.

제풀에 놀란것은 현심이였다. 풍당 주저앉은 그는 손바닥을 딱 마주치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뭘예요? 여기서...〉

그것은 오래간만에 자기를 드러낸 처녀 리현심의 진짜모습이였다.》

삶에 대한 즐거움, 랑만,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는가. 삶이란 얼마나 좋은것인가. 또한 사랑이라는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숨길수도 묻어둘수도 없는 그 천진하고 진실한 감정이 그의 사랑이며 그의 개성인것이다.

진실, 평범한 생활의 진실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품에 펼쳐진 생활이 현실과 같으면 진실한것이고 다르면 진실하지 못한것이다. 진실을 떠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수 없다. 그것은 진실한 생활속에만 존재하는것이다. 꾸미지 않은, 지나치게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기상천외한것이 아닌 그 평범한 생활속에 있다.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비범한것속에서 평범한것을 볼줄 알뿐 아니라 평범한것속에서는 반대로 비범한것을 볼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것속에서 비범한것을 볼줄 안다는것은 평범한것을 다만 평범하게만 보지 않고 그속에 체현된 깊은 뜻을 볼줄 안다는것 다시말하면 그 깊은 뜻이 안고있는 비범한것을 밝혀낼줄 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가 작품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고상한 생활세계에 끌려들어가게 할수 있는것은 이때문이다. 그것은 고상한 생활세계란 어떤 초인간적, 초현실적 세계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리상적인》 세계가 아니기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미를 떠나 비범한것을 찾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속에도 비범한것이 있고 고상한것이 있으며 아름답고 리상적이며 훌륭한 모든 것이 있다. 따라서 평범한 일상생활도 뜻깊게 그릴줄 알며 늘 보아 이제는 아무것도 볼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상생활도 가장 흥미진진한 생활로 그릴줄 아는 여기에 소설가의 재능이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훌륭한 소설가에게 있어서는 소설적인 이야기나 소설적인 생활이라는것이 따로 없는것처럼 생각된다. 현실의 일상생활도 그의 소설에 일단 옮겨지기만 하면 뜻깊은 생활로 이채를 띠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생활을 과장하거나 분식하는가 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그는 현실에 없는 극을 조성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시적인 성격의 묘사를 위해 허구를 람용하지 않는다. 그 주인공의 성격은 있을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속에서 형성되며 단순한 허구에 기초한 그 생활은 현실자체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 소설문학의 성과작들가운데는 김관일의 단편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조선문학》 1986년 8호)도 들어있다.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에 있어서 이 소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이 소설의 생활은 어떤것인가. 소설이 취급하고있는 생활자체는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석지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이다.

거기서 보이는것이란 아득한 제방과 바다, 광란하는 파도뿐이며 하는 일이란 매일같이 반복되는 돌쌓는 일, 장식작업이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장식작업,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것이 처음부터 매번 다시금 반복된다. 얼마나 단조롭고 따분한가. 아마도 사건에 흥미를 가지는 작가라면 이 생활로는 소설이 될수 없다고 결론한지 이미 오래됐을것이다. 여기 무슨 소설적인 이야기가 있으며 소설적인 생활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 무슨 극이 있고 시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상기 소설의 작가는 다름아닌 바로 여기서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활속에서 상당히 아름답고 랑만적인 생활을 우리앞에 펼쳐보이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아니 그는 어디서 생활을

보충하지 않는다. 또 그는 생활을 분식하거나 수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는 거기있는 생활 그대로를 자기 소설에 옮겨놓고있을 따름이다. 그렇다. 마치 그것을 그저 옮겨놓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청년돌격대원들이 있는 곳이면 어대선들 그들의 작은 집, 휴계실을 보지 못하겠는가. 그들에게는 휴계실이라는 작은 안식처가 있다. 우리 모두는 그 휴계실을 잘 안다. 말하자면 미적 가치라는 것은 전혀 없는 또 실지 거기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다. 그런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간석지건설장의 휴계실이 그의 소설에서는 마치 초원의 유목민들의 집처럼 아름답다.

평범한 생활을 꾸미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그릴 줄 아는 것은 재능을 요구하는 일이다. 소설가는 사건을 첨예화하고 성격을 과장하며 극성을 예리화할 줄 알아야 하는 동시에 평범한 생활을 아름답게 그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소설가의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한 재능의 소유자는 아무때나 필요하면 사건을 첨예화할 수 있으며 성격을 예리화할 수 있으며 극을 긴장시킬 수도 있다. 그에게는 무기가 많다. 그러나 주로 사건에 치우치는 작가는 아무때나 평범한 생활을 자기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극적인 생활앞에서는 쉽게 승리감에 도취되나 평범한 생활앞에서는 무장해제당한다.

단편소설 《청년개척자의 수기》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어전히 우리는 아득한 수평선을 향해 제방을 쌓아나갔고 그 쌓아나간 제방의 길이만큼 우리 〈유목민들의 집〉도 전진하였다. 했으나 것처럼 멀리 뻗어나간 제방의 길이도, 우리 휴계실의 수백번에 걸친 이사도 우리의 생활에는 별로 새로운 의미를 보태주지 못하였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들의 제방기슭에는 파도가 밀려들어 처절쳐서렸고 우리는 3년간을 매일같이 장식작업이라는 판에 박은 한가지 일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휴식참이면 것처럼 뻗드름한 〈유목민들의 집〉 안에서 이제는 늘상 보아 귀뒤통의 기미까지도 눈에 익은 뻗드름한 사람들과 함께 마주앉아 이미 오래전에 판이 난, 역시 뻗드름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3년간의 생활이 흐른 오늘에 와서 불현듯 나는 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의 따분한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주인공의 의식에 비친 생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생활인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롭게 안겨오는가.

《밤이었다. 밖에서는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 바다가대는 내륙지대보다 바람질이 더 세차며 개인날보다도 짙푸른 날이 더 많다. 지금도 무엇하나 가리울데가 없는 제방우로 감싸온 바다바람이 휘갈겨치며 축축한 눈짜락을 우

리의 얼굴과 목덜미에 마구 쥐어뿌리는 것이었다. 휴계실지붕우에서는 밤하늘에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연기가 연통우에 동정을 엮듯 슬금슬금 기여올랐다가는 흰 불어치는 바람에 기겁하여 허둥지둥 어디론가 쫓겨가고 있었다. 그 연통밑의 난로에서는 아직도 따스한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주인공을 둘러싸고있는 생활의 외부적전경이고 어디까지 그의 마음의 우수이고 감정이며 심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자체가 도대체 허구인지 사실인지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그 생활이 진실하다는 것뿐이다.

여기서부터 그의 외부생활의 따분함, 그 하찮은 일상사는 비로소 주인공의 내부생활의 심오한 체험세계와 결부되기 시작한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아바이의 멀쩡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간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었다.

매일매일 판에 박은 듯한 단조로운 생활속에서 별로 위안거리가 없는 나에게서는 그 거짓말에라도 구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에 대한 리해이며 타협인 것이다. 얼마나 솔직하며 얼마나 정직한 진실인가. 얼마나 총명한 생각인가. 그는 생활로부터 배척받았다가 드디어는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다. 광란하는 바다와의 전투가 끝나자 그의 마음속의 광풍도 멎는다. 알 수 없는 그 생활의 온갖 비밀이 그에게 이제는 맑게 환히 드러나는 듯싶다. 그렇다. 생활이란 그렇게 어느때인가는 반드시 리해되는 법이다. 한밤중의 반복작업도, 중대장에 대한 고까운 생각도 그리고 태순아바이의 이야기도 순영이도...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폭풍이 지나간 뒤의 노을 비친 잔잔한 바다가에서 순영이가 한 말은 마치 시처럼 들린다.

《어쩔 이렇게두 아름다울까! 우리의 생활이... 이 간석지와 우린 아마도 땀 수 없는 연분을 가졌는가 봐요...》

얼마나 량만적인가. 생활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설사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며 시련이며 투쟁일 수도 있다. 헤쳐나가야 할 준엄한 폭풍우일 수도 있다. 때로는 쓰고 짙절한 눈물일 수도 있다. 그것은 크나큰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 뜻밖에 찾아오는 영광일 수도 있다. 참된 인간의 삶이란 모든 경우에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에는 시련속의 봄도 있고 고난속의 환희도 있으며 투쟁속의 행복도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 바쳐가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들의 참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우리 소설문학은 이러한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하여왔으며 현재도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인간들의 형상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우리는 널리 알려진 인간들, 소문난 기적의 창조자들, 또는 특출한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그려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흔히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대개 스쳐지나는 일이 보통인 그러한 평범한 인간들의 생활에 주의를 돌리는것도 필요하다. 실상 그들의 형상속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초상이 비껴있고 그들의 가슴속에 수백만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와 정열이 숨쉬고있는것이다. 물론 그들은 뛰어난데도 없고 유명한데도 없는, 력사가 다만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인간들이다. 꾸밈도 보람도

없이 망설임도 주저도 없이 그들의 성실성을, 그들의 마음속의 열렬한 지향을 생활에서처럼 감명 깊게 우리의 다정한 벗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 어째서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량심과 의욕을 충동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작가들의 일이 아닌가. 우리는 작가들이 자기들의 작품에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기울이는 그 애정에 동감을 표시한다.

우리 작가들은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줄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 분야의 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소설들에 펼쳐지는 생활을 현실생활에 보다 가깝게 하고 작품의 사상에술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있다.

애국의 그 참뜻을...

류동호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후산리의 당원들
열다섯톤의 낱알을 나라에 바친
그 투박하고 장알진 손을 잡고
나는 애국의 그 참뜻을 생각한다

이해에도 이른 봄
친애하는 그이의 감사를 받아안은
다섯명의 당원들
또다시 새 땅을 찾아
씨앗을 심어가꾸고있는 그 모습앞에서
나는 애국의 그 높이를 생각한다

조국을 위해
흘린 땀이 적었더나
흘린 피가 적었더나
피로 물든 락동강을 건너온 병사들
포화속을 헤쳐온 녀성보장이들
스스로 분조를 맺고 들에서 사는 로당원들

험하게는 앓아있을수 없어
나라에 하나라도 보탬을 주려고
한두해도 아니고 5년세월
가슴에 안아일꾼 천여평의 새 땅을 밟아보며
그 자욱자욱에 뜨겁게 스민
애국의 참뜻을 나는 새겨본다

앓으면 보이지도 않을 한평의 땅을 위해
런사홀 바위를 깨내던 그 마음
메마른 땅을 그토록 살찌우며
별을 떠나서는 하루도 못사는
뜨거운 그 진정

조국을 위해 피땀을 흘린 공로로도
조국의 부양을 받으며 설수 있는 로병들
오늘도 전화의 그날에 살며
인생의 마지막 한구간도 쉬임없이
조국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앞에
내 깊이깊이 머리를 숙이나니

땅이여 네가 말하라
이삭이여 네가 말하라
나라에 바친 애국미 열다섯톤
이것이 당원의 심장기의 무게
이것이 량심의 무게임을!

아, 붉은 당기앞에서 다지던
입당할 때의 그 맹세를 지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며
조국을 량심으로 받드는 후산리 로당원들
심장속에 살아숨쉬는 그 넋을 안아보며
나는 뜨겁게 새겨안는다
애국의 그 참뜻을!

《행운》에 대한 기대

한웅빈

나는 오래간만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이제껏 년중 겨우 한번이나 휴가를 떠나는것이 고작이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공장에서 긴급히 필요하게 된 추가자재때문이었다.

내가 출장간다는것을 알고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안해였다. 남편이 집떠나는것을 안해가 기뻐한다면 좀 이상할수도 있지만 나의 안해가 기뻐한것은 출장자체보다 출장목적지때문이었다.

《여보, 거기 가면 러판에 들지 말고 집에 가있으세요.》

그곳에 바로 안해의 친정집이 있었던것이다. 나는 허를 찔라.

《놀러가는줄 아는게로군. 공장에서 얼마지나오? 25 리요. 30 리가 거의 될텐데...》

《그게 뭐 멀어요? 시외빠스를 타면 고텐데.》

이쯤되면 나는 잠자코있는 편이 낫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제 몇마디 더 한다면 대뜸 자기네 집에 관심이 없다는등, 자기 부모들이 언제 나를 섭섭하게 해준적이 있는가등 하고 따지고들것이며 나중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데로까지 말을 번질것이 뻔한때문이었다. 물론 그곳에 출장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리에도 그 생각부터 떠올랐던것은 사실이었다. 처가집에 가서 장인장모에게 떠받들리우며 대접받는것이 굉장히 기분좋은 일이라는것을 나는 이미 생활을 통해 충분히 체험한바였다. 게다가 《아저씨, 아저씨》하며 따르는 처제는 또 어쩔고...

《아마 아버지, 어머니 깜짝 놀랄거예요.》

침묵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안해는 가기로 결정이라도 된듯 얼굴이 환해져서 말했다.

《그리고 영옥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편지마다 아저씨 보고싶다는 소리냈는데... 참, 여보, 이번에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세요.》

《사진?》

《아이참, 요전에 당신도 보시지 않았어요? 가만, 내가 그 사진을 어데 두었드라?》

안해는 한동안 여기저기를 들추며 부산을 피우더니 나중에는 자기 가방 옆주머니에서 찾아냈다.

《이것 말이예요!》

그제야 나도 생각이 났다. 사진에서는 눈이며 코, 입 등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인상좋은 청년이 점잖게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그 사진에 따

라왔던 설명도 떠올랐다.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다면, 건강은 사진만 봐도 알수 있었다. 중요한것은 지난해에 우리 집에 놀러왔던 처제가 안해와 함께 다니는것을 그 청년이 본적이 있으며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처제에게는 아주 좋은 짝이었다. 처제의 인륜대사라고 생각하니 하루 희생하는것쯤은 하찮은 일로 느껴졌다.

《중소, 내 들리지!》

나는 큰소리로 말하며 사진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안해는 나의 시원스런 대답에 더 말할것없이 좋아했다.

《영옥이 마음에도 꼭 들거예요!》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녁은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지나갔다.

안해가 아쉽게 여긴것은 두가지였다. 내가 출장차로 가는것이어서 자기네 집에 크고작은 보따리들을 보낼수 없게 되었다는것이 첫번째였다. (나로서는 여간만 다행스럽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쉬워한것은 우리 집 문제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시내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거리의 완공과 관련하여 안해는 그 집을 받도록 하자고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다.

《시 주택배정처에도 가보세요. 그렇게 가만 있으면 거기서 알수 있어요? 보채는 아이 젖준다는 걸 몰라요?》

보채는 아이 젖준다는 말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분야에서는 아이를 낳아 길러본 안해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불임성없고 말주변없는 나로서는 아는 사람도 없는 주택배정처로 가려면 이만저만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데 안해는 매일저녁 같은 말로 성화를 먹었다. 그것때문에 다툼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은 한두마디로 그치고 말았다. 출장길은 시행정경제위원회쪽으로가 아니라 안해의 집쪽으로 향해있때문이었다. 이것 역시 나로서는 다행이었다.

물론 나도 새집에 가고싶은 생각이 없거나 방이 한칸쯤 더 있으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안해보다 더 간절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일로 뛰여다니고싶지는 않았다.

또한 저절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행운을 믿는 듯한 기대때문이기도 했다. 나에게는 대체로 그런 습관이 있었다. 습관이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어떻든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그런 기대가 떠나본적이 거의 없었고 또한 그럭저럭 때늦게나마 실현되곤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서 처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지금 스물세살이니 한창나이라고 할수 있었다. 내가 그를 본게 언제였던가. 처가집에 갔던것이 작년말이었으니 반년나마 지난 셈이었다.

그때 그는 나를 바래주려 역에까지 25 리를 걸어나왔었다. 장모의 지나친 《배려》덕분에 뼈스를 놓쳐버린때문이었다. 배낭에 이것저것 쑤셔넣다가 채 못넣으니 보따리를 하나 또 만들었다.

《가만있으라니, 남자들이 뭘 안다구? 도시생활엔 이런게 다 그림자네.》

그는 도시에는 풀도 밭도 없고 집과 사람만 있는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내가 부정해도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아량으로만 해석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이든 줄수록 더 커지는법인듯한 어머니의 행복에 양보할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몇번 우리 집에 와본적이있는 처제까지 어머니의 그 행복에 부채질을 해댔다.

《그것두 넣으랴요. 저것두요!》

결국 보따리가 하나 더 《태어나는》 사이에 뼈스는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처제와 함께 역으로 걸어나오게 되었다. 량옆에 크지 않은 포전들이 널려있는 산길이었다. 처제는 무척 즐거워했다. 줄곧 이것저것 묻거나 마을에서 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별참은 말에도 깔깔 웃어댔다. 길에서 만나는 동무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대답하곤했다.

《우리 아저씨야. 바래드리는 길이야.》

누구를 만나던 그에게는 죄다 아는 사람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내 말에 그는 의아해했다.

《같은 리에 사는데 모르겠어요? 아저씨 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라요?》

《동이 뭐냐? 같은 현판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어마나!》

처제는 깜짝 놀랜 소리를 했다.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그는 진정으로 놀라와 했고 리해되지 않아했다.

《서로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웃었다.

《너도 이제 도시생활을 해보면 알게 된다.》

《제가 어떻게 도시생활을 해본단 말이에요?》

《시집오면 되지.》

《어마나!》

처제는 깔깔 웃었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요?》

《왜? 영육이가 어째서?》

《저야 촌뜨기지요 뭐, 참, 아저씨, 엄마가 살아준 답알은 넣었어요?》

이야기는 다시는 그 문제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웃고 계속 재잘거리며 나를 즐겁게 했다. 역에서 헤어질 때에는 웃음대신 눈에 갑자기 물기가 어렸다.

《아저씨, 언제 또 올래요?》

《인차 와야지.》

《자주 오세요. 예?》

눈물어린 맑은 두눈을 보며 나는 그때 그애를 꼭 내가 사는 도시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와서 안해에게 이야기하니 자기는 벌써 그런 작정을 한지 오래다고 고백했다. 사회적으로 농촌처녀들을 도시로 끌어내오는것이 비난을 받는 때여서 말을 못하고있었을뿐이었다. 그는 벌써 어지간히 일을 진척시켜놓았었다. 사진도 그 결과에 생긴것이였다.

그때부터 나는 처제에게서 아저씨가 보고싶다는 편지가 올 때면 그 일을 빨리 진척시켜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받아들이곤했다. ... 눈물이 어렸던 맑은 두눈이 다시 떠올랐다. 마치 그 눈물속에는 간절한 부탁이 어렸던듯했다. 그래! 하고 나는 단호히 결심했다. 이번에 가서 결정지어야겠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지. 처제의 일생문제인데! 나는 저으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영육아, 나를 기다려라! ...

이튿날 아침 나는 역으로 나갔다. 나가는 길로 안해가 자기 동무라고 하던 안내원을 찾았다.

아침식사 할 때 안해가 밤새 생각해낸듯 그에 대한 말을 꺼냈던것이다.

《차표사는데 사람이 많을수 있는데, 안내실에 찾아가세요. 거기 우리 동무가 있어요. 차표를 떼줄거예요.》

《뭐라고 말한단?》

《여기에 다 썼어요. 여기 이름도 썼으니 찾아가서 주기만 하면 돼요.》

하고 안해는 글썽지를 내놓았다. 역시 너자들이란 이만저만 다심하지 않았다. 밤새껏 길떠날 나를 생각하며 이 방도를 찾아냈을것을 생각하니 코등이 시큰해졌다. 이래서 부부간이 촌수는 없어두 제일 가깝다고 하는것인지.

역에는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다. 대합실의 그 많은 의자들도 모자라 앉지도 못하고 서

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차표페는데는 더 복잡할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안내실부터 찾아갔던것이다. ...

안내원은 친절해보이는 직업적인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글썽지를 보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만사가 그야말로 태평해졌다. 여기저기 둘러보느라니 나를 기다렸던듯 의자에 앉았던 몇 사람이 일어나 매표구쪽으로 갔다. 나는 얼른 그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만단시름이 없어졌다.

눈앞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이 가까까지 했다. 한사람이 나의 앞에 와서 물었다.

《X렬차 차표를 지금 땡답니까?》

그것은 내가 타야 하는 렬차였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차를 탑니까?》

나의 대답을 듣는 그는 의아해했다.

《벌써 차표를 땡습니까?》

《아니, 난 저-》

나는 안내원이 나타날쪽을 보면서 어물어물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아, 그런가요?》

그는 부랴부랴 매표구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걸상아래로 다리를 쭉 폈다. 얼마나 편안한가. 나에게서는 차표걱정이란 애당초 없었다. 안해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느꼈다. 이 와중에서 차표를 떼려면 얼마나 동분서주해야 할것인가. 나는 만족감에 겨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 눈을 떴다. 안내원이 나를 찾고있을것 같아서였다.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많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진것이였다. 빈 의자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방금전에 지나간 렬차를 타는 손님들과 바래주는 사람, 마중나온 사람들이였던것이다. 대합실은 조용해졌다.

《아직 시간이 멀었는가?》

하면서 옆에 털썩 앉은 사람이 있어서 돌아보니 조금전에 나에게 말을 묻던 사람이였다. 나는 의아해졌다.

《차표를 땡습니까?》

《땡습니다.》

나는 놀랐다.

《그렇게 빨리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매표구쪽을 보니 서너사람 서있을뿐이였다.

나는 대합실을 둘러보았다. 안내원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일까. 왜 이렇게 늦을가.

《차표를 땡습니까?》

하는 옆사람의 물음에 나는 멍랑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는 무릎을 흔들며 앉아있었다. 무릎은 왜 저리 흔들람. 별난 습관도 다 있지... 그는 차표를 뒤적거리보며 코노래까지 부르고있었다.

《제길할!》

안내원이 나를 잊은것이 아닐가. 혹시 아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게 아닐가. 기다리라고 한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늦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개찰하는데...》

《먼저 나가십시오. 난 좀 있다가...》

그는 이해된다는듯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떡했다.

《그럼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천천히라니? 차시간까지는 10 분밖에 남지 않았다. 차가 들어오기 5 분전이면 개찰구를 닫아버린다.

이미 대합실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개찰구는 텅 비여있었다. 그런데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을가. 나를 잊은것이 아닐가. 안내원의 직업이란 끝없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연속이며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귀찮은 《면담》의 연속이다. 그러니 잊을수도 있다. 그러면 큰일이다. 오늘 못떠나게 되는것이 아닐가.

대합실 벽시계의 팔쪽같은 분침이 차시간 5 분전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야 안내원이 나타났다. 나는 고맙다는 생각도 나지 않았다.

대합실고성기가 웅웅거렸다.

《X렬차를 타실 손님들은 빨리 흠에 나가십시오. 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개찰구로 달려갔다. 개찰구에 서있던 처녀는 급지 않게 나를 치며보았다.

《손님은 어디갔다 이제야 나와요? 차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거 미안합니다.》

나는 서둘러 개찰구를 나가려 했다. 그러나 처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덜미를 잡았다.

《손님! 차표도 안찍고 나가요?》

《아, 참.》

그런데 차표를 어느 주머니에 넣었던지 인차 찾을수 없었다. 주머니를 다 뒤져서야 겨우 찾아냈다.

《개찰할 때야 차표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야지요.》

《미안합니다.》

돌아서 나가려는데 처녀의 성난 목소리가 또 멈춰세웠다.

《손님! 차표는 안가지고 가요?》

《차표?》

나는 차표를 처녀의 손에 맡긴채 그냥 나가려 했음을 깨달았다. 덤벼치며 차표를 받았다.

《빨리 나가라오. 차가 들어와요!》

《예, 예, 미안합니다.》

뒤에서는 처녀의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종알대는 소리가 들렸다.

《별 땔땔한 손님 다 보겠네.》

나는 차에 겨우 매달려 오를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차안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자리를 못잡았는가요?》

하는 소리에 내려다보니 역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편안하게 자리잡고있어서 신문까지 펼쳐들었다. 무릎을 흔들거리며 동정하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것이였다.

내가 대답대신 어색하게 웃어보이자 그는 자리를 좁혀주었다.

《여기라도 걸터앉으시우. 이 손님이 한시간후에는 내린다는데...》

나는 동정의 한조각우에 엉뚱이를 붙이고 앉았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안면》을 찾지 않고 그냥 차표를 뺏더라면 초조해할것도 없이 모든 일이 편안하게 되었을것이 아닌가. 처제보다도 더 어린 처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세번이나 했고 《땔땔한 사람》이라는 결론까지 받았다. 겨우 차에 탔고 자리도 못잡아 무릎흔드는 고약한 버릇이 있는 이웃의 동정을 받아서야 겨우 몸을 걸쳤다. 꼭 무슨 놀림감으로 된듯했다.

차창으로 붙어드는 바람이 얼굴을 선풍선풍하게 했다. 그제야 나는 얼굴이 땀에 젖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허구프게 웃고 말았다...

한시간도 더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편안히 앉게 되었다. 등받이에 기대앉아 열차에서 의례적인것으로 되어있는 통성을 무릎흔드는 이웃과 시작했다.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서 일하는가 등등...

나의 대답은 조금도 놀라울것이 없었다. 별로 크지도 않은 공장 사무원, 가는 목적지도 별로 큰 도시가 아닌 농촌을 끼고있는 중간지대의 도시였다. 용무도 평범했다. 자재인수차.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나를 이만저만 놀라게 하지 않았다. 무릎흔드는 버릇도 더는 고약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주택배정처에 있습니다.》

《배정처에 있다구요?》

《왜 그렇게 놀랍니까? 아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는 말에 나는 저으기 당황했다. 안해와의 이야기에서 배정처가 하루에도 몇번씩 물망에 올랐

다는것을 이야기할수는 없었다. 나는 심상한척 하려고 애썼다.

《배정처라니 무척 바쁘겠군요.》

《바쁜 정도가 아니지요. 요즘은 새살림집거리가 완공을 앞둔 때여서 눈코 뜰새 없습니다. 건설자들은 완공때문에 잠을 못자겠지만 우리는 그 살림집배정때문에 잠을 못자지요. 입사시킬 대상들을 정확히 장악한다는게 간단합니까?》

《거야 물론 그렇겠지요.》

하고, 얼뚱하게 맞장구치면서 나는 머리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분주히 쫓고있었다. 배정처라. 한번 찾아가려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못갔던곳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배정처가 나를 《찾아온》 것이였다.

이런 기회란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것이다. 이런 기회에 낯을 익혀두면 찾아가는것이 자연스러울것이 아닌가. 말이나 몇마디 주고받아서 안면이 두터워질수 없다. 열차에서의 친분관계란 원래 열차의 속도처럼 가속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열차여행이 끝나면 그만큼 빨리 스러져버리는것이다.

마침 가방안에는 장인에게 부어주려고 넣은 목이 오리목처럼 긴 《고려인삼술》 한병과 (안해가 넣어준것이였다.) 다른 용무에 쓸 《대평술》 한병이 들어있었다. 《대평술》 한병이면 안면을 어지간히 두터이 할수 있을것 같았다.

《이거 이렇게 그냥 가려니 지루하구만요.》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다.

《별수 있습니까?》

하고 상대방은 꾸준하게 무릎을 흔들며 철학가처럼 대답했다.

《열차여행이야 지루한 법이지요.》

《그렇다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하고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매끈매끈한 병모가지를 잡아뽑았다.

《자-한잔씩 하면서...》

하고 큰소리치며 병을 올려놓은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손에 잡혀나온것은 《대평술》이 아니라 장인에게 부어주려던 《고려인삼술》이였다.

《아니? 이거 혹시 대사에 쓸려고 가져가던 술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놀랜 소리에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개잡으려고 든 몽둥이에 소가 맞아 넘어진적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바뀌 거낼수는 없었다.

《아, 마개를 열지 마십시오, 난 술은 영 못합니다.》

《나도 술은 못합니다. 그저 적적치나 않게...》

장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뽀루통해진 안해의 얼굴도 떠올랐으나 차라리 잘 됐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배정처 지도원은 아마 열차에서의 《고려인삼술》이 인상적이어서도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울긋불긋한 상표와 황금빛의 술색깔을 통해서라도 나를 기억해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병마개를 따려는 내 손을 잡았다. 《거 뭐, 차안에서 분위기를 흐리며 술냄새를 풍길게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시원하게 이거나 마십시오.》 하고 그는 자기 가방에서 사이다를 두병 꺼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술을 못하는 나로서는 그것이 더 반가웠다.

《하, 이거 미안해서...》

오히려 내가 대접받는격이 된 것이었다.

한고뿌씩 부어놓으니 그것 또한 좋았다. 게다가 사이다병들과 함께 놓여있는 멋들어진 《고려인삼술》이 더 운치를 돋구었다.

드문드문 한마디씩하며 서먹서먹하고 지루한 침묵을 지키던 우리는 침묵이 끼어들사이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하게 되었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면 《자-어서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하는 식으로 서로 권하는 맛 또한 괜찮았다.

남조선 정세, 캄보자의 앙코르와트 재건, 굶주리는 세계의 빈민층들, 자본주의사회의 실업대군들, 뉴욕의 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에서 론의 되었고 재평가되었다.

《세상일이란 참...》

하고 한숨도 쉬고 개란도 하던 나는 열차방송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깜짝 놀랐다.

《지금 도착하는 역은 덕흥역입니다. 내리시는 손님들은 덤비지 말고 오른쪽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덤비지 않을 수 없었다. 덕흥은 내가 내려야 할 역이었던 것이다. 덕흥역에서 열차는 1분밖에 서지 않는다.

열차는 벌써 역구내에 들어섰고 멎어서고 있었다. 이야기에만 취하여 이미전에 알리는 소리를 흘려버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덤비치며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내립니까?》

상대방은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래여 쳐다보았다.

《예. 내립니다. 자-그럼.》

할 말은 기가 막히게 많았으나(아직 한마디도 못했었다.)한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 아, 이걸 가지고 내리십시오!》

지도원이 따지 않은채로 놓여있는 《고려인삼술》을 들고 소리쳤으나 나는 손을 저었다.

《거기서 쓰십시오. 후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소리친 나는 승강구로 달려나갔다. 내가 흠에 내려서자 기차는 기다렸던듯 덜컹하고 움직였다. 지도원은 병을 손에 든채 일어서서 차창으로 나를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그도 손을 저었다.

(아주 잘됐어!)

이제 출장을 끝내고 돌아가 배정처로 찾아가면 그도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가방은 《고려인삼술》의 무게만큼 가벼워져 묵직한 감을 잃었으나 마음은 흐뭇하기만 했다. 아마 안해가 오늘 열차칸에서의 나를 보았더라면 《아유, 당신에게 그런 재간도 있었어요?》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았다. 이 세상의 남편들이란 좀 어리석은데가 있어서 안해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

《잘됐단 말이야.》

나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일생에 이렇듯 성공한 《외교》는 처음인 것 같았다.

《안경찬동무가 있습니까?》

접수원처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내다보더니 말했다.

《출장을 갔는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나의 귀에는 어디서 왔는가는 물음은 마이동풍격으로 지나가고 출장갔다는 소리만 벼락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언제 떠났습니까?》

《닷새쯤 되었어요. 매일에는 옵니다.》

그제야 좀 안도의 숨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며 뻔히 쳐다보는 처녀의 눈길에 나는 공연히 얼굴이 화끈해올랐다. 중년에 이른 사람이 처녀의 눈길에 얼굴이 화끈해졌다면 우습게 들리겠지만 내가 얼굴이 화끈해진 것은 안경찬을 찾는 이유를 처녀가 어느새 알아차리고 묻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저-그저 좀... 옛날 친군데... 그럼 매일 또 오겠습니다.》

다급히 얼버무리고 나는 접수구에서 물러났다. 맥이 풀렸다. 그가 없으니 출장용무도 더 진척시킬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몇 걸음 걸느라니 불쑥 차라리 일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매일까지는 출장용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 개인용무에 출장시간을 허비한다는 가책없이 처가집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처제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러관에서 자는샘치고 처가집에 가면 되었다. 차이라면 25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러관》이며

숙식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려관》이라는 것이었다.

《국가적으로 봐도 리익이지.》

나는 누가 듣기라도 하는듯이 큰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모든 일은 내가 처가집에 가서 《자기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도록 된 셈이었다.

(확실히 우리 처제가 복이 있단말이야!)

그런데 빠스정류소에 가니 빠스는 벌써 떠난 뒤였다. 5 분도 되나마나하다는 것이었다.

《아, 저기 굵이를 도는게 보이지요?》

얼마앞의 산굽인돌이를 돌아가는 빠스의 빨간 줄 간 노란 엉덩이가 보였다.

나는 정류소의자에 주저앉고말았다. 다음빠스는 몇시간후에야 있었다.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나을것 같았다. 산굽이를 돌고 골짜기를 빠져 들어가 고개를 뚫아올라야 하는 산골길 25 리, 그러나 천천히 걸어도 두시간반이면 된다.

처제를 귀여워하지 않는 아저씨란 드물것이다. 이상한것은 처와 사이가 나쁜 사람도 처제에 대해서만은 애뜻한 정을 가지는것이다. 처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쯤한 수고가 무엇이랴.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날의 러로에 대해서는 회상하기조차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반시간쯤 걸었을 때 번덕스러운 산골의 날씨는 비를 뿌려대기 시작했다. 얼른 길옆의 오리나무 밑에 들어섰다. 처음은 얼마간 비를 막아주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 일사귀마다가 가득 고인 비물을 번갈아 쏟아붓는 《구룡폭포》로 변했다. 나는 비오는 날 처마끝에 나서서 락수물을 면바로 맞는 꼬락서니가 되어버렸다. 인가도 찾아볼수 없는 무인지경이었다.

나무밑에서 나와 걷는수밖에 없었다. 옷은 속속들이 다 젖어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얼마후에 비가 멎었고 빠그러진 구름사이로 햇빛이 내리비쳤다. 그런데 잠시후에는 구름이 다시 해를 가리웠고 바람질을 시작했다. 산골하늘이란 참으로 더러웠다. 산골에선 하늘까지 땅의 모양을 닮아 울퉁불퉁한지 날씨가 한시간사이에 두세번씩 변했다.

젖은데다 바람을 맞으니 몸이 덜덜 떨렸다.

길은 왜 또 그리 미끄러운지 열걸음에 한번씩은 넘어질번하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먼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알고있겠지만 넘어지는것보다 넘어질번하는것이 더 맥을 뽑는다.

《젠장, 빌어먹을!》 하는 말이 걸음마다 튀어나왔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화를 돋구었다. 우둔한 곰처럼 웅크린 바위며 싱겁게 우로만 자란 이 짙나무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비에 젖은 물결로 달려가는 개며, 귀가 먹먹할만큼 소란을 피우는 시내물이며...

길복판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푸드득하고 전주대우에 날아 올라갔다. 그리고는 나를 의심쩍게 내려다보며 《까우, 까우》 소리를 질렀다. 비소

리와 시내물소리, 바람소리에 섞여 그 소리는 마치 《어데 까우? 어데 까우?》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놈은 대답을 들어야 의심을 풀겠다는듯 그냥 같은 소리를 곱씹어댔다. 나는 화가 나서 발을 탕 굴렀으나 령리한 그놈은 끄떡도 않고 또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놈을 흘겨보며 투덜거렸다.

《처가집에 간다. 이놈아, 처제때문에 이렇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면서...》

그러자 그놈은 푸드득 날아올라 어서 가라는듯 《까우, 까우》 하고는 어데론지 날아가버렸다.

나는 화가 나서 투덜댔다.

《별놈 다 있다.》

수십리길을 걸으면서 한명의 사람도, 한마디의 말소리도 접해보지 못한 지겨운 침묵을 깨뜨리려는 욕망을 느꼈던것인지도 모른다. 소란스러움보다 정적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침묵을 더 깊게 하고 나라는 존재자체가 언어기능을 못가진 바람이나 물의 한부분으로 된듯한 느낌까지 들었었다.

이렇게 나는 동화나 전설이 아닌 현실에서 까마귀와 이야기를 주고받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까마귀에게 화풀이하고나니 가슴이 저으기 가벼워진것이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비록 처제이지만)이런 고생을 한다! 이 생각이 위안을 주었다. 아마 지난 세월에 있었던 유명무명의 수난자들이 이런 위안을 느꼈을것이다. 또한 집에 돌아가 이 고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혀를 차며 여린 가슴을 아프게 들먹일 안해도 그려보았다. 나역시 남편이란 어리석은 범주에 속하다보니 안해에게서 동정을 받고싶어하는 측면을 가지고있었다.

나는 차라리 처가집에 들어설 때까지 바람이 그냥 불고 비가 또 쏟아져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옷은 이왕 다 젖은것이고 같은 값이면 내가 어떤 고생을 겪었는가를 실물로 보여주고싶었다....

그러나 처가집마음이 올려다보이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바람도 멎고 햇빛까지 따스해졌다. 언제 그런 심술궂은 날씨가 있었던가싶게 잠풍하고 따듯한 저녁이었다.

《젠장!》

나는 까닭없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흠투성이된 신발과 바지가랭이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시내물에 대충 닦고 들어가야 했다. 무성한 개버들을 헤치며 시내물로 내려갔다.

시내물에는 빨간 프락포르가 한대 들어서있었다. 프락포르 바퀴사이로 두사람의 다리가 보였고 물소리가 찰박찰박거렸다. 손발을 씻고있었다.

나는 그들과 반대편에 좀 상류쪽으로 치우쳐 쭉그리고 앉았다. 신발을 닦으며 바퀴사이에서 움직이는 두쌍의 다리를 무심히 보았다. 둘 다 가랭이를 걸어올렸다. 한쌍의 다리는 거무스름하고 기둥처럼 굵은게 나무통처럼 억세어보였고 다른

한쌍은 가느다란듯하면서도 부드럽고 탄력이 넘치는 다리였다. 시내물도 그결에 이르러서는 조심스럽게 흐르는듯했다. 피부에서는 신선함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젊은 여자, 심중팔구는 처녀였다. 나의 처제도 지금쯤은 하루일을 끝내고 저렇게 다리를 씻고있을것이다.

나는 바지가랭이를 문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처가집에 들어서면 떠들썩한 소동이 일어날것이다. 아마 처제는 어린 처녀애처럼 손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를것이다.

《어떻게 갑자기 왔어요? 소식도 없이.》

《너때문에 왔다.》

《나때문에요? 어머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걸 보면 알수 있지. 마음에 들게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자 시내물에는 순식간에 우거지상이 된 나의 얼굴이 비졌다. 주머니속의 사진이 비에 젖어 휴지처럼 구겨진것이었다.

멋쟁이총각의 얼굴은 내 얼굴보다도 더 우거지상이 되어있었다. 한쪽눈은 애꾸눈처럼 되어있었고 코는 두 계단을 이루며 입술에 닿아있었다.

(이걸 어떻게 한다?)

프락프르앞에서는 나의 시름과는 관계없이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계속 명랑하게 들려오고있었다. 물방울들이 진홍색석양을 담고 물위에 웃음소리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있었다.

《그 얼굴도 좀 닮으세요.》 목소리가 어젠가 귀에 익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일없어, 윤전수 진짜 얼굴은 이 프락프르거든. 아마 우리 장모도 이 〈얼굴〉을 더 좋아할거요.》

《장모라구요? 동무한테 무슨 장모가 있어요?》

정말 처제의 목소리 비슷했다.

《물론 있지, 동무어머니 말이요.》

《어마나!》

단풍잎같은 손이 물을 연신 퍼서 뿌려댄다. 그러자 꽃보라라도 맞은듯 흐뭇해하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에쿠-시원하다!》

《난 가겠어요.》

《아, 아 어데 가요?》

《손을 봐요.》

《가겠소? 안가겠소?》

《글쎄 이걸 놓으라니까요. 사람들이 봐요!》

《빨리 대답하라는데!》

《안가겠어요. 안가겠어요!》

통쾌한 웃음소리.

《동문 정말!》

다시 즐겁게 찰박거리는 물소리.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모르는사이 빙그레 웃고있는 나의 얼굴이 시내물에 비껴있었다. 문사들의 말대로 하면 무르익은 사랑이다. 저 두 처

녀총각에게는 자기들의 사랑을 합법적인것으로 공포하는 일-결혼식만이 남아있다.

(아무렴, 그럴수 없지.) 나는 단정했다. 처제는 나의 소식만을 기다리고있을것이다. 슬그머니 일어서려던 나는 총각의 목소리에 주춤했다.

《영옥동무!》

(영옥이?!)

영옥이란 나의 처제의 이름이었다.

나는 아연해져서 차밀으로 보이는 나란히 서있는 두쌍의 다리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탄력에 넘치는 다리는 자기걸음으로 이미 사랑을 찾아낸것이었다.

《왜 그래요?》

《우리 일을 알면 동무네 언니랑 아저씨가 가만히 있을가? 동무를 도시로 데려가겠다고 했다는데...》

《도시예요? 누가 그래요?》

《동무가 그러지 않았소?》

《내가요?》

《요먼저 이삭비료를 실어올 때에 말이요.》

《어마나, 그정말이에요? 그저 말해본거지요 뭐, 그리구 또 그럴수도 있잖아요? 동무라면 친척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싶지 않겠어요?》

《그건 글쎄 그런데...》

《난 우리 언니랑 아저씨랑 다 여기 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만나면 여기 와서 함께 살자고 말해볼래요.》

《거참 멋있소. 나도 지원포를 쏘겠소!》

(뭐?!)

나는 사진이 어느사이 손에서 빠져 시내물에 떠내려가버렸는지도 알지 못했다.

《어마나,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하는 처제의 놀랜 소리에야 나는 정신이 들었다. 물에서 《그 청년》을 건져드는 자그마한 손이 보였다.

나는 황급히 개버들속에 숨었다. 다르게 할수가 없었다.

《어마나, 정말 우습겐 생겼네, 머저리갈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길에 올라섰다. 터벌터벌 마올로 걸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철썩철썩 달라붙었다. 다리가 금시 접혀질듯이 휘친거렸고 온몸이 오싹오싹해왔다.

《어마나, 정말 우습겐... 머저리갈네.》

그 말은 마치도 《어마나, 아저씨 정말 머저리갈네!》 하는 말처럼 들렸다.

길옆에 서있던 소가 물끄러미 나를 보더니 《음메》 하고 놀라리만큼 길게 소리를 질러댔다. 길가의 집들에서 개가 짖었다. 길에서 돌아치던 닭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소란스레 꺾꺾거렸다. 재빛고양이가 허리를 꼬부리고 물고인 수레바퀴자리를 그림자처럼 뛰어넘어 사라졌다. 이집저집에서 개들이 다투어 나오며 짖어댔다. 어떤놈은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통곡하듯이 짖어댔고 어떤놈은 화가 나서 기침이라도 하듯이 짖었고 어떤

높은 웃음을 참기라도 하는듯 킁킁거리며 짚어댔다.

나는 저도 모르게 허- 하고 웃어버렸다. 소견 닮아진 개건 내가 얼마나 헛고생을 했는가를 알고 제 나름대로 웃어대는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이게 누군가?》

줄당콩넬출을 손질하던 장인이 마주 달려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왔나?》

《예, 저-출장왔던 길에...》

이제는 출장이라는 리유밖에 더 말할것이 없었다.

장인이 받아든 가방이 가볍다는것도 출장길이라는 말로 변명할수 있었다. 《고려인삼술》이 없어진 가방은 별로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아마 물건의 무게란 저울논금에 의해서보다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것 같았다. 장인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질문제가 한결음 크게 전진한것을 알면 장인도 기뻐할것이다. 좋은 집에 비하면야 《고려인삼술》한병이 무엇이랴...

그때 부엌문이 열리며 장모가 달려나왔다.

《아이구, 이게 뉘긴가? 내 글썸 전보가 왔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나는 놀랐다.

《전보를 쳤더라 말입니까?》

《그럼! 오늘 중낮에 받았네.》

나는 감동되었다. 역시 안해가 달랐다. 전보까지 쳐서 맞을 준비를 시키다니... 그 빈틈없는 관심에는 코등이 찡- 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돌아가면 기쁘게 해주어야지. 질문제가 크게 한결음 진척됐다는 소식으로...

《이게 전볼세.》

장모가 전보를 내밀었다. 보나마나 내가 어느 차로 출발했다는 소식일것이다.

그러나 전보용지에는 전혀 생각밖의 말이 적혀 있었다.

《집배정 받았음, 될수록 속히 오기를 바람. 선육.》

선육이? 그것은 안해의 이름이다. 그런데 집배정 받았다는건 무슨 소린가. 부지중 열차에서 만났던 주택배정처지도원과 《고려인삼술》이 떠올랐다. 그것이 벌써 은을 낸것일까...

삼작문밖에까지 쫓아온 개 한마리가 (몹시 지긋은 성미를 가진 놈이었다.) 그냥 월월월 하고 끊어지지 않는 목소리로 짚어대고있었다. 머리는 잔뜩 하늘로 쳐들고있어서 나를 보고 짚는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웃고있는것처럼 보였다. 《양천대소》라는 말이 부지중 떠올랐다. 까닭없이 나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웃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도원은 아직 그냥 기차에서 달리고있을것이였다. 집 배정은 나의 《외교》와는 사돈의 팔촌 만큼한 인연도 없을것이 분명했다. 그러면?

《에끼! 이놈!》

장인의 큰 소리에 개는 저만치 달아나더니 또 하늘로 머리를 쳐들고 웃음을 터뜨리듯이 짚어댔다.

《저런놈 봤나? 소란스럽게.》

《봐두십시오. 실컷 웃으라지요.》

나의 눈앞으로는 떠나올 때부터의 일이 줄지어 떠올랐다. 차표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던 일, 차칸에서 《동냥》받던 자리, 《고려인삼술》, 비내리는 수십리 산길, 시내물에 흘러간 사진 그리고 집을 배정받았다는 이 전보... 결국 《행운》에 대한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되는것일까. 내가 무엇인가 못미덥고 걱정스러워 동분서주했던 일은 죄다 고생만 했을뿐 헛수고로 끝났다. 그런데 한결음도 걸지 않은채 바라기만 했던 《행운》은 저절로 찾아왔다. 이것이 과연 행운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의 동의어라고도 할수 있는... 행운에 대한 나의 이상스러운 기대, 이 기대도 그러면 우연에 대한 기대로 보아야 할것인가...

문득 쟁쟁한 노래소리가 가까와오며 석양비낀 대기를 흔들었다.

나라에서 집을 주어 웃음꽃 피네
나라에서 쌀을 주어 근심 모르네

줄당콩의 푸른 넉출사이로 사랑에 충만된 영옥의 빨간 머리수건이 불꽃처럼 보였다. 그 빛이 왜 저리도 눈에 부신지...

아 이 좋은 제도를 마련해준
...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행운에 대한 기대, 이것은 우연에 대한 기대가 아니였다. 태어나서 이제까지 이 땅, 이 제도에서 살아오면서 이 몸에 체질로 되어버린 필연적인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었다. 과연 태어난 첫날부터 모든것은 저절로 나의 생활에 찾아와주지 않았던가. 유치원도 학교도 병원도 그리고 집도...

자식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기전에 풀어준다.

행운을 레사로운것으로 되게 해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있는지 순간이라도 망각한다면 그는 오늘의 나처럼 풍자적인 존재로 될수 밖에 없는것이다. 푸른 거목의 어느 한 번두리에 하나의 잎파리가 시들은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짓는 존재, 코끼리구경 갔던 세 소경과 무엇이 다르랴...

노래소리는 맑은 방울소리처럼 나의 가슴을 흔들었다.

고마워 고마워 우리 당이 고마워

우리 가는 길

정성환

내 미쳐 다는 몰랐노라
늘 함께 일하면서도
전화의 날
그대들이 세운 그 위훈을

머리에 내린 흰서리아래
가슴 무겁게 얹힌
훈장과 메달들도
조국을 지켜싸운 시련 많은 나날을
나에게 속삭여주는듯싶구나

로병대회 연단에서 그대들
50 년대에 걸어진 길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대들의 추억을 따라
불타는 산야를 달리였노라
피로 물든 강물을 건넜노라

내 뛰놀며 자란 유치원트락이
그대들의 피서린 자옥우에 놓여있고
불비를 헤치던 화선천리길우에
내 걷는 포석길이 열려있음을
가슴 뜨거이 다시 새겼노라

내 사는 집의 기둥밑에도
내 가는 생의 길에도
그대들은 신념을 고이고
넋을 교여주었나니

청춘의 희망과
창창한 앞날을
폭탄이 작렬하는 불길속에 바치며
우리가 가고
후대들이 나갈 길을 활짝 열어놓은
그대들의 위훈을 우리 잊지 않으리라

더없이 소중하게

내 오늘 그 자옥자옥을 안아보노라
불타는 고지우에 찍힌 신념의 자옥
락동강 물결우에 남긴 의지의 자옥
우리가 미래로 딛고 갈
혁명의 그 디딤돌들을
다시 가슴에 새겨안노라

당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혁명을 지키는 걸음새를
그대들의 자옥에서 익힌 우리 세대
어찌 달라질수 있으랴
그대들의 심장은 우리의 심장
그대들의 자옥은 우리의 자옥

하기에
세월은 아무리 준엄하여도
우리 언제나 용맹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그 어떤 강적도 굽어볼수 있나니

발을 헛디딤도 없으리라
길을 헛갈림도 없으리라
가야 할 혁명의 길이기에
어려워도 끝까지 가고야말 우리
지켜야 할 사회주의이기에
만난을 뚫고서도 억세게 지켜낼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뭉쳐
일심단결의 발걸음 높이 나아가며
그대들의 뚫는 피로
우리 심장을 더웁히리라
그대들의 역센 자옥으로
우리 세대의 자옥을 빛내여가리라

(1993. 8. 5)

꽃다발에 잇닿은 생각

방영성

나는 벼들을 만나면 묻군한다.

《동무는 꽃다발을 받아본적이 있나? 그때의 심정은 어떤든가?》고.

그러면 성실한 나의 벼들은 대답하기를 꽃다발이란 그 어떤 성공이나 사업에서의 성과로 해서 받으면 더없이 자랑스럽고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지만 때로 보잘것 없는 일을 하고 받게 되면 더 거두지 못한 성과에 대한 자책감으로 얼굴이 뜨겁고 오히려 죄스러워지더라고, 또 어떤 축들은 행복이나 건강을 축원해서 받으면 벼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이 가슴에 차오르며 사업과 생활에서 벼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며 일하려는 결심으로 신심에 새힘이 솟구쳐오르더라고 말한다.

나도 벼들의 말을 긍정한다.

그것은 그들자신의 체험이고 숨김없는 심정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류의 심정을 수차 체험해보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심정이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얼마전 그 꽃다발로 하여 받은 뜻밖의 충격과 그로 인한 류다른 심정을 벼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난 4월 25일 저녁이었다.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은 그 어느 제대병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병석에 있는 옛 병사에게는 더없이 생각많은 날로 된다. 흘러간 병사시절에 대하여 오늘에 이어 레일도 가야 할 머나먼 길에서의 자세에 대하여...

군에서 조직한 제대군인축하모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나는 텔레비존에서 방영되고있는 조선인민군협주단경축공연을 보면서 추억의 갈피를 번지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문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뜻밖에도 우리 동네에 사는 고등중학교 6학년생 순이가 서넛의 포래들과 함께 서있었다.

(불청객이라더니.)

나는 추억의 감미로움을 덜어준 한밤중의 손들을 은근히 나무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나 순이?》

그러나 불빛에 드러난 얼굴들은 까닭모를 미소를 짓고있을뿐 웬일인지 선뜻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뭘 빌리러 온게군.)

나는 속으로 짐작해보았다. 하긴 순이가 나한테서 기타랑 더러 빌려가곤하였기때문에 이 짐작이 영 억측일수는 없었다.

《애들두, 말을 해야 알지.》

《저...》

왜서인지 손을 등뒤에 모은 순이가 말을 하려다가 또 주춤거린다. 이 앤 뭘 빌려갈적마다 노상 이런 어줍은 태도였다.

이때 한 처녀애가 《아저씨.》하고 순이앞으로 나서더니 그의 등뒤에서 무엇인가를 앗아내어 불쑥 내 가슴앞으로 내밀었다.

물썩, 싱그러운 향기...

엇걸결에 받고보니 꽃다발이었다.

《엉?!》

나는 뜻밖의 일에 화등잔만해진 눈으로 어둠속의 처녀애들을 주시할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 이건... 난...》

《아저씨, 명절을 축하합니다.》

여럿이 입을 모아 웨쳤다. 부엌의 전등빛을 마주한 그들의 눈들이 반짝이는 별인듯 빛났다.

《축하라니?!》

이거야말로 한밤중의 흥두께가 아니고 뭘가.

《아이, 오늘이 군대명절 아니나요.》 누군가의 대답.

《그런데?》

《호호. 그러니 그렇지요.》 애들은 저들이 말해놓고 까르르 웃어댔다.

(군대명절... 꽃다발... 축하...)

나는 재빨리 생각을 굴려보며 이 리해 못할 한밤중의 《축하단》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표정과 어조, 몸가짐에는 분명히 가식파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나는 이들이 당치않게 나의 부상을 그 어떤 요란한 위훈과 결부시켜 오해하고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이 피곳 들었으나 인차 도리질해버렸다.

(우리 동네에 사는 저 순이가 그걸 모를라구.)

그렇다면...

여하튼 꽃다발을 받을만한 명분이 도저히 서지 않아 쑥스럽기 짝이 없던 나는 은근히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애들아, 고맙긴 하다만. 난 이런걸 받을만한 일을 한게 없구나. 더구나 지금은 군대도 아니고.》

꽃다발을 도로 내미는 나의 어조에는 어쩐지 야릇한 서운함이 어린것 같았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그러지 말아요. 아저씨 군대에서 부상당하지 않았나요. 임무수행하다가.》

아까 꽃다발을 안겨주던 처녀애가 내가 내미는 꽃다발을 밀막으며 순이를 돌아보았다. 그렇지 않느냐는듯, 순이가 머리를 끄덕였다. 불빛앞

에 한결을 나선 그들의 눈가엔 그 어떤 간절한 빛이 력력했다.

아, 나는 가슴이 몽클함을 느꼈다. 이어 병사 시절의 나날이 토막토막 영화화면처럼 비껴왔다. 혼련... 부상...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꽃다발을 받을만한 위훈은 아니다. 나는 지금껏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것은 공민적의무를 리행하려는 웅당한 노력이었고 헌신의 그 과정에 본의아니게 생긴 불행이기는 하나 결코 위훈일수는 없다. 그러니 꽃다발까지야 어떻게.

내가 굳이 만류하니 애들은 무슨 큰 야단이라도 난듯했다.

《야, 아저씨. 왜 그래요. 어서 받아요.》

《어서요.》

하, 이런 난처한 일이라구야. 나는 누가 그 무슨 《심판》이라도 서주면실은 생각까지 들었다.

이때 마침 어머니가 방안에서 나오시더니 《아니, 귀한 손님들을 들어오라지 않고.》 하며 문가에 서있는 순이부터 안으로 끄셨다. 아마 우리들의 대화를 다 들으신듯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고인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축하는 축하하고 어쨌든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인사불성을 의식하며 급급히 그들을 방안으로 끌었다.

난처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처녀애들은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더니 자기들의 숨씨인듯한 소박한 음식도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처녀애들의 본성그대로인듯 인츰 활기를 띠며 어머니와 나를 상대해서, 때로는 저희들끼리 웃으며 떠들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저씨가 군대에 나갈 때 자기들은 유치원 낮은반생이었다든가, 아저씨가 초소에서 밤을 밝힐 때 자기들은 포근한 잠자리에서 고운 꿈을 꾸고있었다든가 등 이야기를 연방 잇대며 이 《억지군》들은 기어코 나를 그 무슨 위훈자로 간주하려 들었다.

나는 그것만은 부인했으나 쾌활한 그들과의 이야기에 즐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술까지 나와 어머니에게 한잔 부어주며 《아저씨, 빨리 나아요.》 하고 건강을 넘려해주었다.

그밤, 그들은 내가 쑥스러워 한전에 밀어놓은 꽃다발을 다시한번 내 가슴에 안겨주고는 올 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

아, 사나이는 쉽게 울지 않는다지만 이런 때조차 울줄 모르면 그 어이 사람이라.

나는 그애들이 간쑥 창문을 열고 하염없이 서있었다. 눈곱이 축축해왔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벌써 죄스러움을 안고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더듬어 내가 섰던 초소, 평양하늘가로 향하고있었다.

불어드는 미풍에 창턱에 놓은 꽃다발에서 물씬 향기가 풍겨왔다.

아, 나도 이런 날엔 이런 꽃다발을 안고 찾아가야 할곳이 있건만...

내가 바라보는 하늘가에는 어느덧 혁명렬사릉이 우뚝이 떠올랐다.

혁명렬사릉!

내 그 시절때마다 번마다 꽃다발을 안고 오르며 뵈웁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혁명렬사들,

언제였던가, 그분들앞에 더는 꽃다발만 안고 나설수 없이 위훈을 안고서야 다시 오리라고 다짐하던 그날이, 과연 이 몸이 언제 다시 위훈의 꽃다발 가득 안고서 성스러운 그 언덕에 오를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나는...

가슴에 안겨진 이밤의 꽃다발은 죄스러움을 더해주며 끊어졌던 추억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저애들이, 과연 나의 괴로움을 알기나 할가?

하긴 탓할 일이 무어라. 꽃다발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른것인데.

하다면 저애들은 자기들의 꽃다발에 어떤 마음을 담는것일가?

《아저씨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혹시 이애들이 수년간이나 병석에 모대기는 한 젊음을 녀성특유의 인정으로 동정하게 아닐가?

아니다, 내 지금껏 수없는 눈길들을 마주해보았어도 그렇듯 맑고 진지한 지어 간절하기까지한 눈빛과 일종의 동경어린 목소리를 들어본적 없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금 울려오는 소리,

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굳이 위훈으로 본결가?

그럴수도 있다. 왜냐면 당과 조국을 위한 헌신적소행이면 작은것도, 보잘것 없는것도 값높이 불러주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에서 11년간이나 배우며 살아온 저들, 다 큰 심장들이 모를수는 없기때문이다.

그것이라면, 정말 저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비롯된것이라면 한생을 반복입고 조국보위로 산 수많은 공민들과 더우기는 그 조국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다 바친 저 리수복, 김광철 영웅들은 과연 어떤 높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껴들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누리고있는 행복한 사회주의 새 생활은 전 세대 청년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마련된것이며 그들이 자기 세대에 맡겨진 역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 세대청년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자기 세대에 맡겨진 역사적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 저 순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을것이며 자기들의 역사적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하는 길에 위훈을 꿈꾸고있을것이다.

위훈은 위훈에 대한 갈망, 위훈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지만 보다는 믿음에 대한 의리,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믿음속에 은혜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랴. 나도 그렇고 저 순이들도, 나의 벗들도 그리고 우리의 동시대인들모두가 그렇지 않던가. 하기에 그들은 보답에 바치는 헌신의 가치도 잘 알고있으며 그것을 제일처럼 귀중히 여길 줄도 안다.

바로 그 믿음을 평시에는 소박한 꽃다발에 담아주고 주고받지 않던가.

바로 그 마음을 담아 충성의 그 길에 혁신과 기적과 위훈을 다짐하며 이 땅의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만수대언덕으로, 위훈의 넓이 기발처럼 나뭇기는 저 혁명렬사릉으로, 인민군렬사탑으로 오르지 않던가.

나는 순이네들이 안고 온 꽃다발에도 그네들의 결심이 력력히 어려있음을 확신했다. 래일에

는 틀림없이 저애들의 꽃다발에도 위훈이 비낄것이다!

결심과 위훈을 담은 꽃다발!

그렇듯 크나큰 뜻이 담긴 꽃다발을 안고 내 다시 오르지 못했던 그 언덕-혁명렬사릉으로 함께 오르자고 저애들은 나를 고무하고있구나!

아, 꽃다발! 결심과 위훈의 상징! 충성과 효성의 한마음!

그것을 안고 오르자, 만수대언덕으로! 혁명렬사릉으로! 그것을 안고 가자. 찬란한 미래로!

나의 친근한 벗들이여! 저 순이들과 함께! 시대와 함께!

우리 오르는 언덕에 그 꽃다발 만발할적에, 그 향기 누리에 풍겨갈적에 아,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은 또 얼마나 번영할것인가!!

하나의 대답

김정철

어느때나 나의 대답은 하나
그대앞에 나의 대답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 자리에 들었다도
당이어 그대가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당을 알았고
하루이틀 당을 받들었던가
인생의 먼먼길 받들어오며
어느덧 내 심장의 고동이 되고
내 삶의 숨결이 된 대답

그대를 받들며
내 인간의 가치를 알았고
사는 보람을 느꼈거니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 그대

돌아보면 저 멀리
당을 받들어온 그 길우엔

가슴속 희망이 꽃피던 그날도
있고
대학으로 떠나던 내 아들이
온 집안에 웃음을 뿌려주던
그날도 있어라

그대를 받들며
내 좁은 가슴은 넓어졌고
내 넓은 펄럭이는 붉은 기폭
에 타올랐다
한가정의 아들만이 아닌
조국의 아들로 나를 이끌어준
그대

꽃은 날도 있었더라
준령도 있었더라
하나 그대를 받들어가는 길에서
남들이 못가는 그 길도 갔고
남들이 못하는 그 일도 했다
먼 미래의 후손들도 기억할
그런 자옥을 우리는 남겼노라

어느때나 나의 대답은 하나
그대앞에 나의 대답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변함없는 그 대답속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피가 통하고
어머니와 아들처럼
정이 통하거니

아들은 안다
어머니의 그 눈빛만 보아도
어머니의 속깊은 그 마음을
아들은 안다
아버지의 그 손길만 보아도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가를

그대가 하는 일은 인민을 위한
그대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
그대 진리의 해불이고
승리의 기치인
오, 조선로동당이여

어느때건 나를 불러달라
그러면 우렁찬 하나의 대답뿐이리
《여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어머니

제 2 부

문병의

방인철의 집 방안

방인철이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편지를 읽고 있다. 편지의 내용이 은정의 목소리로 울린다.

《연구사동무, 동무의 어머니가 온천치료를 받아보았으면 하는 의향이 있어 모시고 갑니다. 재삼 부탁하는데 신심을 잃지 말고 버겨보이라를 꼭 성공시켜주기 바랍니다. 리은정 씬.》

해묵은 로송들이 드문드문 선 송림속에 자리잡은 종달새온천료양소의 전경.

료양각의 어느 한 호실

은정이 침대에 앉아있는 인철모의 손을 잡고 앞에 선 의사에게 당부한다.

《의사선생, 내 자주 올것 같질 못하는데 우리 언니라구 생각하구 잘 좀 치료해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동지.》

《대답만 하지 말구... 의사선생두 알지? 그 왜 우리 군에 와서 버겨보이라때문에 고생하던 그 연구사동무의 어머니야.》

《예... 그렇습니까?!》

은정이 인철모의 손을 잡은채 일어서다.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꼭 효험이 있을겁니다.》

《예... 이거 정말 안됐수다. 바쁜 위원장이 나 때문에 ...》

량정사업소 지배인실

앞상우에 연방 덧쌓여지는 서류들, 탄실이가 서류장을 발각 뒤흔치고 있다.

여기로 삼면가방을 든 량수환이 들어선다.

《찾았소?》

《아니 글썄 내가 분명 석탄보이라도면을 여기다 건사한것 같은데 어데 들어가 배겼는지 아무리 찾아두 없구만요.》

《췌췌... 잘은 하오. 지배인이란 사람이 그래가지구야 어떻게 기업관리를 하겠소?》

《나야 뭐 버겨보이라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요. 지배인주머니가 적어두 돌셋은 돼서 척척 둘러맞춰야지 너자들이란 참... 하여간 내 며칠 자리를 뜨겠는데 이젠 동요하지 말구 냅다 밀어야 하오.》

《부위원장동문 또 어델 가요?》

《나야 우리 삼일군에서 통진 오소린데 사방 꺾지는 구멍을 틀어막아야지.》

《아니 무슨 일이 또 제기됐어요?》

《학교개축공사, 문화회관, 살림집건설 다 걸렸소.》 하며 량수환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아니 왜요?》

《목재받으려 림산사업소에 간 치삼동무한테서 엇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한두달안으로는 목재를 받을 가망이 없다는거요. 건설은 잔뜩 벌려놔는데 목재 없이 어떻게 하겠소?》

《그럼 림산사업소로 가요?》

《아니... 자체탄광 동발목을 실어다 쓰기로 했소. 까짓거 자체탄광은 아무래두 내놓아야 할텐데 동발목이라두 가져다 써먹어야지.》

《위원장동무하구 토론두 없이 일없을가요?》

《동발목까지 실어다놓으면 위원장동무두 생각이 달라지겠지. 버겨보이라가 안되는 조건에선 어차피 자체탄광은 국가에 들여놓아야 하는거니까.》

이때 출입문이 열리며 도시경영과장이 들어선다.

《아 과장동무, 자동차준비가 다됐소?》

《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차하구 건설대 차두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됐소. 그럼 떠나지요.》 량수환이 나간다.

그의 뒤를 따라 나가려던 과장이 탄실을 보며 말한다.

《참, 위원장동무네 남철이가 왔습디다.》

《남철이가요?! 왜 왔대요?》

《그야 지배인동무네 따님한테 물어야지요. 지금 영미선생하구 남철이가 양어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습디다.》

《에이그, 또 실없는 소릴...》

《빨리 국수나 먹읍시다.》 하며 과장이 눈을 끔쩍 한다.

《에그, 국수먹을 때가 되면 의례히 도시경영과장을 청하지 않으리, 호호...》

《하하...》

양어장

물우에 날아떨어지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켜병대는 잉어와 붕어떼들.

란간에 기대여 서서 그것들을 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남철과 영미.

《남철동무 저길 봐요!》

《야! 거 정말 대자로구만.》

《꼭 잠수함같지요? 우리 학생들이 저길 그렇게 불러요.》

거짓한 몸뚱이를 수면우에 드러내며 미끄러지듯 서서히 다가오는 잉어떼들.

《영미, 생각나? 우리가 유치원때 동무가 이 양어장에 넣겠다구 미꾸라지를 신발짝에 담아가 지구 오는걸 내가 밀쳐놔서 울던 일말이요.》

《아이 별걸 다… 동문 그때 위원장어머니한테 종아리를 맞지 않았나요.》

《그랬던가? 하하… 하긴 그때 우리 어머니 노상 이 양어장 건설장에 나와 살았지.》

《양어장뿐이예요? 저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거리, 공원, 유원지, 어느 하나 위원장어머니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가 있어요 뭐.》

《우리 어머니 한평생 일밖에 모르셨어. 말년에라도 편히 모셔야 할텐데… 그런 의미에서 영미동무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

《우리 어머니두 늘 그 말씀이예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는 영미, 이때 지나가던 승용차가 양어장 건너편에서 벗어선다.

《애, 너 남철이 아니냐?》은정이가 승용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아니 어머니가?!》

반기며 달려가는 남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갑작스레 나타났냐?》

《어머니, 그새 건강하였어요? 졸업배치문제와 관련해서 어머니하구 토론할 일이 있어서…래일 아침차에 떠나야 해요.》

《그렇게 바빠 같게면 전화로 할 말을 할게지.》

《전화로 할 말이 못돼서 왔지요 뭐.》

《그래… 그럼 집에 가 있거라. 내 사무실에 들렀다 인츰 가마.》

《예.》

영미가 다가와 인사한다.

《오냐… 너희 학교개축공사장에선 별일이 없겠지?》

《네, 참, 어제 목재때문에 립산사업소에 간 치삼지도원동무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 뭐라구?》

《목재를 한두달내에는 받을 가망이 없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량부위원장동지랑 오늘 아침에 자체탄광으로 동발목을 실러 떠났습니다.》

《뭐 동발목을 실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방

은정이가 전화를 걸고있다.

《량부위원장동무, 차를 당장 돌려세워가지구 돌아오세요… 글쎄 그건 절대로 안된다지 않아요.》

탄광사무실

전화를 받고있는 량수환.

《…아니 위원장동무, 그럼 학교개축공사, 문화회관 다 걸렸는데 목재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난 거 리해가 안되누만요. 자체탄광만 내놓으면 목재두 석탄두 다 쉽게 풀리겠는데 왜 그러니까? 석탄공업부 부총국장동무두 적극 도와주겠다구 약속했습니다.… 위원장동무… 아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제길 전화가 끊어졌군. 음…음…》

량수환이 맥이 풀린듯 수화기를 놓고 풀썩 주저앉는다.

다시 은정의 방

은정이 착잡한 생각에 잠겨 창문가에 서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린다. 바람에 날리는 카텐이 생각깊은 은정의 얼굴을 스친다.

량정사업소 지배인방

은정과 탄실이 전등불밑에 앉아있다.

탄실이가 은정의 눈치를 살피다가 저어하며 말을 꺼낸다.

《언니, 내가 이런 말을 한다가 또 당성이 없는 소리 한다가만 생각지 말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언니야 오늘 이때까지 우리 삼일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어요. 청춘두 한가정의 행복두 고스란히 다 바치면서… 그런 언니가 이제 말년에 와 그 버겨보이라때문에 파오라도 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니가 그만큼 가서 사정을 했는데두 돌아오지 않는 방인철연구사를 믿구 언제까지 이러구 있겠나말이예요. 언니, 제발 부탁인데 량부위원장 말대로 목재두 풀구 석탄문제두 풀자요. 예?… 아이참. 언닌 지금 뭘 생각해요?》

은정은 그제야 자세를 달리하며 탄실을 본다.

《탄실이, 난 어쩐지 오늘은 자꾸 육아원에서 일할 때 생각이 나는구나.》

《아이, 생똥같이 육아원소린…》

《그해엔 참 눈두 많이 내렸지…》하며 생각이 깊어지는 은정의 얼굴우에 펼쳐지는 회상화면.

산골짜기

함박눈이 끝없이 내린다. 눈이 허리를 치는 산비탈에서 은정이가 도끼로 나무등걸을 팡팡 내려찍고있다. 사방으로 튕겨나는 도끼밥. 반나마 채워진 나무등걸 마대.

은정이 찍혀넘어진 나무등걸을 마대에 마저 넣고나서 맞은편 등성이를 향해 소리친다.

《탄실이 … 탄실이 …》

《예, 내려가요…》

맞은편 산등성

새끼로 뭉뚱을 해서 나무등결마대를 등에 진 탄실이 허리치는 눈속을 헤치며 산비탈을 내려 오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언덕에서 굴러내린다.

《앗! 탄실아...》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 그는 등에 진 마대를 벗어던지고 허둥지둥 달려온다.

마대를 등에 진채 눈속에 박힌 탄실.

은정이 눈을 헤집고 그를 안아일으킨다.

《아니, 이 피...》

피흐르는 탄실의 이마,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는 은정.

《아프니?》

탄실이 머리를 가로 젖는다.

《아니 아프지 않아요. 언니, 빨리 내려가자요. 방이 추워서 애기들이 깨어나 올겠어요.》

《탄실아...》 은정은 나 어린 탄실이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와 그의 목을 껴안고 볼을 비빈다.

《탄실이, 우리 고생스러워두 조금만 더 참자.

이제 한달만 있으면 봄이 와. 그러면 눈이 녹구 다시 꽃이 피지.》

《언니, 난 봄이 오면 저 옥아원 앞마당에 꽃나무를 떠다 심을래요. 그러구 그네두 매구, 그럼 애기들이 엄말 찾지 않구 좋아할거야.》

《그럼, 좋아하구말구.》

탄실은 은정의 얼굴을 뽀뽀 쳐다보며 묻는다.

《언니,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모 잃은 고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지요?》

《그렇단다. 오죽 가슴이 아프시었으면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장군님께서 몸소 최고사령부의 작전실에서까지 고아를 데려다 키우셨겠니... 탄실아,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아버지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신단다.》

《언니!... 야, 빨리 봄이 왔으면...》

그들의 희망 어린 얼굴우에 함박눈이 쉬임없이 내린다.

다시 량정사업소 지배인실

은정은 여전히 깊은 감회에 잠겨 말한다.

《그때엔 모든게 명백하구 단순했는데...》

탄실이 무슨 소릴 하느냐는듯 웃는다.

《아이참 언니두, 그때는 스무명밖에 안되는 아이들을 돌봐주면 됐지만 지금이야 한개 군의 살림살이를 맡았는데 대비나 돼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암 그게 아니구말구...》

은정의 사무실

밤이다. 텅빈 방안에 은정이가 혼자 책상을 마주하고있아 생각에 잠겨있다.

그의 심중의 소리가 울린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까?... 탄실이 말처럼 내가 혹시 파오를 범할가봐 겁을 내는게 아

닐까... 아... 목재, 버겨보이라... 방인철연구사는 지금 뭘하고있을가...》

이때 조심스러운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출입문이 열리며 파란비옷을 벗어든 연희가 들어온다.

《아니 연희동무가 어떻게 이 밤중에... 어서 오라구.》 은정이 반기며 마주가서 그의 비옷을 받아든다.

《비를 흠뻑 맞았구만...》

《밤늦게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위원장동질 만 나기가 여느때 힘들어서...》

《힘들기야 뭘, 아무때나 찾아오지... 그래 러관이랑 불편한건 없나? 귀한 손님이 와있는데 한번두 찾아가보질 못해서 날 욕했겠구만. 응?》

《아닙니다. 전 위원장동지께 한가지 방조를 받자구 찾아왔습니다.》

《방조? 어서 말하라구. 우리 군을 도와주겠다고 일부러 찾아온 연구사동무의 요구야 못들어주겠나. 자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라구.》

하며 은정이 연희의 팔을 끌어 쏘파에 앉힌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연희는 머뭇거리며 품에서 종이말이를 꺼내 책상우에 펼친다.

《버겨보이라에 의한 기름생산공정도》라고 쓴 설계도면의 표제가 한눈에 안겨온다.

은정이 이끌리듯 도면을 들여다보며 놀란다.

《아니 어느새 이걸...》

《제가 평양에서 작성한 논문은 석탄보이라를 념두에 두었었는데 버겨보이라를 리용하는 여기 조건에는 잘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산공정들을 료해한데 기초해서 불합리한 점들을 일부 고쳤습니다.》

《가만, 동문 혹시 그 버겨보이라가 운영중지당했다는걸 모르는게 아니요?》

《예?... 아니 그럼 위원장동지두 동요하시나요?》

《동요?》

《호호... 아니지요? 위원장동진 절 떠보느라구 그러는거지요. 전 위원장동지를 잘 압니다.》

《동무가 어떻게 나를... 그동안에 벌써 이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다 료해를 했나?》

《저... 아니 사람들한테서 들었지요 뭐. 위원장동진 무슨 일이나 마음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구 한번 결심한 일은 절대로 중도반단하는 일이 없을뿐아니라 그러구 또...》

《그러구 또...》

《그러구 보기에는 아련하구 치마는 입었지만 한다하는 남자들도 꿈쩍 못한다나요. 호호... 맞지요?》

은정이 그만 웃음을 터친다.

《호호... 아니 아니야. 난 그런 일군이 못돼. 그래서 방인철연구사두 데려오질 못하구 이렇게 앉아뭉개고있질 않아요.》

《그 동문 꼭 읍니다. 시시한 사람이야. 남자가 여자들처럼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아니 동문 방인철연구사동물 잘 아오?》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동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아이 그야 명백하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시대 새 세대 지식인이 아니지요 뭐. 그렇지요? 위원장동지, 내 말이 틀리나요?》

《아... 아니...》은정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새 물새물 웃고있는 연희의 티없이 깨끗하고 밝은 얼굴에 반하기라도 한듯 그를 대견스레 본다. 그의 심중의 목소리가 울린다.

《아, 어쩌면 저리두 단순하고 명백한것인가?!... 하긴 그렇지. 진리란 언제나 단순하고 명백한것이지...》

은정이 그에게 다정히 묻는다.

《연희동문 지금 몇살이지?》

《스물넷입니다.》

《스물넷... 정말 좋은 나이구만... 내가 바로 그 나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우리 군을 찾아주시였는지...》

《그렇습니까?! 야 위원장동지는 어쩌면...》하며 연희는 부러운듯 황홀한 눈길로 바라본다.

은정이 깊은 감회에 잠겨 말한다.

《...그땐 나라가 갓 전쟁을 겪구난 뒤여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웠지... 우리 군의 형편은 더 말할것두 없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날 읍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반토굴집들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시구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점심끼니마저 건느시구 해종일 나를 끼고 다니시며 군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루빨리 추켜세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어요. 오래간만에 딸네 집에 나들이오신 친정아버님처럼말이에요. 정말 그때 송구스럽던 생각을 하면... 글썽 군소재지라는게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방 한칸이 변변한게 없어 잠시 편히 쉬시지두 못하시구 해가 저물 때까지 노상 한지에 서계시다가 떠나시였어요. 그런데두 어버이수령님께서 송구해하는 내 잔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일없소. 내가 따뜻한 방안에 앉아 쉬거나 하자구 동무네 군에 온게 아니야. 앞으로 동무네 군사사람들이 다 잘살게 될 때 내 꼭 다시한번 오겠소.>》

은정은 그만 목이 메여 눈굽을 훔친다.

《위원장동지...》연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난 지금두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두 벌떡 일어나군해. 그이께서 문득 오실것만 같아서...》

《위원장동지, 위원장동지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저두 힘껏 돕겠어요.》

은정이 그를 꼭 껴안는다.

《연희동무, 고마워요. 동문 오늘 나한테 큰 힘을 주었어요. 난 래일아침 별목장으로 떠나겠어요.》

《별목장으로요?》

달리는 렬차

침대간 차창가에 은정이가 앉아있다. 맞은편 침대에는 남철이가 대학생모자를 얼굴우에 올려 놓고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따금 그의 입에선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온다.

은정이가 사업수첩에서 눈길을 떼고 그를 넋 지시 건너다본다.

은정의 심중의 목소리.

《저녀석은 아직도 이 어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서 내려가질 않는 모양이지...》

은정의 회상화면

은정의 집 방안

은정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남철에게 안타까이 말한다.

《그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직도 리해하지 못하겠냐? 왜 대답을 하지 않니?》

《체... 어머니야 늘 책대로만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럼 이젠 결심이 섰냐?》

《야, 정말 어머니두... 아니 기계공학을 전공한 내가 군에 와서 뭘 하라는거예요? 군 자체란 광에 가서 탄차나 밀란 말이예요?》

《탄차를 좀 밀면 못쓰냐?》

《어머닌 너무 자기 체면만 앞세우지 말라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군행정경제위원장이 아니라면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겠지요.》

《뭘라구? ...》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행정경제위원장을 하면 몇해나 더 하겠어요? 어차피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할텐데 내가 중앙기관이나 과학원 같은데 배치를 받아야 내 전망두 열리구 어머니두 편히 모실게 아니예요.》

《그만해라!》

《어머닌 평생 간부로 있어서 현실을 너무두 몰라요. 석탄공업부 부총국장아저씨나 대학의 권위있는 교수선생님들이 어머니만 못해서 나한테 과학원에 남을걸 권고하는줄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줘라. 너처럼 제가 나서자란 고향땅과 고향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칠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큰일을 할수 없다는걸.》

《됐어요. 어머니 소원이 정 그렇다면 군에 내려와서 탄차를 끌겠어요.》

남철이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아니 저녀석이...》

다시 렬차안

《평양역에서 내리실 손님은 미리 준비하여주십시오.》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렬차원의 목소리.

차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은정이 돌아선다.

《애 남철아, 다 왔다. 내릴 차빌 하거라.》

남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당반우의 러행가방을 찾아든다.

《어머니, 먼길에 조심하세요.》

《오냐. 배치를 받으면 집에 전보를 치거라.》

《…》 남철은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휙 돌아서 나간다.

은정이 그가 나간쪽을 멍하니 보고있는데 새로운 차손님들이 들어온다.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협궤차가 달리고있다.

산간역

원목데미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역홈으로 협궤차가 들어와 멎는다.

은정이가 몇몇 손님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다.

림산마을의 전경

은정이가 러관간판이 붙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간다.

러관의 어느 한 방

4~5 명의 인수원들이 장기관을 가운데 하고 좌팹 떠들어대고있는데 문기척소리가 난다.

반나마 열려진 방문앞에 은정이가 서있다.

《이 방에 삼일군에서 온 지도원동무가 들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삼일군총각… 행정위원회 지도원말이지요?》

《네 그 동무가 지금 어데 있습니까?》

《그 친구 만나기 힘들겠는데요… 나무 접수온 군대들하구 사업을 한다면서 요새 노상 벌목장에 나가 삽니다.》

《그래요…》 은정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돌아서는데 방안에서 하는 인수원들의 말소리가 등뒤에 들린다.

《그 친구 자재사업 첩하는 모양이구만. 군대한테 사업이 통하는가. 명령체계인데…》

《해보라지. 핫하…》

《핫하…》

강변

산비탈 바위벼랑밑으로 시퍼런 강물이 흐른다.

푸들적거리는 물고기를 손에 든 수경을 낀 청년이 수면우에 불쑥 솟아오른다.

강기슭에서 조무래기들이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린다.

《야, 또 잡았다!》

《던지랴요. 던져!》

수경을 낀 청년이 강기슭을 향해 잡은 물고기를 힘껏 던지며 소리친다.

《여 놓치면 안돼, 그 물고기에 이 박치삼의 명줄이 달려있다.》

조무래기들이 달려간다.

자갈밭에 떨어진 물고기를 에워싸고 조무래기들이 떠들썩한다.

《데저 아야 왕고기다.》

《무슨 고기가?》

이미 잡은 물고기궤미를 든 소년이 뒤미처 달려오며 소리친다.

《야, 비켜라. 형님이 고기에 무슨 줄이 달려있다구 했어.》

《아니야. 줄이 달린건 메사구야.》

《그건 줄이 아니라 수염이야.》

《수염은 줄이 아니냐?》

《수염이야.》

《줄이야!》

조무래기들이 한창 열을 올리는데 은정이가 다가온다.

《애, 너희들 그러다 싸우겠구나. 아니 너희들 고길 많이 잡았구나.》

《우리가 잡은게 아니라 저 형님이 잡았어요.》 하며 궤미를 든 소년이 강쪽을 가리킨다.

어느새 자맥질해 들어갔었는지 치삼이가 또 다시 물고기를 잡아들고 수면우에 솟아오른다.

은정이 깜짝 놀란다.

《아니 치삼동무가?!》

《위원장동지…》 하며 치삼이가 수경을 벗어 들고 물속에서 달려나온다.

《아니 치삼동무한테 이런 희한한 재간이 있었어요?》

《학교때 수영을 좀 했지요. 고향이 바다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걸 어떻게 알구요…》

《벌목장엘 찾아가는 길이였지. 러관에 들렀더니 요새 동무가 늘 벌목장에 나가 산다구 하드만.》

《그래요…》 하며 치삼이 한쪽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조무래기들이 그를 둘러싼다.

《형님, 이 고기엔 아무리 찾아봐두 줄이 없어요.》

《줄? …》

《데저… 형님이 아까 놓치지 말라구 하면서 줄이 달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응… 너희들 그 소리였구나. 핫하… 위원장동지, 이애들이 지금 무슨 소릴 하는지 압니까?… 아까 내가 룡삼아 이 고기에 내 명줄이 달렸다고 했더니 그게 리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데저…》 조무래기들이 그제야 알았다는듯 떠들썩하며 달아난다.

은정은 생각이 깊어져 덤덤히 서있다.

치삼이 그의 옆에 다가서며 말한다.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목재는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동무들이 몽땅 차지하구 한가치두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군인동무들이?》

《내 그래서 생각다 못해 가방에 술이 서너병 되드라니 안주감을 마련하자구 이렇게…》

《여긴 고산지대여서 아직 물이 찰텐데 그러다 감기라두 들면 어쩔려구…》

《까짓거 감기쯤 뭐랍니까, 난 목재만 받을수 있다면 얼음구멍에라두 들어가겠습니다.》

《치삼동무, 나와 같이 판매파로 가자요.》

《판매파엔 가나마나합니다. 거기선 군인동무들이 철수할 때까지 한두달 기다리던가 기다리지 못하겠으면 다른 림지에 가서 받으라는겁니다.》

《그렇다구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구 해서야 안되지 뭐.》

《옛날부터 법은 멀고 인정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권기관원군들이야 나라고 세운 법을 지키는데서두 모범이 돼야지요, 자 가자요.》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판매파 대기실

뽕안 담배연기속에 은정과 치삼이 러관방에서 본 인수원들틈에 끼워앉아있다.

사무실안에서 책상을 치며 고아대는 소리,

《동무, 나가란 말이요!》

《여보, 내 동무같은 사람하군 두번 다시 맞서질 않겠소!》

열이 올라 얼굴이 벌개진 중년사나이가 사무실문을 팡 닫고 나와 밖으로 헝하니 나간다.

치삼이가 한숨을 쉬며 은정에게 말한다.

《위원장동지, 돌아갑시다.》

《…》

이때 밖에서 승용차 멧는 소리가 나더니 삼면가방을 든 주영준이 대기실을 거쳐 사무실로 들어간다.

《석탄공업부 부총국장입니다. 요새 동발목때문에 와있지요.》

치삼이 은정의 귀에 대고 말했다.

《석탄공업부 부총국장!》 하며 은정이 사무실문쪽을 보는데 주영준이 사무실안에서 되돌아온다.

그를 보는 은정의 시야에 중위의 견장을 단 주영준의 모습이 2중으로 안겨온다.

주영준이 은정의 앞으로 다가온다.

《삼일군행정경제위원장동지가 아닙니까?》

《아니 여길 어떻게…》 하며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옳구만요! 내 어쩐지 낮이 익다해서 되돌아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주영준이 은정의 손을 와락 잡는다.

《내 일전에 그 집 남철일 만났었습니다. 무척 컸드구만요. 이젠 대학을 다 졸업하게 되구.》

《석탄공업부에서 일을 한다지요?》

《예, 지난해에 군대에서 제대돼서… 그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재때문이라면 내가 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아이 바쁘실텐데…》

《하여간 가십시오. 위원장동무가 알만한 사람이 여기에 또 한사람 있습니다.》

《아니 누군데…》

《위원장동무가 잘 아는 동무이지요. 그 동무도 위원장동무 보면 굉장히 반가와할겁니다. 하여간 가십시오.》

《아이 누군가…》 하며 은정이 치삼에게 눈짓을 하고 주영준의 뒤를 따라나간다.

치삼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데 승용차가 길 건너편 군인숙박소 앞마당에 들어가 멧는것이 보인다.

《야 됐구나 됐어!》

군인숙박소의 어느 한 방

인민군 대좌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전화를 걸고있다.

《역장동무, 오늘중으로 무조건 통나무 열방통을 실어보내야 합니다… 글쎄 상차로력은 걱정말라니까요. 내 당장 한개 중대 더 보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합시다.》

대좌가 수화기를 놓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주영준과 은정이 들어온다.

《여보 박철이, 여기 누가 왔는가 좀 보오.》

《아니 누군데…》 하며 박철이 일어선다.

《하, 이 친구 알아보질 못하는구만. 삼일군행정경제위원장동무요.》

《예?! 아니 이거…》 박철이 반기며 다가온다.

주영준이 웃으며 은정에게 말한다.

《이젠 생각나지요? 육아원에 된장통을 싣고 갔던 상등병 마사원.》

《어마나,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은정이 환성을 지르며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박철이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야,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주영준동지가 삼일군에 물길공사 지원을 나갔다가 한번 만나보았다는 얘긴 들었는데… 자, 여기 어서 앉으십시오.》

그들이 쏘파에 앉자 박철이 감회에 잠겨 묻는다.

《참 그 쫘지머리 탄실동무두 잘 있습니까?》

《네, 지금은 량정사업소 지배인사업을 맡아합니다.》

《그래요? … 그 동무두 한번 보고싶구만요.》

《가만 회포는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 우선 용건부터 말을 해야겠네. 여보 박철동무, 위원장동

무가 군에 목재가 필요해서 왔다는데 자네가 좀 도와줄수 없겠나?》

《목재요?... 얼마나 요구됩니까?》

《한 뒤방통 있어야겠어요.》

《두방통이란 말이지요...》 하며 박철이 잠시 생각하는데 주영준이 그를 나무란다.

《아니 뭘 생각할게 있나? 자네야 하루에 두 수십방통씩 발전소건설장에 실어보내는데 그까짓 거야 새발에 피지 뭘 그러나.》

《그야 물론...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부대가 말아 건설하고있는 발전소건설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어떻게 하나 올려 장마철전으로 끝낼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며 은정이 놀란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지금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하지만 좀 생각해봅시다. 독트에 두 용수가 있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두 위원장동무야 도와드려야지요.》

《...》

군인숙박소 앞마당

은정이가 현관을 나서는데 이미전에 치삼이와 함께 기다리고있던 인수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를 에워싼다.

《위원장동지, 평남도지질탐사대 자재과장입니다. 여기 대좌동지하구 보통사이가 아닌것 같은데 우리두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그저 통나무 한방통이면 됩니다.》

《우리두 좀 도와주십시오. 그저 대좌동무하구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위원장동지, 난 여기 와서 보름째나 묵고있습니다. ...》

거끔내기로 말하는 인수원들을 둘러보는 은정의 얼굴에 자책의 빛이 어린다.

(다음호에 계속)

짧은시

우리의 로병들 외 1편

김창식

앞가슴에 훈장 가득 절령이며
로병들이 지나가니
온 거리가 환해진다

저 할아버지 훈장이 열개라고
저 할머니 메달이 아홉개라고
셈세기에 열을 올린 아이들의 눈망울이
별같이 빛나누나

하지만 아이들아 너희들도 알아라
로병들 가슴에 빛나는
그 개수가 위훈의 크기 다 말한다고
생각지 말아라

조국이 위험에 처한 그때
총치고 싸움판에 뛰어든 병사
제 나라 제 땅을 지켜낸 그들 모두는
우리 당이 내세워준 《50 년대의 영웅》 이란다

의지

일에서 지쳤을 때
기력이 진했다 마오

격전장
적탄에 가슴 뚫린 병사
기력이 있어서
땅을 차고 몸을 일으켜

탄우속 다시 전진한줄 아오

적의 불아가리 몸으로 막은줄 아오

일에서 지쳤을 때
기력이 진했다 마오
의지력!
이것으로 번디디면 다시 일어선다오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자세
우리는 이렇게 키웠다오